

研究報告
1989. 12 205

農工地區開發事業의 波及效果分析研究(3次年度) 1

江原 橫城郡
墨溪農工地區 事例

金 京 德(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연구보고 205

농공지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연구(3차년도) ①

강원 횡성군 둑계농공지구사례

요 약

1989년 10월 15일 현재 전국 농공지구수는 151개이고 그중 83개 (55.0%) 지구가 부지조성 완료되었으며, 45개 (29.8%) 지구가 부지조성 중에 있고 총 1,804개의 입주공장중에서 455개의 공장이 설비를 하고 있다. 고용계획은 241천명인데 공장가동중인 업체의 현고용량은 25,727명이다.

농공지구지정의 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충남(19.2%), 경남(17.9%), 충북(17.2%), 경북(17.2%)의 순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는 충남 북지역에 55개소(전체의 36.4%),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공업지대에 인근하고 있는 경남북지역에 53개소(35.1%)가 집중되어 지역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업종분포는 전국치와 비교하면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의 업종비율이 높고 섬유, 식품에서는 낮고 화공은 비슷하다. 도별로는 경기도는 식품공업으로 특화되어 있고 경북은 봉제섬유공장, 경남은 기계금속의 특화가 현저한 반면 타지방은 다양한 업종들이 혼재되어 있다.

공장 가동업체의 현지인 고용비율은 전국 평균 69.0%인데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고(53.3%), 제주는 현격히 높다(85.1%), 여기서 농공지구 가동업체의 고용규모와 현지 지역주민의 고용비율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 구조조정 없이 현상황에서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지역내에서 이를 공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공지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산업부문간 노동력 조정없이는 농공지구의 노동력 수요를 해당지역내에서 총

당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케 한다. 따라서 농공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농가유형별 농입 및 농외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현지주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주민의 쟁업훈련등의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 6월 현재 횡성북계 농공지구 13개 가동업체의 고용량은 594명이고 이중 임시 및 계절 취업자는 63명이다. 횡성 농공지구와 임가공 계약을 맺고있는 가구는 158가구이다. 한편 세부자료 수집가능한 10개업체의 총고용인원은 475명이고 이중 횡성군 현지출신자는 전체의 80.8%,로서 전국 평균 61.7%보다 높다. 현지인중 농가구원은 45.3%이고 조사대상 종업원중 농가구원은 38.3%에 불과하였다. 고용현황을 1987. 6, 1988. 6, 1989. 6의 시계열로 비교하면 '87년 대비 종업원 연령이 10대는 현격하게 줄어든 반면 20대 30대는 약간씩 증가하고 농가의 점유비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농공지구가 설립 초창기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서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지인 고용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10대 종업원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20대, 30대 종업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농공지구가 설립된 후 어느정도의 안전성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농가구원의 취업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농공지구가 농업과 동시에 병행되는 부업의 성격이 아닌 전업적 취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 12월 말 현재 13개업체의 총자산중에서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38.6%로 1988년 전국중소기업 제조업체의 평균 21.8%보다 높으나 유동자산 비율은 25.3% (10개업체 평균)로 전국 평균 56.7%보다 낮았다.

기업의 단기적 자금사정을 평가하는 수표나 어음결제 능력 즉,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을 살펴보면 2개업체를 제외하고는 200%를 상회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양호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88년 전국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평균 유동성은 104.5%에 불과한데 비하여 횡성 북계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단기채무 지급능력

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안정성 지수인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은 각각 38.6 %, 216.9 %, 242.4 %로서 1988년 전국중소기업 평균 21.5 %, 357.7 %, 195.5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비율은 전국 평균 195.5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기준치인 100 %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업체는 4개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입주업체들이 농공지구 입주시 정부지원의 혜택, 응자 등에 의하여 유치되었고, 또한 입주시 신규투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따라서 불경기때 과다한 이자지출로 인한 경영악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경우 그 속성상 농공지구의 지원혜택 (공업용지제공 및 정부의 세제 금융상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계기업 (*marginal firm*)이 농공지구에 입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입주업체의 자기자본에 대한 고정자산 비율이 높다는 것은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지속적 유효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횡성 목계 농공지구의 1988.1.1부터 1988.12.31까지 시험가동중인 1개업체를 제외한 10개 가동업체의 매출액 총액 10,247 백만원중에서 역내 (군내) 판매액은 5백만에 불과한 바 목계 농공지구 입주업체는 모두 역외 (군외) 수출업체라 간주할 수 있다.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는 도내가 12.3 % (1,257 백만원), 도외가 56.1 % (5,744 백만원), 수출이 31.6 % (3,241 백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외 판매지역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바 목계농공지구 입주업체들은 서울 및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부자재 구입비용은 약 4,658 백만원에 달한다. 구입지 분포는 군내가 1,562.4 백만원 (33.5 %), 도내가 870.1 백만원 (18.7 %), 도외가 1,573 .6 백만원 (33.8 %), 수입이 651.9 백만원 (14.0 %)으로 구성되어 원부자재비용의 1/3 이상이 군내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 원부자재의 군내구입이 타지역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목계농공지구 10개 가동업체중에서 농산물가동업체가 4개업체이고 이중 1개업체가 대기업의 분공

장으로 전체 원부자재구입비용의 약 44.7 %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4개 농산물 가공업체 (IV, V, VII, 라업체)의 원부자재 구입비용의 국내지출비는 각각 50.0 %, 60.0 %, 683 %, 43.0 %로서 이들 업체의 원부자재 비용중 농산물 가공업체의 국내 원부자재 구입비는 66.8 %에 달하는데 비해 비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국내 원부자재 구입비는 이들 업체 원부자재 비용중에서 2.5 %에 불과하다. 이것은 횡성군의 지역농업구조가 타지역과는 달리 농산물 가공업체에게 원료확보의 용이성(예를 들어 호프, 포도 등의 지역특산물)이라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1개업체의 월평균 고용인원은 465명이고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약 288.5천원으로 1인당 연평균 약 3,462천원의 임금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88년 1년간 인건비 지출은 약 1,584백만원인데 지역주민 고용비율이 약 80.9 %임을 고려할 때 '88년 인건비의 횡성지역내의 귀속액은 약 1,281.5백만원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88년 1년간 농공지구로 인한 횡성군내의 원부자재비 및 인건비의 지역내 귀속액은 약 2,843.9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총생산액 11,321백만원의 25.1 %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횡성목계 농공지구의 고용승수는 약 1,43으로서 1989년 6월말 현재 농공지구의 직접 고용인원 594명에 대한 횡성지역내 총고용(수요)효과는 약 849명에 달하여 약 255명이 횡성군내에서 농공지구로 인하여 농공지구 이외부분에 순고용 창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향후 목표년도의 고용계획치 2,200명에 대하여는 약 946명의 순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여 횡성지역내 총 3,146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이 경우 횡성지역내 산업부문간 인력조정 없이는 노동력수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효과는 간단한 케인자안 모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는데 소득승수는 약 2.0에 달한다. 따라서 1988년 한해동안 11개 가동업체의 연평균 임금총액 1,584백만원에 의하여 유발되는 지역 소득승수액은 3,168백만원에 달한다.

농공지구 가동업체의 '88년 한해 동안의 생산액 11,323 백만원에 의하여 유발되는 횡성군내 생산유발효과는 총 17,709.4 백만원이고 그중 제조업 생산유발은 12,575.4 백만원 재배업은 4,144.6 백만원이다. 지역내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총 6,840.1 백만원으로 총생산액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로부터 이입유발효과는 약 4,479.7 백만원으로 총생산액의 39.6%에 달하고 있다.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내 변화사항은 지역내 취업기회의 확대로 인하여 농촌주민들의 이촌이 어느정도 감소하였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여론 청취되었다. 그러나 품앗이 . 이웃간의 길흉사참여 등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풍속은 상당히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공지구 취업농가중에서 경영주 본인이 취업한 농가는 15.1%에 불과하였고 주로 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한 것으로 (60.4%) 나타났다. 따라서 농공지구에 취업함으로써 집안의 농사일에는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공지구가 농업부문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잠재적 실업을 어느정도 해소시키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이것은 농공지구 취업후의 농사방법이 남은 가족들에 의하여 대체되었다가 64.6%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업노동력 고용으로 대체하였다도 20.0%에 달하므로 현재의 영농구조하에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농외취업을 증대시키는데 그 한계점이 있다.

농공지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가) 문제점

농공지구개발사업의 제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농공지구 개발의 지역적 편중 심각 : 지역균형개발 저해 (또 다른 사회적 비용 초래).
- 행정처리 절차의 복잡 및 장기간 소요 :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증대.
- 향후 농공지구개발사업 담당주체 불분명 : 민간 또는 정부 (부처간 업무담당 명기).

- 지역 유효노동력 (effective labor force)의 부족 : 노동력 수급 불일치.
- 입주업체 선정의 문제 : 안정성 결여 (영세농의 농공지구로의 전업 취업 유인부족).
- 지역주민과 입주업체간의 갈등 발생 내재 : 입주업체의 지역 통합도 저조.
- 농업구조 개선 대비시책 미흡 : 농지유동화 및 영농기계화 병행 추진 노력부족.
- 지역종합개발과의 연계인식 부족 : 투자개발의 집적효과 (agglomeration effect) 미흡.
- 지방상공행정 기능의 취약 : 사회적 거래비용의 증대.

(나) 개선 방안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효과는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조직적인 효과탐지체계 (monitoring system)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입주업체의 최적선정 및 지방 상공행정기능의 강화 필요.

셋째, 지역 노동력 공급의 원활화대책 강구.

넷째, 지역간 균형개발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 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간 차등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이와 관련하여 농촌공업의 무질서한 확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입지와 업종유치를 통한 이상적 지역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공업개발과 관련 있는 공업단지 조성 및 공업 배치에 대한 통합조정, 농촌공업개발의 공간적 배치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주민과 입주업체와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

일곱째, 농업구조 개선시책의 적극 병행 필요하다.

여덟째, 농공지구 개발정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대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끝으로,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종합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사회기간시설의 확충 및 보완에 중점으로 두어 농(어)촌지역이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다.

빈

면

머리말

최근 政府에서는 「農漁村 所得源 開發促進法」(1983.12)을 제정하고 農工地區 開發事業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1984년 9월부터 착수된 農工地區는 1989년 10월 15일 현재 151개 地區가 지정되었고 이 중 3,257 千坪은 이미 工團造成이 완료되었으며 약 902개의 入住業體가 공장을 건설하여 부분적으로 가동중에 있다.

이와같은 農工地區 開發事業의 政府目標는 前記한 「農漁村 所得源 開發促進法」(法律 제 3689 호)의 制度目的에 나타나 있다. 즉 “農漁村 地域에 工業 및 서비스 產業을 유치하여 農漁村 所得源開發을 촉진함으로써 農漁村 所得을 증대하고 所得構造를 고도화하여 農漁村經濟의 균형있는 發展을 도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農工地區開發의 주요 政策目標를 農外所得增大에 두고 있다. 한편 農工地區 開發事業은 前記한 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政策手段이다.

일반적으로 政府의 政策은 대부분 事前的 評價와 事後的 評價를 겸치게 된다. 事前的 評價는 특정한 政策目標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여러가지 政策代案의 妥當性을 事前的으로 검토하는 政策決定 과정이다. 事後的 評價는 事前的 評價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政策結果를 파악하여 당초의 政策目標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事後的으로 검토하는 政策管理의 한 과정이다.

農工地區 開發事業의 事前的 評價는 국내의 地方工業園地 育成의 결과나 국외의 農村工業開發(예: 아시아 인접국) 결과 등에서 그 妥當性은 대체로 실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農工地區 開發事業은 그 初期段階로써 事後的 評價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本 研究는 農工地區 開發事業의 事後的 評價로서 初期段階에서부터 政策結果를 探知(monitor)하여 문제점에 適時對應함으로써 社會的 費用을 극소화하고 당초 의도했던 農工地區開發 政策目標의 效율적 달성을

에 필요한 政策資料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本 研究는 當研究院에서 1991년까지 推進計劃으로 되어 있는 農工 地區 開發事業의 評價研究中 제 3 차년도 결과로서 研究事例 地域인 3 개지역(강원 횡성, 충북 진천, 경남 함양) 중 강원도 횡성農工地區 事例를 중심으로 研究分析한 결과이다.

本 研究의 내용은 農工地區 開發의 理論的 背景, 開發現況, 波及效果, 그리고 政策課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와같은 내용이 農工地區 開發政策의 效用적 추진을 위한 유익한 政策資料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本 研究業體 수행 중 資料蒐集에 협조하여 주신 農民, 入住業體從業員, 入住業體 및 行政機關 公務員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本 研究를 담당해 준 필자의 노고를 치하한다(필자는 本 研究의 방향에 대하여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 崔洋夫 首席 研究委員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와 원고정리를 도와준 朴時炫 研究員과 黃英伊 主任研究補助員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研究의 결과는 研究擔當者의 의견이며 當研究院의 公式 見解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989.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제 2 장 농공지구 개발현황

1. 농촌공업화 정책의 대두배경	3
2. 전국 농공지구 지정 및 개발실태	5

제 3 장 횡성군 지역경제의 성격

1. 공간적 위상	24
2. 인구현황	27
3. 지역경제 구조	39

제 4 장 횡성군 농공지구 개발현황

1. 지정 및 조성현황	48
2. 횡성 농공지구 입주업체 실태	60
3. 입주업체 종업원의 실태분석	70
4. 농가출신 종업원에 대한 조사결과	92

제 5 장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1. 파급효과의 개관	100
2. 고용효과	104

3. 생산 및 소득효과	110
4. 기타효과	115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19

표 목 차

제 1 장

표 1-1	현지조사의 규모 및 내용(조사시기 : 1989. 7~8).....	2
-------	--------------------------------------	---

제 2 장

표 2-1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내역	6
표 2-2	농공지구 향후 금융지원 내역('90. 1. 1 시행)	9
표 2-3	연도별 농공지구조성 현황	9
표 2-4	농공지구 조성실태	10
표 2-5	지역별 농공지구 지정현황('89.10.15 현재)	10
표 2-6	농공지구의 조성면적	12
표 2-7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종목별 특성	14
표 2-8	도별농공지구 공장의 입주형태	15
표 2-9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공장가동 및 고용상태	16
표 2-10	부지조성완료 지구의 입주업체 공장가동 및 고용실태.....	21
표 2-11	입주업체의 성별고용인구	23

제 3 장

표 3-1	횡성군 가구별 인구구성과 변화추이(전국 및 강원도 대비).....	29
표 3-2	횡성지역내 성별·연령별 인구현황, 1988	32
표 3-3	연령별 비농가 인구비	36
표 3-4	횡성군 읍·면별 인구변화추이, 1970 ~ 1988	38

표 3-5	횡성군 지역총생산(GRP) 추이, 1980 ~ 1985, ('80년 불변가격).....	40
표 3-6	연도별 횡성군 산업구조(강원도 및 전국대비)	41
표 3-7	횡성군 산업별 취업인구 구성, 1985	43
표 3-8	횡성군 산업부문간 직종별 취업인구 구성, 1985	43
표 3-9	횡성군 총생산액과 부가가치액, 1985	45
표 3-10	횡성지역 경제구조, 1985	46
표 3-11	횡성군 최종수요 및 지출구성, 1985	47

제 4 장

표 4-1	횡성 농지 농공지구 공사비 내역	49
표 4-2	횡성 농지 농공지구 조성예산 및 결산.....	51
표 4-3	횡성 농지 농공지구 개요	52
표 4-4	횡성 농지 농공지구 지정 및 조성추진 절차	53
표 4-5	횡성 농지 농공지구 입주업체 현황(1989.6월현재).....	54
표 4-6	우천 농공지구 공사비 내역	56
표 4-7	우천 농공지구 입주업체 현황	59
표 4-8	자본금 구성내역	61
표 4-9	횡성 농지 농공지구 10개업체 고용현황(1989.6월)	65
표 4-10	고용실태의 항목별 변화사항	66
표 4-11	11개 가동업체 생산 및 판매현황(1988. 1. 1 ~ '88. 12. 31).....	68
표 4-12	응답종업원 성별 연령분포	70
표 4-13	종업원 성별 직종분포	71
표 4-14	직종별 취업전 거주지	72
표 4-15	직종별 현거주지역	72
표 4-16	직종별 거주지 형태	73
표 4-17	직종별 학력	74
표 4-18	직종별 취업전 직업	74

표 4-19	직종별 취업전 농사일 정도	75
표 4-20	직종별 종업원 기술습득처	76
표 4-21	직종별 취업방법	76
표 4-22	출신지별 취업방법	77
표 4-23	직종별 근무기간	78
표 4-24	직종별 임금분포	81
표 4-25	직종별 가계비 지역내 지출비	82
표 4-26	총월소득별 가계비 지역내 지출비	83
표 4-27	근무기간별 직장만족도	84
표 4-28	직종별 직장만족도	84
표 4-29	직종별 농공지구 취업안정성 여부	85
표 4-30	직종별 타공장으로의 이동희망 여부	86
표 4-31	직종별 취업형태	87
표 4-32	직종별 취업불만점	87
표 4-33	출신지별 취업불만점	88
표 4-34	직종별 농공지구 비취업시 예상되는 대안	90
표 4-35	직종별 직장에 바라는 사항	91
표 4-36	농공지구 취업확대 방안	91
표 4-37	농가형태별 경영규모	93
표 4-38	농공지구 취업자와 농가경영주의 관계	93
표 4-39	경영주가 농공지구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	94
표 4-40	농공지구 취업이유	94
표 4-41	취업후 농사방법	95
표 4-42	취업가능 가구원수	96
표 4-43	경영규모별 농공지구 계속 취업여부	97
표 4-44	농업의 계속여부와 계속 이유	98
표 4-45	농사일 참여시기	98

제 5 장

표 5-1 횡성군 제조업체 현황

(농공지구제외 5인 이상 고용업체) 1988. 12. 31 현재 107

표 5-2 통근거리별 읍·면수와 농공지구 취업가능 연령인구(1988. 12 월 현재) 109

표 5-3 종업원 월평균 임금총액과 저축총액 111

표 5-4 종업원 월평균 저축총액과 임금총액의
회기분석 결과 111표 5-5 농공지구 가동업체 생산량의 횡성군내 부문별
생산유발 효과 113표 5-6 농공지구 가동업체 생산량의 횡성군내 부문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114표 5-7 농공지구 가동업체 생산량의 횡성군내 부문별
이입유발 효과 115

표 5-8 농공지구 조성후 변화사항 116

표 5-9 농공지구 조성사업후 젊은 노동력의 이촌향도정도 117

표 5-10 추가 농공지구 개발 의견 117

표 5-11 농외취업 가능한 젊은 유효노동력 존재여부 117

표 5-12 농촌지역에 더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118

부표 1. 횡성지역 투입산출 거래표 129

부표 2. 횡성지역 투입산출 계수 129

부표 3. 횡성지역 부문별 생산유발 계수(I-A) ⁻¹ 형 130

부표 4. 횡성지역 부가가치 유발계수표 130

부표 5. 횡성지역 이입유발 계수표 131

부표 6. 횡성지역 후방효과(영향력 계수), 전방효과(감응도계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131

그 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농공지구 조성현황 (1989.10.15 현재)	11
------------------------------------	----

제 3 장

그림 3-1 횡성군 관내도	25
그림 3-2 국토개발 축상의 위치	26
그림 3-3 공업개발 권역상의 위치	27
그림 3-4 농업권역상의 위치	28

제 4 장

그림 4-1 횡성우천 특별 농공지구 추진상황	57
그림 4-2 임금소득 분포의 로렌츠 곡선	79

제 5 장

그림 5-1 과급효과의 시계열상 변화추세	102
그림 5-2 지역경제에 대한 농공지구의 과급효과 흐름도	103

빈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농어촌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파악함으로써 농공지구 개발이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농공지구 개발사업은 1984년 7월 최초로 시범지구가 지정된 이래, 입주한 일부 업체가 1986년 하반기와 1987년 상반기중에 가동이 시작되어 농공지구개발의 종합적인 효과를 파악 분석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1985년에 착수된 전국 7개 시범농공지구 가운데 3개 농공지구(강원 횡성, 충북 진천, 경남 함양)를 중심으로 농공지구 개발이 해당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3개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가 되며 그 중에서도 강원도 횡성을 중심으로 농공지구개발사업정책의 직접적 결과 또는 파급효과를 파악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1)농공지구 개발정책의 전개과정 및 조성현황, (2)사례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공지구 개발의 파급효과 측정, (3)농공지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제시 등이다.

연구방법은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지조사는 군행정기관, 입주업체, 입주업체소속종업원, 농공지구 취업농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상대상별 조사규모 및 조사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현지조사의 규모 및 내용(조사시기: 1989. 7~8)

구 분	조사규모	조 사 방 법	조 사 내 용
군 조사	강원횡성군	1987~'89년 실태기입	○ 인구, 산업구조, 공업개발 실태등
입주업체	13 개 업체	설문조사	○ 자본금, 생산액, 지출액, 고용현황 등
조 사			
종업원	250 명	가동공장중 종업원 50 명이상은 30명, 50명미만은 20명을 표본조사	○ 취업전 거주지, 직종, 임금, 지출액, 의사분석 등
조 사			
농가조사	65 호	농공지구 2년이 상 취업농가	○ 가족수, 경지규모, 농가소득, 농기계 보유현황, 작부체계 등

기업체, 종업원 및 농가조사에 있어서는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현지조사결과의 제표분석, 지역경제기반모형 및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총체적 파급효과 및 부문별 파급효과를 계측하였다.

제 2 장

농공지구 개발현황

1. 농촌공업화 정책의 대두배경

1960～70년대의 소박한 경제주의 (naive economism)¹⁾ 철학에 바탕을 둔 경제개발 전략은 인구 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의료,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집중을 가속시켜 왔고, 이는 다시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대도시개발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의 채택은 1940～60년대초 한국사회에 만연하는 절대빈곤과 실업을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기 위한 일방안이라는 데에 시대적 정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유휴노동력 (idle labor-force) 또는 잠재실업 (under employment)을 비농업부문에 흡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이로 인한 국민생산의 증대와 실업문제의 해소를 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단위 노동당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1) 황병태, 「경제주의의 종언」, 우석출판사, 1980.

공업부문을 우선 성장시키고 동시에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도시 집적의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60 ~ 70년대를 지배하여 온 경제주의는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주도 경제개발론, 공업과 대도시 우선개발을 추구하는 성장거점 개발이라는 불균형 성장론,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출주도의 대외지향개발론, 선성장 후분배론 등의 수출주도적이고 공업편향적인 개발전략으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발전략은 절대빈곤과 실업의 해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동남권 대도시 지역과 여타지역간의 불균형 성장은 물론이요 농업과 공업부문간, 도시와 농촌간의 상대적 격차라는 계층간,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의 초래, 즉 도시 - 농촌, 공업 - 농업간의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대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이에 수반되는 농촌인구의 유출은 공업화 초기에는 값싼 공업노동력의 확보에 용이함을 보여 주었으나 점차 도시지역에서의 주택, 교통, 교육, 범죄, 혼잡 등의 도시화문제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유효노동력 (effective labor force)의 부족을 초래하여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사회적 비용 (social cost)의 상승을 가져왔다. 즉, 도시의 인구집중은 공업집중지역인 도시지역에 공해방지와 교통시설의 확충, 생활환경의 보존, 주택문제 해결 등의 도시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켰고 이 비용은 궁극적으로 도시공업부문에 귀착 됨으로써 도시공업부문의 효율성의 저해라는 집적비경제 (agglomeration diseconomy)를 초래하였다. 한편 농촌지역에서의 유효노동력의 급격한 유출은 농업노임의 상승을 유발시켜 농업부문의 경쟁력 약화와 농가경영의 수지악화, 이로 인한 농가구매력의 상실 등을 초래함으로써 농촌지역시장의 위축과 농촌지역에서의 소득원의 상실을 가져왔다. 이는 다시 농촌지역 주민의 감소를 유발시켜 농촌지역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자생적 회생수준을 초과하여 농촌지역은 더이상 삶의 터전으로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상의 제반문제는 경제력 집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위 외부비경제 (external diseconomy)의 결과로서 시장경제기구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시장의 실패인 바 정부개입에 의한 경제구조조정의 필요가 촉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채택된 것이 바로 농촌공업화 정책인 것이다(김경덕, 1988.12).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농촌공업개발 정책들, 즉 「농어촌 부업단지 육성사업 (1968)」, 「공업개발 장려지구 (1970)」, 「새마을 공장건설사업 (1973)」, 「공업유치지구 (1977)」 등의 사업의 단점을 보완, 발전시켜 지역간 균형개발, 산업부문간의 유기적 연관을 강화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로운 농촌공업화 시책으로 「농공지구(농어촌공업도입 촉진지구) 개발사업」정책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1983.12)」을 근간으로 한 농공지구의 개발추진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83.12.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제정.
- 1984. 4. 동법 시행령 개정.
- 1984. 9. 시범 농공지구 7개소 지정.
- 1986. 3. 「농어촌 종합대책」으로 농공지구개발을 지원.
- 1986. 5. 낙후 농어촌지역을 추가지원대상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확대.
- 1987.10. 농어촌 인력개발 지원대책 수립.
- 1989.11. 농어촌 공업개발 촉진대책 수립.

2. 전국 농공지구 지정 및 개발실태

가. 지정 및 조성현황

1989년까지 시행되어 온 농공지구 지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공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행정구역의 범위는 전군과 인구 20만이하의 시지역이나 경기도의 시·군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직할시에 인접한 읍·면지역과 기개발된 공업단지가 있는 읍·면 및 중화학 공업기지가 있는 읍·면 등은 지정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농공지구 지정 해당지역은 32개시, 120개군지역이 된다.

특히 공업집적도가 낮고 공장 유치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19개시 90개군을 공업 낙후지역으로 선정하여 일반농어촌지역과 구별하여 우선지원 대상지역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표2-1)。

지정규모는 일반 시·군지역은 10만평, 공업낙후 시군지역은 20만평을 그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내용은 지정면적외에도 농공지구 조성비에

표 2-1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내역

◎ 세제지원

국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 투자준비금 손비 인정(사업용 자산의 15%) 또는 특별감가상각 100% 추가인정 — 대도시(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 이전공장의 경우 공장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면제 추가
지방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재산세 1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금융지원

구 분	금융지원 한도	지 원 조 건
일반	시설자금 3억원 이내 (소요의 90%까지)	연리 9%,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농촌지역	운영자금 1억원 이내 (소요의 70%까지)	연리 9%,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추가지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소요의 90%까지)	연리 8.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농촌지역	운영자금 2억원 이내 (소요의 70%까지)	연리 8.5%,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대한 국고부담률을 높이고 (50 % → 70 %), 입주업체에 대한 용자지원 액을 늘리며 (4 억 → 7 억), 지원금리를 인하 (연 9 % → 8.5 %) 하는 등 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농공지구의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 지역, 개발촉진지역, 산림보존지역과 토지이용실태상 집단화된 우량농경 지가 50 %이내인 경지,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고시후 5 년이 경과된 녹지지역 등이다.

농공지구의 지정은 일반지정과 특별지정의 이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지정은 농공지구 예정지구로 고시한 다음 입주수요에 의거 조정하는 “ 선 입지선정 후 입주공장 유치 ” 의 방법으로서 각도별로 연중 계 속 3 개기구를 상한으로 농공지구 예정지구를 선정한다. 예정지구 선정 후 입주 적합기업의 부지수요가 예정지구의 지정 규모의 50 % 이상일 경우 정식 농공지구로 지정되는 계획입지적 성격을 띤다. 반면 특별지 정은 일정지역에 3 개 이상의 기업에 의한 공장부지 수요가 15,000 평 이상일 경우 수시로 지정하여 농공지구로 조성하는 일종의 자유입지적 성격은 띠는 지정방법이다.

농공지구의 지정개발은 해당 군수, 시장의 책임하에 “ 도농어촌 소득 원 개발위원회 ” 와 “ 중앙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 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고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공지구의 지정 ·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여건 의 취약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많은 보조지원이 뒤따르고 있는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상의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농공지구에 대한 지원책은 농어촌지역의 불리한 공업입지조 건하에서도 대도시로부터의 이전공장이나 신축공장이 농공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 지원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농공지구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농공지구에 신규 공장을 창설할 경우 이를 강력히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내의

부존자원 활용여부를 크게 문제삼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입지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부처의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8개부, 3개청 6개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중앙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역효과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 지원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공지구개발사업정책은 기존의 농촌공업화 정책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즉 사업성 검토의 불충분과 경영능력의 미숙, 국토공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다른 공업입지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 부족 나아가 공업 입지상의 불리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책의 개선 등으로 상쇄 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영관리상의 문제 등 농공지구 입주기업운영에의 어려움이 없다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공지구 지정·개발문제는 1989년 11월 20일에 발표된 농촌공업개발 촉진대책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개선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90. 1. 1 시행).

첫째, 농공지구 편입농지의 전용여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둘째, 입지선정과 기준, 농어촌지역의 수질, 환경보전, 우량농경지 보호 등 농공지구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셋째, 현행의 일반지정과 특별지정제도를 통합하여 지정상하한규모(3만평 - 7.5만평)를 두며

네째, 농어촌지역의 범위중 시부지역은 인구 10만이하로 축소하며
다섯째, 현행의 「일반농어촌」과 「추가지원 농어촌」의 구분을 더욱 세분화하여 「우선지원 농어촌」을 새로이 추가하여 각 구분별로 금리의 차등지원(8%~7%), 금융지원한도의 차등화(3억원~8억원), 개발 연면적의 차등화(10~30만평) 등을 통해서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2 참조).

농공지구는 1985년 7개군에 7개 시범농공지구가 지정되어 조성된 이래 1989년 10월 현재 총 151개소의 지구가 103개 시군지역에 지정되었

표 2-2 농공지구 향후 금융지원 내역 ('90. 1. 1 시행)

	일반농어촌		추가농어촌		우선농어촌	
	금융한도	연리	금융한도	연리	금융한도	연리
시설자금	2억원이내 (소요 의 90 %까지)	8.0%	3억원이내 (소요 의 90 %까지)	7.5%	5억원이내 (소요 의 90 %까지)	7.0%
운전자금	1억원이내 (소요 의 70 %까지)	8.0%	2억원이내 (소요 의 70 %까지)	7.5%	3억원이내 (소요 의 100 %까지)	7.0%
합계	3억원		5억원		8억원	

표 2-3 연도별 농공지구조성 현황

구분	단위	1985	1986	1987	1988	1989.10.15	합계
지구수	개소	7	24	46	45	29	151
일반지정		7	16	19	18	13	73
특별지정		-	8	27	27	16	78
면적	천평	184	709	2,248	2,097	1,250	6,520
입주공장	개	79	232	516	581	403	1,804
고용계획	천명	10	28	81	74	45	241
시, 군수	개	7	21	27	28	18	103

자료: 경제기획원, 「농공지구 지정 및 개발현황」, 1989.10.15

다. 이중에서 73개소는 일반지정에 의해서 그리고 78개소는 특별지정에 의해서 지정되었다. 지정면적은 1985년의 184천평에서 출발하여 1989년 10월 현재 6,520천평에 이르고 있고 입주공장은 1,804개로서 241천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다(표 2-3 참조)。

1989년 10월 현재 지정된 전국의 151개 농공지구 가운데 83개(55.0%)지구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45개(29.8%)지구가 부지조성중에 있고 총 1,804개의 입주공장중에서 455개의 공장이 공장설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4 참조)。

지정된 농공지구 151개소 중에서 일반 농어촌지역은 60개소, 낙후농어촌지역은 91개소가 지정되어 낙후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정비율이 높다.

표 2-4 농공지구 조성실태

구 분	부지조성완료	부지조성중	부지조성준비	계
지구 수 (개소)	83	45	23	151
입주공장 (개)	902	614	288	1,804
— 공장가동	445	10	-	455
— 공장설비	309	38	-	347

자료: 경제기획원, 「상계서」.

표 2-5 지역별 농공지구 지정현황 (1989. 10. 15. 현재)

	단위: 천평, 개소, ()은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구 수	1	11	26	29	14	16	26	27	1	151	
*	(0.7)	(7.3)	(17.2)	(19.2)	(9.3)	(10.6)	(17.2)	(17.9)	(0.6)	(100.0)	
일반농어촌	1	6	19	20	-	1	5	5	-	60	
낙후농어촌	-	5	7	9	14	15	18	22	1	81	
연면적	33	543	896	1,209	640	888	1,089	1,202	20	6,520	
	(0.5)	(8.3)	(13.8)	(18.6)	(9.8)	(13.6)	(16.7)	(18.4)	(0.3)	(100.0)	
입주공장	7	160	213	355	156	239	346	319	9	1,804	
	(0.4)	(8.9)	(11.8)	(19.7)	(8.6)	(13.2)	(19.2)	(17.7)	(0.5)	(100.0)	
고용계획	1	20	25	50	24	32	42	45	1	241	
(천명)	(9.4)	(8.3)	(10.4)	(20.7)	(10.0)	(13.3)	(17.4)	(18.7)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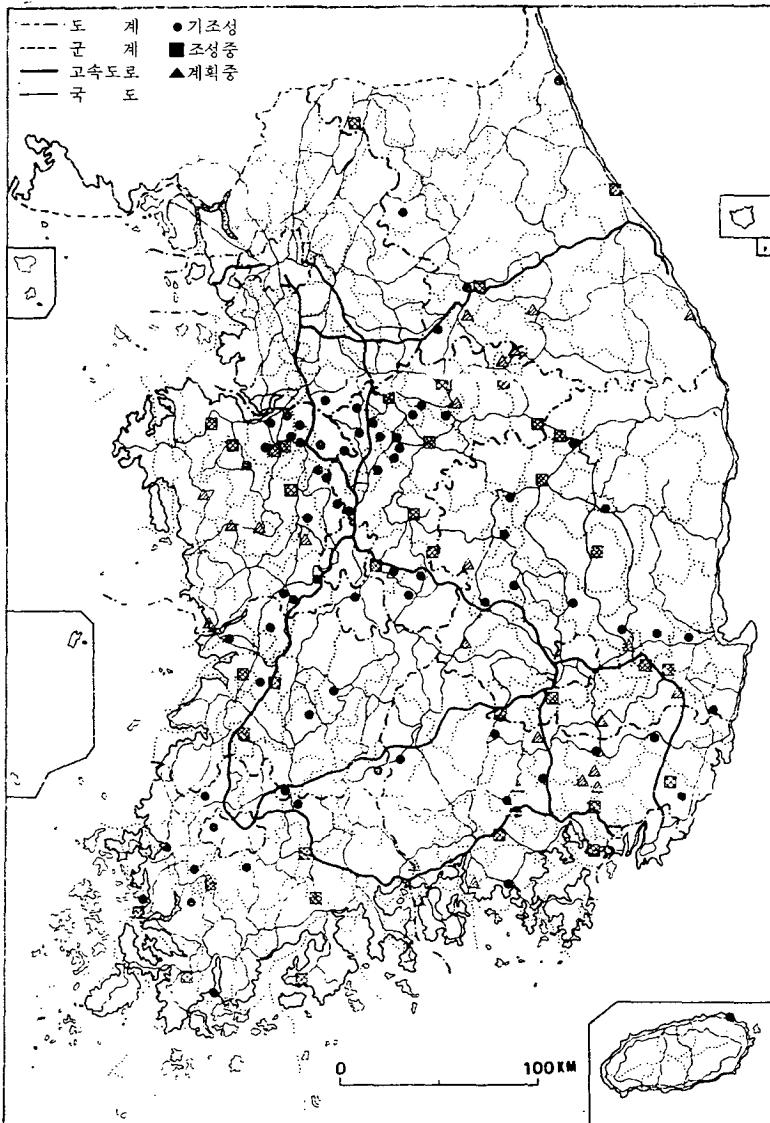
주: *는 전체 지정농공지구에 대한 비율임 (%)

자료: 경제기획원, 「상계서」

지정지구를 도별로 나누어 보면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는 충남북 지역에 55개소(전체의 36.4%),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공업지대에 인근하고 있는 경남북지역에 53개소(35.1%)가 집중되어 있다(표 2-5 참조). 이는 총지정면적 6,520천평에 대하여 위 두지역에 67.4% (충청: 32.3%, 영남: 35.1%) 입주공장 1,804개소에 대해서는 68.4% (충청: 31.5%, 영남: 36.9%)가 집중되어 있는 사실과 함께 농공지구 지정에 있어서 지역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 10월 현재 지정된 농공지구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조성 농공지구는 수도권 인근지역과 고속도로 인근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조성중이거나 조성준비단계에 있는 농공지구는 충남 북과 동남공업벨트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농공지구 조성현황(1989. 10. 15 현재)



이와 같은 사실은 충남·북과 경남·북지역이 기존의 수도권 및 동남권 대도시 편향 공업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입지가 타지역에 비하여 유리하게 형성되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장입지가 양호하여 공장입주 수요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의 기본취지 중의 하나인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효과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고 보다 낙후된 지역에 농공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남북지역의 경우는 타지역과는 달리 정부지원 및 보조수준을 줄이는 지역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성되고 있거나 조성중인 농공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1개 지구당 평균 43,200평이었는데 이 중에서 3만평~5만평 수준의 농공지구가 전체의 31.1%에 해당하는 47개 지구이고, 그 다음의 2만평~3만평 수준(23.2%)이며, 2만평 미만의 농공지구도 19.2%에 해당하는 29개 지구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10만평 이상의 농공지구는 8개소로서 전체의 5.3%에 해당된다. 2만평 이하의 영세규모의 농공지구가 특히

표 2-6 농공지구의 조성면적

단위: 개소, ()은 %

도별	지구수	총조성 면적 (천평)	지구당 면적 (평)	규모별 농공지구 수					
				-2만평	2~3만	3~5만	5~7.5만	7.5~10만	10만~
경기	1	33	32,560	-	-	1	-	-	-
강원	11	543	49,335	2	-	6	1	1	1
충북	26	896	34,454	8	6	9	1	2	-
충남	29	1,209	41,689	4	9	7	5	3	1
전북	14	640	45,714	3	3	3	2	2	1
전남	16	888	55,500	2	4	5	2	-	3
경북	26	1,089	41,884	4	4	12	4	1	1
경남	27	1,202	44,519	5	9	4	4	4	1
제주	1	20	20,000	1	-	-	-	-	-
계	151	6,520	43,179	29	35	47	19	13	8
		(100.0)		(19.2)	(23.2)	(31.1)	(12.6)	(8.6)	(5.3)

자료: 경제기획원, 「상계서」

많이 조성된 지역은 충북과 경남이고, 10 만평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경기, 충북, 제주를 제외한 전지역에 1개소씩 들어서고 있는데 특히 전남에는 이러한 규모의 지구수가 3개소이다. 이는 충북과 경남은 각각 수도권과 동남권 공업벨트의 인접지역으로서 기존의 공단에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보조적 성격을 띤 공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전남에는 기존의 공단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바 농공지구가 지역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 입주업체 현황

1989년 10월 현재 입주공장에 대한 농공지구의 분양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100%의 분양률을 보였고(경기, 제주도 100%이나 이들 지구는 지역여전상 각 1개 지구만이 농공지구로 지정·조성되고 있다) 강원이 95%, 전북이 9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전국 평균은 98.9%로써 매우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표 2-7 참조).

상공부의 28 개지구 80 개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결과²⁾에 의하면 입주 경쟁률은 입주업체수에 있어서 3 : 1(신청업체수 896 : 입주업체수 291) 이었고 분양면적에 있어서는 2.7 : 1(신청면적 1,866 천평 : 분양면적 691 천평)로써 업체간의 입주경쟁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증가일로에 있는 공장부지수요에 비하여 기존 공업지역에서의 부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바 부지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높은 지가지불의 문제가 있는 반면 농공지구 입주시 정부의 농공지구 세제·금융상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입주공장(예정공장 포함)의 업종을 1987년 광공업조사통계 보고서에서 나타난 전국자료와 비교해 보면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의 업종비율은 높고 섬유, 식품에서는 낮으며 화공은 비슷하다. 또한 농촌지역과 연

2) 상공부, 「농공지구 실태조사분석 결과」, 1989. 1. 상공부 p.5.

관이 깊은 식품산업의 입주비율이 전국보다 낮은 것은 입주업체의 경영 종목이 원료생산지와는 큰 연관이 없이 (후방연쇄효과 미약) 그 입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식품공업으로 완전 특화되어 있고 강원, 충청, 전라 지역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공, 봉제섬유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하고 있다. 경북은 이 지역의 전통적인 섬유산업의 영향을 받아 봉제섬유공장의 특화가 두드러지고 (32.1%), 경남은 창원, 울산 등 중공업단지의 영향을 받아 기계금속의 특화가 현저하다 (48.6%).

농공지구에 입주하는 공장들은 대략적으로 이전업체와 창업체가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업체 : 44.1%, 창업체 : 42.5%, 분공장 : 15.9%). 이전업체중에서는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이전이 40.7%로 가장 많다. 입주형태를 도별로 나누어 보면 이전업체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표 2-7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종목별 특성

단위 : 개소

도별	지구수	분양률 (%)	종 목 별 입 주 공 장 수						
			합 계	전기전자	기계금속	봉재섬유	화 공	식 품	기 타
경 기	1	100	7	-	-	-	-	7	-
강 원	11	95	160	37	25	18	28	21	31
충 북	26	100	213	46	55	31	27	12	42
충 남	29	100	355	95	82	66	41	21	50
전 북	14	96	156	27	41	19	18	8	43
전 남	16	98	239	32	53	12	56	26	60
경 북	26	100	346	43	65	111	18	13	96
경 남	27	100	319	25	155	30	4	11	94
제 주	1	100	9	1	-	-	1	2	5
계	151	98.9	1,804	306	476	287	193	121	421
비율 (%)			100.0	17.0	26.4	15.9	10.7	6.7	23.3
전국(87)			54,389	7,153	8,627	12,310	5,974	4,698	15,627
비율 (%)			100.0	13.2	15.9	22.6	11.0	8.6	28.7

자료 : 경제기획원, 「상계서」.

충남(58.4 %), 충북(51.4 %), 경남(49.7 %), 경북(46.7 %)의 순이고 창업공장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63.1 %), 전북(57.1 %) 제주(55.6 %), 강원도(50.6 %)이다. 한편 분공장은 경기(42.8 %), 전남(18.4 %), 경북(17.6 %)의 순이다(표 2-8 참조).

충남북과 경남북에 이전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이 각각 수도권지역과 동남권 공업벨트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바 경제적 입지여건이 타지역에 비하여 양호하기 때문에 이전시 발생하는 거래비용(교통, 정보,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 전북의 경우 창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 기존의 공업단지 및 유관기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업체입주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이전의 경우나 창업의 경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가동 및 고용상황은 < 표 2-9 >와 같다. 전체 1,804 개 입주(예정)업체 가운데 25.2 %인 455 개 기업이 공장가동중

표 2-8 도별 농공지구 공장의 입주형태

단위 : 개

도명	입주업체수	기업 규모		입주형태					창업	
		대기업	중소기업	이전업체수				분공장		
				수도권	대도시	기타	합계			
경기	7	1	6	2	-	-	2	3	2	
강원	160	4	156	51	1	6	58	23	79	
충북	213	7	206	67	18	-	106	29	78	
충남	355	11	344	143	40	21	201	55	99	
전북	156	2	154	18	2	23	43	25	88	
전남	239	6	233	8	26	14	48	44	147	
경북	346	8	338	25	80	53	158	61	127	
경남	319	3	316	2	101	51	157	39	123	
제주	9	-	9	-	-	3	3	1	5	
합계	1,804	42	1,762	316	271	189	776	280	748	

자료 : 경제기획원, 「상계서」.

에 있고 347 개 (19.2 %) 업체는 공장건축중에 있다.

가동중인 업체의 현 고용량은 25,727 명인데 이중 17,757 명이 현지 주민으로서 지역주민 고용비율은 평균 69.0 %에 달한다. 지역주민 고용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85.1 %), 전북 (75.0 %), 경기 (74.9 %), 전남 (73.5 %), 충북 (73.0 %), 경북 (71.0 %), 강원 (70.2 %), 충남 (69.8 %), 경남 (53.3 %)의 순이다.

일반적으로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지역주민 고용비율은 각 지역의 사회, 경제구조와 입주업체의 업종, 규모 등 지역경제사회 및 입주업체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 그런데 제주도와 경남의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 고용비율이 대략 70 % 수준으로 타지역과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지역주민고용비 차이가 지역경제·사회의 특성차이에 의한 설명 될 수 있다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지역주민 고용비 차이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업종, 규모 등 업체성격차이로 규명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9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공장가동 및 고용상태

도명	지구수	입주 예정업체수	공장가동업체		공장건축중인업체		고용상태(인)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계획(A)	현재(B)	지역주민(C)	B/A	C/B
경기	1	7	3	42.9	-		1,138	183 (61.0)	137	16.1	74.9
강원	11	160	41	25.6	24	15.0	19,975 (47.0)	1,927	1,352	9.6	70.2
충북	26	213	107	50.2	46	21.6	25,193 (62.6)	6,695	4,889	26.6	73.0
충남	29	355	94	26.5	92	25.9	49,602 (60.7)	5,709	3,986	11.5	69.8
전북	14	156	39	25.0	27	17.3	24,351 (45.4)	1,770	1,327	7.3	75.0
전남	16	239	41	17.2	76	31.8	32,466 (49.5)	2,031	1,493	6.3	73.5
경북	26	346	81	23.4	53	15.3	42,022 (41.5)	3,358	2,383	8.0	71.0
경남	27	319	45	14.1	27	8.5	45,357 (88.0)	3,960	2,110	8.7	53.3
제주	1	9	4	44.4	2	22.2	684 (23.5)	94	80	13.7	85.1
합계	151	1,804	455	25.2	347	19.2	240,788 (133.5)	25,727 (56.5)	17,757	10.7	69.0

자료 : 경제기획원, 「상계서」, () 은 업체당 평균고용량.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업종분포는 <표 2-7>에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네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식품공업의 경기도, 봉제섬유의 경북 기계금속의 경남, 혼합업종의 강원, 충청, 전라가 그것이다. 여기서 경남을 제외한 세개그룹이 업종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고용비율이 별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계금속업종을 제외하고는 지역간 농공지구 입주업체 업종의 차이가 지역주민 고용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고용비율의 지역간 차이는 입주업체의 규모에 의하여 설명되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주업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업체당 평균 고용량을 고려하면 전체평균은 56.5명이고 경남 88.0명, 충북 62.6명, 경기 61.0명 충남 60.7명, 전남 49.5명, 강원 47.0명, 전북 45.4명, 경북 41.5명 제주 23.5명의 순이다. 여기서 경남과 제주의 업체당 평균 고용량이 타지방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용규모에 있어서 경남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제주는 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이다.³⁾

경남의 경우 평균적으로 고용규모가 큰 업체들이 입주·가동함으로써 업체당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 즉 농공지구 가동으로 인한 업체당 노동수요는 타지방보다 크고 이것은 결국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남의 농공지구 입주업체 노동수요가 지역내 노동공급으로 충당되기에는 타지

3) 가동업체가 있는 지구의 경우 입주업체당 평균 부지면적은 전국 평균 3.7 천평이고 지역별 입주업체당 평균부지면적은 경기 4.7 천평, 강원 4.2 천평, 충북 4.2 천평, 경남 3.9 천평, 경북 3.8 천평, 전남 3.7 천평, 전북 3.5 천평, 충남 2.9 천평, 제주 2.2 천평의 순이다.

업체당 부지면적을 기준할 경우 경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고 제주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진다.

방보다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⁴⁾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남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업종은 기계·금속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48.6%) 이는 종업원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종인 바 기술 및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지주민의 농공지구 취업에는 그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남의 경우 현지주민 고용비율이 53.3%로 타지역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이유를 입주업체의 업종이 기술 및 숙련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업체당 고용량이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데에서 찾을 수가 있다.

제주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비율이 85.1%로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업체당 고용규모가 23.5명에 불과함으로써 지역내에서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노동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가동업체의 평균고용규모와 현지 지역주민 고용률과는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 상황에서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지역내에서 이를 공급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가동됨으로써 기존의 지역노동시장의 수요에 교란을 가져오는데 지역경제·사회구조의 조정 특히 산업부문간 노동력수급의 조정없이는 업체당 노동력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지역

4) 경남지방에는 이미 동남권 공업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등 기존 제조업 부문의 노동력 수요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농공지구로 인한 추가 노동력수요가 지역내에서 공급되기에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북의 경우 수도권과 연계된 지방공단이 존재하여 비농업부문의 노동력 수요가 이미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외지인 고용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이전업체의 비율(충남: 58.4%, 충북: 51.4%)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지인 고용비율이 충남북 각각 73.0%, 69.8%로서, 타지역과 현격하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공업노동력 수요의 존재 및 경제적 입지의 차이 등 지역경제적 구조에 따라 농공지구업체의 현지인 고용비율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 농공지구의 노동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농공지구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총고용계획치 240,788명과 업체당 평균 133.5명을 고용할 경우 지역노동시장의 부문간 조정없이는 현지주민의 고용비율은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어촌지역에 농공지구를 개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의 농외 노동력 수요증가는 1차적으로 지역(농업) 노동력의 공급선택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바 지역노동력을 농공지구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공지구 취업노임이 기존의 (농업) 노임 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농업노임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농공지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농가에게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농업노임 상승이라는 어려움에 직면케하여 농업생산비가 증가되고 지역농업의 비교열위는 더욱 심각하게 되는 소위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마이너스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농업노동력이 절대 부족하고 농한기에는 유휴노동력 (idle labor force)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담작 농촌사회에서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지역내에서 노동력확보를 안정적으로 꾀할 수 있다는데에 그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농공지구업체가 생산의 계절적 조업이 가능한 업종이 아닌 경우 지역내에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때에는 외지인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계절적 조업이 가능한 기업 중심의 농촌공업개발이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외지인의 고용을 증대시킬 경우 이에 수반되는 교통비, 주거비용 등의 보상으로 기업의 실질적 인건비상승을 초래하여 자금압박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 또한 저조하고,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시할 경우 농공지구개발사업 소기의 목적중의 하나인 농어촌지역에 농외소득원 확충 달성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업노임 상승으로 초래되는 농가경영비의 증가를 흡수할 수 있고 농업노동력 수요의 계절적 지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농업구조의 개선(예, 농업기반시설개선, 농업기계화 및 농가당 경영규모증대 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가유형별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공지구 개발정책과 함께 농공지구 입주공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노동력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시키는 한편 이들의 농경지를 전업적(專業的)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장기임대하는 방식에 의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전업농(專業農)의 영농기계화를 촉진시키고 경지면적의 확장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과 같은 시책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농촌공업 입주업체들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봉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가는 농가대로 농업노동력의 부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령영농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탈농을 유도하고, 영세탈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 기술훈련 및 농공지구 취업알선 그리고 기술훈련기간의 실업보험 등의 실시가 필요한 반면,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구입자금 공급의 확대 등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의 규모 경제의 실현과 농업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투용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망된다.

따라서 현지 주민의 취업비를 높여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내 산업부문간 노동력의 수급조정 및 지역주민의 직업훈련 등의 장기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부지조성단지 83개 지구의 입주업체 공장가동 및 고용실태는 <표 2-10>과 같다. 총부지면적은 3,257천평으로 농공지구 총 지정면적 6,520천평의 50.0%에 달한다. 입주업체수는 902개이고 이중 가동업체수는 445개(49.3%), 공장 건축중인 업체가 309개(34.3%)로서 148개(16.4%)는 아직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있다.

부지조성 완료지구의 도별분포는 충북(26.5%), 충남(18.1%), 경북(15.7%), 전남(12.0%), 경남(9.6%), 강원(6.0%), 경기, 제주(1.2%)의 순이다. 입주업체의 도별분포는 충남(21.7%), 충북(19.2%), 전남(17.0%), 경북(16.0%), 경남(9.9%), 전

표 2-10 부지조성완료 지구의 입주업체 공장가동 및 고용실태

도명	지구수 (부지 규모) (천평)	입주업체 수 (입주 업체당 평균부 지규모 (천평))	공장가동 업체		공장건축중 인업체		고용상태 (인)		비율 (%)		
			업체수 (개)	비율 (%)	업체 수 (개)	비율 (%)	계획(A)	현재(B)	지역 주민(C)	B/A	C/B
경기	1 (33)	7 (4.7)	3	42.9	-		1,138	183	137	16.1	74.9
강원	5 (270)	65 (4.2)	41	63.1	24	36.9	8,793	1,927	1,352	21.9	70.2
충북	22 (719)	173 (4.2)	107	61.8	41	23.7	19,190	6,695	4,889	34.9	73.0
충남	15 (585)	196 (3.0)	89	45.4	86	43.9	25,067	5,576	3,942	22.2	70.7
전북	8 (232)	66 (3.5)	39	59.1	22	33.3	13,422	1,770	1,327	13.2	75.0
전남	10 (572)	153 (3.7)	41	26.8	68	44.4	22,149	2,031	1,493	9.2	73.5
경북	13 (528)	144 (3.7)	79	54.9	46	31.9	20,257	3,268	2,353	16.1	72.0
경남	8 (298)	89 (3.3)	42	47.2	20	22.5	16,205	3,790	2,006	23.4	52.9
제주	1 (20)	9 (2.2)	4	44.4	2	22.2	684	94	80	13.7	85.1
합계	83 (3,257)	902 (3.6)	445	49.3	309	34.3	126,905	25,334	17,579	20.0	69.4

자료 : 경제기획원, 「상계서」

북 (7.3 %), 강원 (7.2 %), 제주 (1.0 %), 경기 (2.8 %)의 순이 고 실제 공장가동업체의 도별분포는 충북 (24.0 %), 충남 (20.0 %), 경북 (17.8 %), 경남 (9.4 %), 강원 (9.2 %), 전남 (9.2 %), 전북 (8.8 %), 제주 (0.9 %), 경기 (0.7 %)의 순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장가동업체중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북 지역에 44.0%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부지조성완료 지구 입주업체 902개 대비 공장가동업체는 445 개로서 평균 49.3 %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입주업체 902 개의 고용계획은 126,905명이고 현재의 고용량은 25,334명으로 약 20.0 %에 불과하다.⁵⁾이는 업체가 농공지구에 입주할 때 가동기간이 짧

5) 고용계획치는 생산가동후 3년치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것임.

은 초창기에는 생산에 있어 규모의 체증적 수익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입주업체 가동률 49.3%에 현재 고용률 20.0%에 불과하고 부지조성완료 지구가 농공지구로서의 지정기간이 대부분 2.5년을 넘고 있다는 것은 입주업체가 농공지구에 입주신청할 때 선정의 유리함을 위해 고용목표치를 과다하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주업체 선정시 엄격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주업체의 기업규모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입주업체 1,804개 중에서 대기업은 42개로서 2.3%에 불과하다. 이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안정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그 만큼 한계기업 (*marginal firm*)의 입주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의 수를 도별로 보면 충남도가 11개, 경북 8개, 충북 7개의 순이다.

입주업체의 성별 고용인구를 살펴보면 총고용인구 중에서 남자의 고용비가 55.4%에 해당되는 14,928명으로 다소 높다.⁶⁾ 그러나 지역내에서는 여자의 고용비가 남자보다 다소 높고 (52.9%), 지역외에서는 남자의 고용비가 훨씬 높다 (73.0%). 즉, 총고용남자인구 중에서 지역내 고용비가 58.0%인데 반해 총 여자고용 인구중에서는 지역내 고용비가 80.7%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소득원이 발생할 때 노동공급행위는 2차노동력 (*secondary labor-force*)이 1차노동력 (*primary labor-force*)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까지 농공지구로의 취업이 지역주민에게 있어서는 전업적인 취업이 되지 못하고 부업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아직까지는 초창기에 있어 그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내 1차 노동력인 남자 또는 농가경영주가 농공지구로의 취업을 꺼리고, 둘째 노동력 수요측면에서 농공지구 입주업체들은 남자노동력을 기

6) 1989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농공지구를 조사한 자료임 (성진근 (1989. 11) 참조).

표 2-11 입주업체의 성별고용인구

도명	지역내 고용인구 (인)			지역외 고용인구 (인)			총 고용인구 (인)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경기	50	98	148	38	11	49	88	109	197
강원	713	704	1,417	430	113	543	1,143	817	1,960
충북	2,263	2,450	4,713	1,383	516	1,899	3,646	2,966	6,612
충남	1,929	2,267	4,196	1,256	584	1,840	3,185	2,851	6,036
전북	497	774	1,271	305	120	425	802	894	1,696
전남	693	1,046	1,739	640	191	831	1,333	1,237	2,570
경북	1,074	1,351	2,425	975	496	1,471	2,049	1,847	3,896
경남	1,361	991	2,352	1,246	287	1,533	2,607	1,278	3,885
제주	73	22	95	2	-	2	75	22	97
계	8,653	9,703	18,356	6,275	2,318	8,593	14,928	12,021	26,949
비율	47.1	52.9	100.0	73.0	27.0	100.0	55.4	44.6	100.0
(%)	58.0			42.0			100.0		100.0
		80.7			19.3				

자료 : 성진근, 「농공지구 조성정책의 개선방안」, 1989.11.

술 및 숙련도가 높은 직종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지역내에서 이들 노동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농공지구로의 지역내 주민의 전업적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지속적 안정성의 제고와 지역주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장

횡성군 지역경제의 성격

1. 공간적 위상

횡성군은 강원도 서남부인 홍천과 원주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으로는 평창군 및 영월군, 서로는 경기도 양평군, 남으로는 원성군, 북으로는 홍천군과 접하고 있다(그림 3-1). 횡성군은 8개읍·면으로 면적은 1,010 km²인데, 대도시 생활권으로는 수도권에, 지방중심도시 생활권은 원주권에 속해 있다.

국토개발축상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횡성군은 강원도 중앙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강릉간의 국도 5호선 및 영동고속도가 통과하고 있고 향후 대구—춘천간을 연결하는 중앙고속도가 횡성읍 부근을 통과할 예정이다. 횡성군은 횡성읍을 중심으로 주요지역과의 교통거리는 서울 125.9 km, 춘천 79.8 km, 강릉 111.9 km, 원주 17.5 km로서 교통요충지에 위치하며 시간 거리는 모두 2시간 30분 이내로써 근접성이 양호하다. 이는 횡성군이 수도권 및 경상·충청지방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지역간 교통결절지로써 전국적 개발파급효과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그림 3-2).

그림 3-1 횡성군 관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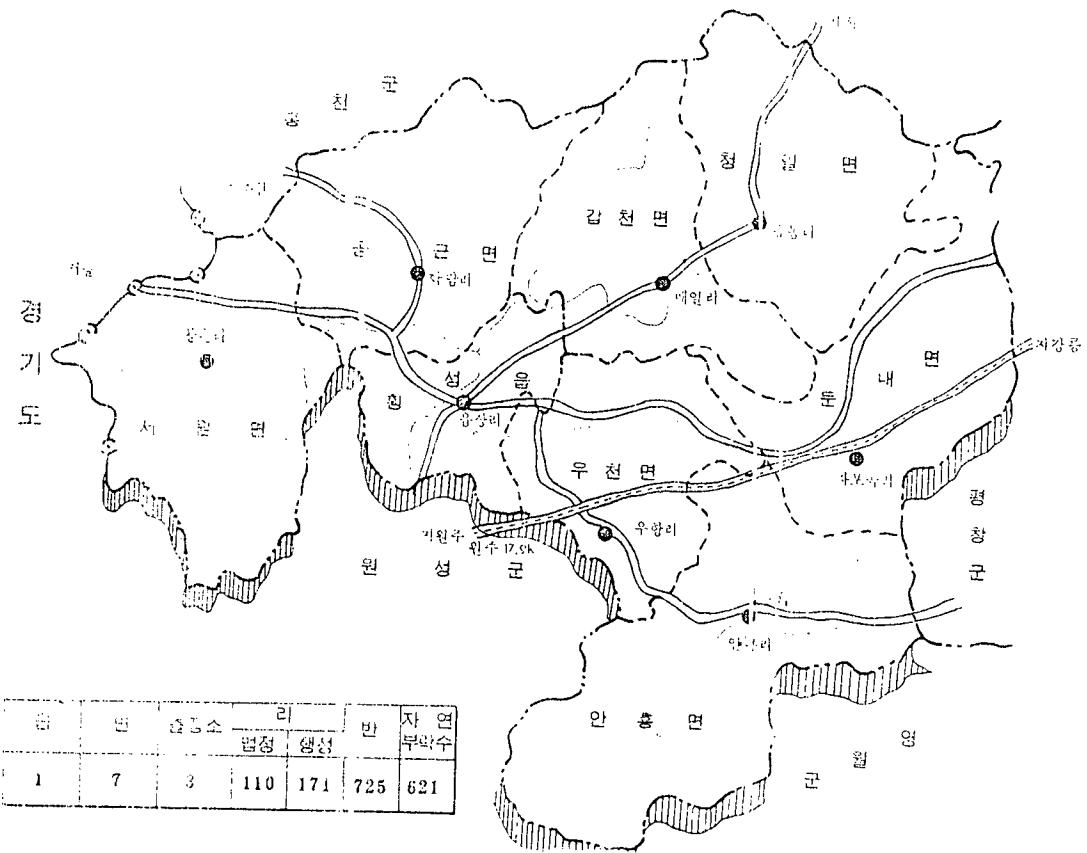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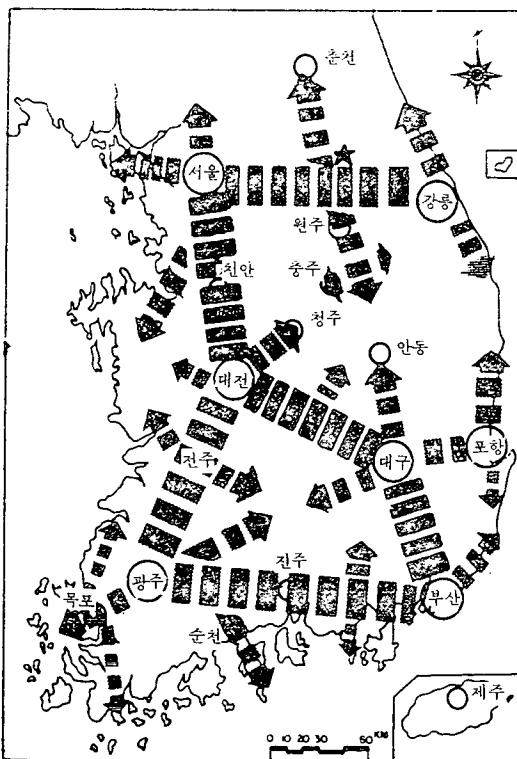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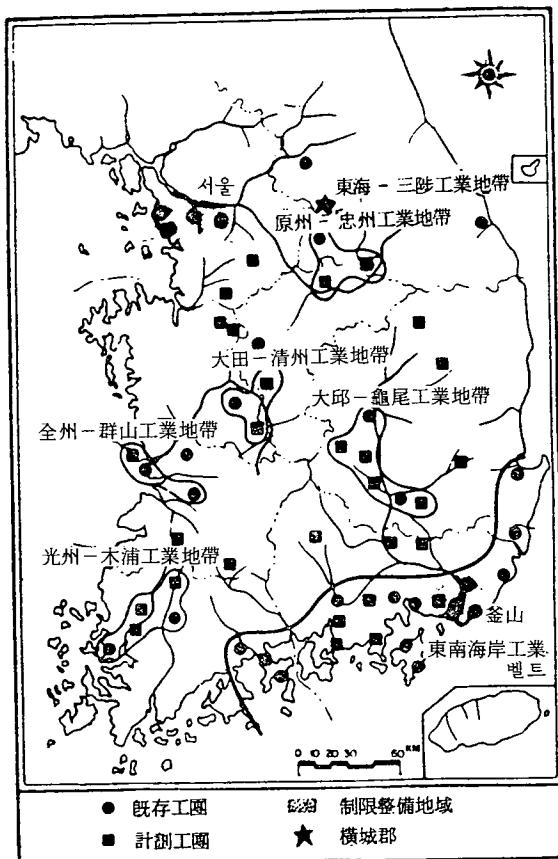
그림 3-2 국토개발축상의 위치



즉, 횡성군은 원주, 충주, 제천을 포함하는 원주-충주공업지대에 인접해 있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동해, 삼척공업권의 간접적 영향하에 있다. 또한 교통결절지로서의 유리성으로 인하여 이들 공단에 연계된 연관산업개발 및 숙련된 기술의 이전 등 공업입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그림 3-3).

한편, 농업개발 권역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횡성지역은 강원도 서남부 산간다각화 농업권에 속하는 농업지대로서 지리적으로 고냉지를 이용한 특수작물의 재배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그림 3-4 참조). 이는 양호한 교통여건과 함께 주변의 시장성이 높은 소비지역이 존재하는 바 고부가가치의 상업영농이 가능화를 시사하고 있다.

그림 3-3 공업개발 권역상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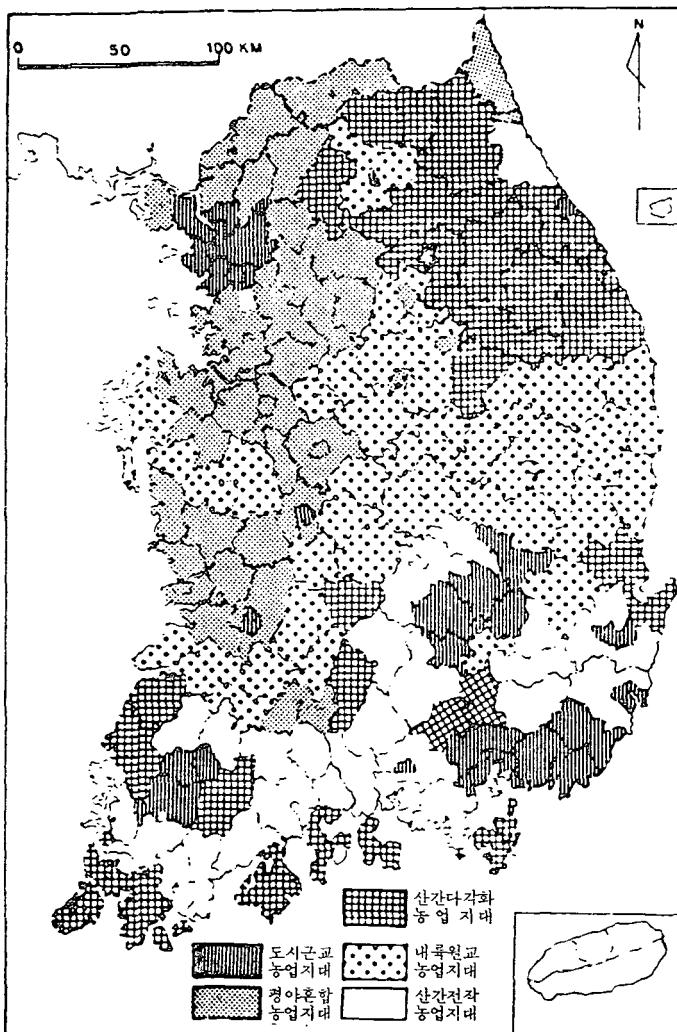


따라서 횡성군은 1.2 차 가공원료를 이용하여 높은 부가가치 생 산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경제적 입지여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구현황

횡성군의 1988년 12월 말 현재 총인구는 55,557 명으로서 농가구원이 38,320 명 (69.0 %), 비농가구원이 17,337 명 (31.0 %)으로 구성되어

그림 3-4 농업권역상의 위치



있다(표 3-1 참조).

횡성군의 인구는 1970년 95,166명에서 1988년 말 55,557명으로 연 평균 약 2.9%로 감소하여 왔다. 동기간 동안 농가인구는 79,517명에서 38,320명으로 연평균 2.9%로 감소하여온 반면 비농가인구를 15,649명에서 17,237명으로 연평균 0.6%로 증가하여 왔다.

표 3-1 횡성군 가구별 인구구성과 변화추이
(전국 및 강원도 대비)

지역	연도	가구	농 어 가	비 농 가	계	가구당인구
횡성군 (단위:명)	1970		79,517 (83.6)	15,649 (16.4)	95,166 (100.0)	5.7
	1975		72,116 (80.5)	17,454 (19.5)	89,550 (100.0)	5.1
	1980		50,171 (71.1)	20,359 (28.9)	70,530 (100.0)	4.8
	1985		44,733 (73.9)	15,796 (26.1)	60,529 (100.0)	4.4
	1988		38,320 (69.0)	17,237 (31.0)	55,557 (100.0)	4.1
강원도	1970				1,866,494	5.3
	1975				1,861,560	5.2
	1980	709,134		1,081,820	1,790,954	4.7
	1985	587,848		1,136,961	1,724,809	4.2
	1988	494,604		1,236,301	1,730,905	4.2
전국 (단위:천명)	1970	15,587 (48.3)	16,654 (51.7)		32,241 (100.0)	5.4
	1975	14,138 (40.1)	21,143 (59.9)		35,281 (100.0)	5.1
	1980	11,671 (30.6)	26,453 (69.4)		38,124 (100.0)	4.6
	1985	9,210 (22.6)	31,596 (77.4)		40,806 (100.0)	4.2
	1988	7,874 (18.8)	34,101 (81.2)		41,975 (100.0)	3.7
	'70~'75	-1.9		2.3	-1.2	-2.1
연평균	'75~'80	-6.1		3.4	-4.2	-1.2
	'80~'85	-2.2		-4.5	-2.8	-1.7
	'85~'88	-4.8		3.0	-2.7	-2.3
	'70~'88	-2.9		0.6	-2.3	-1.6
	강원도	'70~'75			-0.05	-0.4
성장률	'75~'80				-0.76	-1.9
	'80~'85	-3.4		1.0	-0.74	-2.1
	'85~'88	-5.3		2.9	0.12	0.4
	'70~'88				-0.40	-1.6
	전국	'70~'75	-1.9	5.4	1.9	-1.1
(%)	'75~'80	-3.5	5.0		1.6	-2.0
	'80~'85	-4.2	3.9		1.4	-1.7
	'85~'88	-2.9	1.6		0.6	-2.4
	'70~'88	-2.7	5.8		1.7	-1.7

한편 1970 ~ '88년을 1970 ~ '75, 1975 ~ '80, 1980 ~ '85, 1985 ~ '88년의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횡성군의 인구증가율을 살펴 보면 1970 ~ '75년의 5개년 동안 횡성군 총인구는 연평균 1.2%로 감소하였고 1975 ~ '80년은 연평균 4.2%로 감소, 1980 ~ '85년은 연평균 2.8%로 감소 1985 ~ '88년은 연평균 2.7%로 감소하였다.

농가구원의 구성비는 전국 평균 18.8%의 약 3.7배에 달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횡성군의 농가인구 감소율은 1970 ~ '88년의 18년간 연평균 2.9%로 전국평균 2.7%보다 높고 1975 ~ '80년의 5년간의 연평균 감소율과 1985 ~ '88년의 3년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전국 평균 3.5%, 2.8%보다 약 1.7배가 높은 6.1%와 4.8%이다. 한편, 비농가구원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속도는 전국평균치 (5.8%) 보다 매우 낮은 0.6%에 불과하다. 횡성지역 전체인구는 비록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80년대에 들어 감소율은 안정성을 띠면서 약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1980 ~ '85년의 5년동안의 횡성 농가구원의 감소율이 전국 평균 (4.2%)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농가구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4.5%)을 기록하였고 그 감소폭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1970 ~ '80년의 10년동안 횡성농가구원의 감소율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였고, 또한 그기간 동안 횡성 농가구원은 횡성지역인구의 70%를 상회하였는 바, 비록 비농가인구의 증가가 있다하더라도 지역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즉, 농가인구의 (순)감소분중 어느 정도는 지역이 비농가인구의 (순)증가를 초래하는 소위 재촌탈농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타지역으로 전출하였기 때문에 지역내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재촌탈농<이촌향도>). 이중 특이한 것은 1980 ~ '85년의 5년간은 농가인구도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농가인구도 감소한 경우이다. 비록 농가인구의 감소율은 감소하였으나 동기간 동안 연평균 2.3

%로 농가인구가 감소되었고 비농가인구는 증가추세에서 오히려 연평균 4.5%로 감소하여 지역내 순인구의 완전한 유출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1980~'85년 사이에 농촌의 경제·사회적 비교열위로 인하여 농촌주민들의 두드러진 이촌향도현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농가구원의 이촌정도보다는 비농가구원의 이촌정도가 훨씬 심한 것은 농민들의 보수적 성향 즉, 소득에 대한 직업전환 및 주거지이동이 비농가구원들보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85년부터 횡성군 지역주민의 감소률은 연평균 2.7%인데 비하여 동기간 동안 전국의 농가구원의 감소율 2.9%이고 횡성지역의 농가인구비가 70%를 상회하는 농업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횡성지역주민수의 감소율은 다소 둔화되어 안정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당 인구를 횡성군, 강원도, 전국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횡성군의 1988년 12월말 인구구성의 읍·면별, 연령별, 성별 분포는 〈표 3-2〉와 같다.

먼저 읍·면별로는 횡성읍이 18,059명(32.5%), 우천면 5,830명(10.5%), 안흥면 6,458명(11.6%), 둔내면 7,457명(13.4%), 갑천면 4,360명(7.8%), 청일면 4,094명(7.4%), 공근면 5,956명(10.7%), 서원면 3,343명(6.0%)이다. 횡성읍에 전체군 인구의 약 1/3이 밀집되어 있는데 각각의 *km*당 인구밀도는¹⁾ 247.7(명/*km*) 61.4, 33.1, 53.0, 35.5, 30.5, 48.0, 27.3으로서 관내에서 횡성읍이 생활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우천면은 횡성읍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이는 지리상 횡성읍 및 원성군과 인접하여 있고 영동고속도의 통과 등으로 교통여건이 타지역보다 좋기 때문인 것으로 판

1) 횡성군의 읍·면별 면적은 횡성 72.9 *km*, 우천 94.9 *km*, 안흥 195.1 *km*, 둔내 140.8 *km*, 갑천 122.9 *km*, 청일 134.2 *km*, 공근 124.2 *km*, 서원 122.5 *km*이다.

표 3-2 황성지역내 성별, 연령별 인구현황, 1988

구 분	총												기											
	~14세 이하			15~19			20~39			40~59			60세 이상			소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청년층 인구 구분 내 외	1,004	954	1,958	443	413	856	1,174	1,077	2,251	723	746	1,469	382	446	828	3,726	3,636	7,362						
	700	692	1,392	288	266	554	789	539	1,328	634	744	1,378	384	463	847	2,795	2,704	5,499						
	631	614	1,245	266	250	516	716	515	1,231	522	579	1,101	296	295	591	2,431	2,253	4,684						
	824	730	1,554	408	276	684	871	653	1,524	620	663	1,283	277	344	621	3,000	2,666	5,666						
	405	446	851	212	177	389	481	347	828	370	431	801	234	263	497	1,702	1,664	3,366						
	501	443	944	218	188	406	529	382	911	433	476	909	224	265	489	1,905	1,754	3,659						
	680	699	1,379	309	289	598	796	589	1,385	628	697	1,325	370	443	813	2,783	2,717	5,500						
	371	316	687	103	112	215	394	281	675	286	323	609	190	208	398	1,344	1,240	2,584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청년층 인구 구분 내 외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청년층 인구 구분 내 외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청년층 인구 구분 내 외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청년층 인구 구분 내 외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1.1	48.9	100.0	53.3	46.7	100.0	56.7	43.3	100.0	47.5	52.5	100.0	46.4	53.6	100.0	13.3	51.4	48.6	100.0					
	5,116	4,894	10,010	2,247	1,971	4,218	5,750	4,383	10,133	4,216	4,659	8,875	2,357	2,727	5,084	19,686	18,634	38,320						
	5																							

단되고, 둔내면의 경우는 평창, 홍천군과 인접하여 있는 어느정도 독자적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총인구 55,557 명 가운데 남자는 28,354 명 (51.0 %), 여자는 27,203 명 (49.0 %)로서 전국의 성별분포 50.4 %, 49.6 %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읍·면별 성별분포를 보면 횡성읍은 남자 50.3 %, 여자 48.7 %이고 우천면, 안홍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은 남·여 각각 (50.8 %, 49.2 %), (51.5 %, 48.5 %), (52.5 %, 47.5 %), (50.6 %, 49.4 %), (51.9 %, 48.1 %), (50.6 %, 49.4 %), (51.6 %, 48.4 %)로서 횡성읍의 경우만 횡성군 전체 남자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셋째, 연령별 인구 구성분포는 14 세 이하가 14,546 명 (26.2 %), 15 세에서 19 세가 6,055 명 (10.9 %), 20 세에서 39 세가 15,271 명 (27.5 %), 40 세에서 59 세가 12,525 명 (22.5 %), 60 세이상이 7,160 명 (12.9 %)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15 세이상 인구 41,011 명 중에서 60 세이상 7,160 명과 중고등학생 6,492 명을 제외한 27,359 명을 횡성군 지역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유효노동력 수준이라 간주할 수 있다.⁴⁾

한편, 횡성군의 인구를 농가대 비농가로 구분하면 농가의 인구수를 38,320 명 (69.0 %), 비농가 인구수는 17,237 명 (31.0 %)이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가인구 경우 14 세이하는 10,010 명으로서 전체 농가인구의 26.1 %, 15 세이상 20 세미만은 4,218 명 (11.0 %), 20

2) 1988년 6월말 전국의 추계인구는 총 41,976 천명 가운데 남자는 21,158 천명 (50.4 %) 여자는 20,817 천명 (49.6 %)이다.

3) 횡성읍의 경우 횡성군내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상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인 바 여성들의 거주가 타 지역보다 용이함으로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 가사 노동력도 광의의 의미에서 암묵적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이상 40세미만은 10,133명(26.4%), 40세이상 60세미만은 8,875명(23.2%), 60세이상은 5,084명(13.3%)이고 비농가인구는 각기 4,536명(26.3%), 1,837명(10.7%), 5,138명(29.8%) 3,650명(21.2%), 2,076(12.0%)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20세이상 4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비농가가 차지하는 비가 약 30%로서 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2, 표 3-3 참조). 횡성군 전체적으로 비농가인구는 31.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30대 중에서도 비농가 인구가 29.8%에 불과함으로 횡성군의 젊은 노동력이 농가보다 비농가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30대 연령층에서 비농가가 차지하는 비가 33.6%로서 전체 평균 31.0%를 초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는 비농가 인구가 20~30대 연령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가대 비농가 인구를 연령구간별로 대비하여 각 연령구간에서의 비농가 인구비를⁵⁾ 구한 뒤 횡성군 전체 비농가 인구비(31.0%)로 나눈 연령별 비농가상(non-farm age quotient)을 구함으로써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연령구간별 비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를 횡성군 전체에서 비농가 인구가 점하는 비로 나눔으로써 각 연령별 비농가 인구비를 전체 비농가 인구비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연령별 비농가 인구가 횡성전체 비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의 정도를 나타낸다.

지역 연령별 비농가상(AQ_i^j)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Q_i^j = (NFP_i^j / TP_i^j) / (NFP_i / TP_i)$$

여기서 AQ_i^j : i 지역 j 연령층의 비농가 인구수

5) 14세 이하의 농가인구는 전체 14세 이하 인구의 68.4%, 마찬가지 방법으로 15세 이상 20세 미만의 농가인구는 69.7%,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가인구는 66.4%,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가인구는 70.9%, 60세 이상은 71.0%를 점하고 있다.

TP_i^j : i 지역 j 연령층의 총인구수

NFP_i : i 지역 비농가 인구수

TP_i : i 지역 총인구수

만약 $AQ_i^j > 1$ 이면 i 지역 j 연령층은 비농가 인구로 특화되어 있고 $AQ_i^j < 1$ 이면 농가인구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횡성군의 연령별 비농가상은 14세 이하가 1.01, 15세~19세가 0.98, 20세~39세가 1.08, 40~50세가 0.95, 60세 이상이 0.94으로서 20대, 30대와 14세 이하 인구중에서 비농가 인구가 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횡성군의 젊은 노동력이 농가보다는 비농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나아가 양질의 지역 유효노동력이 비농가에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향후 횡성지역 산업별(농업대 비농업) 노동시장에의 (잠재적) 유효노동력 공급은 점차적으로 비농업 부문으로의 이행을 예시할 수 있다.⁶⁾ 왜냐하면, 14세이하와 15세이상 20세 미만의 비농가 인구상이 각각 1.01, 0.98로서 40~50대의 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횡성군내에서 상대적으로 상·공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횡성읍의 경우를 살펴보면 극명하게 일 수 있다.

횡성읍의 경우 비농가 인구(10,697명)는 횡성군 전체 비농가 인구 17,237명 중에서 62.1%, 또한 횡성읍 전체 인구 18,059명 가운데에

6) 이것은 횡성군내의 노동력의 순 전출입이 없다는 엄격한 가정 하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14세 이하 및 20~39세의 비농가 연령상이 각각 1.01, 1.08인데 비하여 15~19세의 비농가 연령상이 0.98로써 거의 1에 가깝기는 하지만 14세 이하 및 20~39세의 비농가 연령상 값보다 적다는 것은 이 연령구간에서 비농가 가구원의 타지방으로의 이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횡성군의 지역내 양질의 노동력 확보여부는 15~19세 연령층의 타지역으로 전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5~19세의 비농가 가구원의 전출은 이 연령구간이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데 이는 횡성군내에 양질의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3 연령별 비농가 인구비

(단위: %)

읍 면	연령	14 세	15	20	40	60 세	계	비농가입지상 (Nonfarm Local Quo- tient)*
		~ 이하	~ 19	~ 39	~ 59	이상 (평균)		
횡성읍	연령별	26.5	10.5	32.5	20.0	10.5	100.0	1.91 (0.80)**
	연령구간별	59.2	54.7	60.7	59.3	56.6	59.2	
우천면	연령별	24.5	9.7	24.2	24.5	17.2	100.0	0.18
	연령구간별	5.5	5.5	5.7	5.6	6.3	5.7	
안흥면	연령별	26.7	10.9	25.5	22.9	13.9	100.0	0.89
	연령구간별	27.6	27.3	26.9	27.0	29.4	27.4	
둔내면	연령별	26.9	11.4	26.5	22.4	12.7	100.0	0.77
	연령구간별	23.7	23.1	23.8	23.9	15.8	24.0	
갑천면	연령별	24.4	11.0	24.5	22.9	17.1	100.0	0.73
	연령구간별	22.2	21.9	22.8	22.2	25.3	22.8	
청일면	연령별	25.5	10.6	24.4	24.8	14.7	100.0	0.34
	연령구간별	10.5	10.2	10.4	10.6	11.6	10.6	
공근면	연령별	24.6	15.8	24.3	23.5	11.8	100.0	0.25
	연령구간별	7.5	10.7	7.4	7.5	6.2	7.7	
서원면	연령별	26.0	7.4	25.4	23.5	17.8	100.0	0.73
	연령구간별	22.3	20.7	22.2	22.6	25.3	22.7	
계	연령별	26.3	10.7	29.8	21.2	12.0	100.0	0.38*** (0.42)**
	연령구간별	31.2	30.3	33.6	29.6	29.0	31.0	
○ 비농가 연령상 (Nonfarm Age Quotient)		1.01	0.98	1.08	0.95	0.94		

*) i 지역 비농가 입지상 (LQ^i)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Q^i \equiv (NFP^i/TP^i)/(NFP/TP)$$

여기서 NFP^i : i 지역 비농가 인구수 TP^i : i 지역 총인구수

NFP : 전체 비농가 인구수

TP : 전체 인구수

만약 $LQ^i > 1$ 이면 i 지역은 비농가 인구로 특화되어 있고 $LQ^i < 1$ 이면 농가인구로 특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윗 표에서 읍·면별 비농가 비 (NFP^i/TP^i)를 횡성군 전체의 농가비 (NFP/TP) 31.0%로 나누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물론 비농가 입지상은 무 단위이다.

**) 각각 강원도 1988년 12월 말 현재 전체 인구 (1,751,252명)와 비농가 인구 (1,301,197명)을 이용하여 강원도에 대하여 횡성읍(군)의 비농가 입지상을 구한 것임.

***) 전국의 1988년 12월 말 현재 전체 인구 (41,975천명)와 비농가 인구 (34,703천명)를 이용하여 전국에 대하여 횡성군의 비농가 입지상을 구한 것이다.

서 59.2%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읍 비농가 인구구성비는 횡성군 전체 평균(31.0%)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지역내 비농업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횡성읍의 비농가입지상은 1.91으로서 타 읍·면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그리고 횡성읍의 연령별 비농가입지상은 14세이하가 1.01, 15~19세가 0.96, 20~39세가 1.02, 40~59세가 1.00, 60세 이상이 0.97로서 청년층인 20~30대가 비농가 인구로 특화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 40~50대도 비농가 인구로 특화되어 있다.

횡성군의 1970~'88년의 읍·면별 인구변화 추이는 <표 3-4>와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횡성군의 총인구는 1970년 95,166명에서 1988년 55,557명으로 연평균 약 2.3%로 감소하였다. 읍·면별 인구 변화률은 횡성읍의 0.5%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평균 약 2.5%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횡성읍 인구가 군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1.0%에서 1988년 32.5%로 연평균 3.0%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횡성읍의 인구변화를 4개 연도 구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70~'75년의 5개년 동안은 연평균 0.8%로, 1975~'80년은 연평균 0.1%로, 1980~'85년은 연평균 1.2%로 감소한 반면 1985~'88년은 연평균 0.3%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85~'88년 3년동안 횡성군의 타지역 인구는 전체적으로 2.7%의 감소률을 보인 반면 횡성읍의 경우는 근소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성읍 내에서도 1980~'85의 5년동안 연평균 1.2%로 감소하다가 1985~'88년 3년동안 연평균 0.3%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횡성읍 인구가 1985~'88년 사이 증가한 반면 횡성군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횡성군 전체 인구는 타지역으로 순전출하였으나 횡성읍의 경우는 횡성군내 타 지역(면) 또는 횡성군외 지역으로부터 인구의 순전입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횡성읍의 인구가 1980~'85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1985~'88년의 3년사이에 증가 국면으로 반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가 완전히 비농가 인구의

표 3-4 횡성군 읍·면별 인구변화 추이, 1970~1988

단위: 명, ()은 %

연도 읍·면 가구	1970			1975			1980			1985		
	농가인구(70A)	비농가인구(70B)	계(70C)	농가인구(75A)	비농가인구(75B)	계(75C)	농가인구(80A)	비농가인구(80B)	계(80C)	농가인구(85A)	비농가인구(85B)	계(85C)
횡성읍	12,101(15.2) (60.5)	7,885(50.4) (39.5)	19,986(21.0) (100.0)	11,055(15.3) (57.7)	8,105(48.5) (42.3)	19,160(21.4) (100.0)	8,674(17.3) (45.5)	10,388(51.0) (54.5)	19,062(27.0) (100.0)	7,994(17.9) (44.7)	9,908(62.7) (55.3)	17,902(29.6) (100.0)
우천면	11,520(14.5) (91.4)	1,087(6.9) (8.6)	12,607(13.2) (100.0)	10,696(14.8) (89.2)	1,296(7.4) (10.8)	11,992(13.4) (100.0)	6,623(13.2) (83.0)	1,356(6.7) (17.0)	7,979(11.3) (100.0)	5,987(13.4) (89.1)	732(4.6) (10.3)	6,719(11.1) (100.0)
안흥면	11,350(14.3) (91.0)	1,117(7.1) (9.0)	12,467(13.1) (100.0)	10,296(14.3) (88.4)	1,351(7.7) (11.6)	11,647(13.0) (100.0)	7,418(14.6) (83.4)	1,478(7.3) (100.0)	8,896(12.6) (100.0)	6,660(14.9) (87.4)	958(6.1) (12.6)	7,618(12.6) (100.0)
둔내면	11,528(14.5) (81.8)	2,565(16.4) (18.2)	14,093(14.8) (100.0)	10,558(14.6) (79.0)	2,807(16.1) (21.0)	13,365(14.9) (100.0)	7,649(15.2) (77.9)	2,170(10.7) (22.1)	9,819(13.9) (100.0)	6,965(15.6) (81.8)	1,549(9.8) (18.2)	8,514(14.1) (100.0)
감천면	8,206(10.3) (89.4)	974(6.2) (10.6)	9,180(9.6) (100.0)	7,282(10.1) (86.2)	1,166(6.7) (13.8)	8,448(9.4) (100.0)	4,769(9.5) (79.2)	1,250(6.1) (20.8)	6,019(8.5) (100.0)	4,134(9.2) (85.4)	708(4.5) (14.6)	4,842(8.0) (100.0)
청원면	8,103(10.2) (90.7)	834(5.3) (9.3)	8,937(9.4) (100.0)	7,202(10.0) (87.4)	1,039(6.0) (12.6)	8,242(9.2) (100.0)	4,747(9.5) (80.7)	1,131(5.6) (19.2)	5,879(8.3) (100.0)	4,026(9.0) (88.0)	548(3.5) (12.0)	4,574(7.6) (100.0)
공근면	9,725(12.2) (93.2)	706(4.5) (6.8)	10,431(11.0) (100.0)	8,798(12.2) (90.3)	946(5.4) (9.7)	9,744(10.9) (100.0)	6,805(13.6) (86.1)	1,101(5.4) (13.9)	7,906(11.2) (100.0)	6,181(13.8) (92.8)	477(3.0) (7.2)	6,658(11.0) (100.0)
서원면	6,984(8.8) (93.6)	481(3.1) (6.4)	7,465(7.8) (100.0)	6,228(8.6) (89.6)	724(4.2) (10.4)	6,952(7.8) (100.0)	3,486(6.9) (70.1)	1,484(7.3) (29.9)	4,970(7.0) (100.0)	2,786(6.2) (75.3)	916(5.8) (24.7)	3,702(6.1) (100.0)
합계	79,517(100.0) (83.6)	15,649(100.0) (16.4)	95,166(100.0) (100.0)	72,116(100.0) (80.5)	17,434(100.0) (19.5)	89,550(100.0) (100.0)	50,171(100.0) (71.1)	20,359(100.0) (28.9)	70,530(100.0) (100.0)	44,733(100.0) (73.9)	15,798(100.0) (26.1)	60,529(100.0) (100.0)

연도 읍·면 가구	1970~8			연평균 증가율 (%)														
	농가인구(88A)	비농가인구(88B)	계(88C)	1970~'75		1975~'80		1980~'85		1985~'88		1970~'88		1970~'88				
	농가인구비농가인구	계	농가인구비농가인구	계	농가인구비농가인구	계	농가인구비농가인구	계	농가인구비농가인구	계	농가인구비농가인구	계	농가인구비농가인구	계				
횡성읍	7,362(19.2) (40.8)	10,697(62.1) (59.2)	18,059(32.5) (100.0)	-1.7	0.6	-0.8	-4.3	5.6	-0.1	-1.6	-0.9	-1.2	-2.6	2.7	0.3	-2.2	2.0	-0.5
우천면	5,499(14.4) (94.3)	331(1.9) (5.7)	5,830(10.5) (100.0)	-1.4	3.8	-1.0	-7.6	0.9	-6.7	-1.9	-9.2	-3.2	-2.7	-18.3	-4.4	-2.9	-3.9	-3.0
안흥면	4,684(12.2) (80.3)	1,774(10.3) (30.4)	6,458(11.6) (100.0)	-1.9	4.2	-1.3	-5.6	1.9	-4.7	-2.0	-7.0	-2.9	-9.9	28.4	-5.1	-3.3	3.3	-2.7
둔내면	5,666(14.8) (76.0)	1,791(10.4) (24.0)	7,457(13.4) (100.0)	-1.7	1.9	-1.0	-5.5	-4.5	-5.3	-1.8	-5.7	-2.7	-6.2	5.2	-4.1	-2.8	-1.7	-2.6
감천면	3,366(8.8) (77.2)	994(5.8) (22.8)	4,360(7.8) (100.0)	-2.3	3.9	-1.6	-6.9	1.4	-5.8	-2.7	-8.7	-3.9	-6.2	13.5	-3.3	-3.3	0.1	-2.9
청원면	3,659(9.5) (89.4)	435(2.5) (10.6)	4,094(7.4) (100.0)	-2.2	4.9	1.6	-6.8	1.8	-5.7	-3.0	-10.3	-4.4	-3.0	-6.9	-3.5	-3.0	-2.7	-3.0
공근면	5,500(14.4) (92.3)	456(2.6) (7.7)	5,956(10.7) (100.0)	-1.9	6.8	-1.3	-4.5	3.3	-3.8	-1.8	-11.3	-3.2	-3.7	-1.5	-3.5	-2.4	-2.0	-2.4
서원면	2,584(6.7) (77.3)	759(4.0) (22.7)	3,343(6.0) (100.0)	-2.2	10.1	-1.4	-8.8	21.0	-5.7	-4.0	-7.7	-5.1	-2.4	-5.7	-3.2	-3.5	3.2	-3.1
합계	38,320(100.0) (69.0)	17,237(100.0) (31.0)	55,557(100.0) (100.0)	-1.9	2.3	-1.2	-6.1	3.4	-4.2	-2.2	-4.5	-2.8	-4.8	3.0	-2.7	-2.9	0.6	-2.3

증가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횡성읍 인구의 증가요인을 1차적으로 횡성읍 농공지구조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횡성읍 농공지구가 1984년 7월 지정되어 1985년부터 부지조성 공사하여 1987년부터 입주업체가 부분 가동되었다는 사실은 횡성읍의 인구증가의 1차적 요인이 농공지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3. 지역경제구조

가. 산업구조

횡성군의 지역총생산(GRP)의 추이는 <표 3-5>와 같다.⁷⁾ 1980 ~ 85년의 5년동안 횡성군 지역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3%로서 동간 동안의 전국(8.7 %), 강원(10.0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의 GRP 수준은 1982, 1985년에는 전년도 보다 낮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80 ~ 81년도는 연평균 25.7 %, 1982 ~ 83년도는 연평균 87 %, 1983 ~ 84년도는 연평균 14.4 %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추세가 매우 불안정함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1인당 GRP 수준을 살펴보면 횡성군의 1인당 GRP는 1980 ~ 85년 5년간 연평균 6.3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강원(11.1 %), 전국(6.7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횡성군 지역은 매우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인당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1985년의 경우 971,481 원으로써 강원 평균(1,275,635)의 76.2 %, 전국 평균(1,283,744 원)의 75.7 %에 불과하였다.

한편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 횡성군의 산업별 생산액 구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횡성군의 1985년 부가가치 생산

7) 주민소득 추계자료는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1989년 12월 현재 1985년까지의 자료만을 수집할 수 있었다.

표 3-5 황성군 지역총생산(GRP) 추이 1980~'85, ('80년 불변가격)

단위 : (*) 은 %

연도	황 성 군		강 원 도		전 국	
	GRP(10억원)	1인당GRP(원)	GRP(10억원)	1인당GRP(원)	GNP(10억원)	1인당GNP(원)
1980	44.7	624,814	1,467.6	819,103	36,672.3	961,922
1981	56.2	793,617	1,580.8	875,864	39,088.7	1,009,444
	(25.7)	(27.0)	(7.7)	(6.9)	(6.6)	(4.9)
1982	53.0	757,520	1,688.7	933,042	41,211.6	1,047,948
	(-5.7)	(-4.5)	(6.8)	(6.5)	(5.4)	(3.8)
1983	57.6	832,859	1,794.5	983,651	46,109.1	1,154,777
	(8.7)	(9.9)	(6.3)	(5.4)	(11.9)	(10.2)
1984	65.9	1,001,871	2,048.9	1,128,003	50,003.0	1,234,246
	(14.4)	(20.3)	(14.2)	(14.7)	(8.4)	(6.9)
◆ 1985	58.8	971,481	2,201.8	1,275,635	52,705.4	1,283,744
	(-10.8)	(-3.0)	(7.5)	(13.1)	(5.4)	(4.0)
연평균 성장률 (80~85)	6.3	11.1	10.0	11.1	8.7	6.7

*) 은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액 중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은 72.4 %인데 비하여 동부문 강원도 평균 25.3 %, 전국 평균이 14.8 %에 불과하고 광공업, 건설 및 전기수도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강원도 및 전국평균에 현격히 떨어지는 바 황성군의 농림어업부문은 황성군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85년간의 황성군의 부문별 생산액이 황성군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원도 평균 비중과 전국 평균 비중으로 비교하면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은 강원도 평균 비중보다 약 2.6배이고 전국평균 비중보다는 약 4.3배이다. 광공업부문은 강원도 평균 비중의 19.0 %, 전국 평균비중의 18.5 %이고 건설 및 전기 수도의 비중은 강원도 평균 비중의 70.0 %, 전국 평균비중의 89.5 %,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

표 3-6 연도별 횡성군 산업구조(강원도 및 전국대비)

단위: 백만원, () 은 %, 1980년 기준가격

구 분	1980				1981				1982				1983					
	횡성군		강원도		전 국		횡성군		강원도		전 국		횡성군		강원도		전 국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농림어업	29,792	61.9	314,508	23.9	5,524.7	15.1	35,066	70.7	411,857	29.1	6,759.7	17.3	34,049	71.7	417,434	27.5	6,980.6	16.9
	(259.0)	(100.0)	(100.0)	(100.0)	(243.0)	(100.0)	(243.0)	(100.0)	(100.0)	(100.0)	(100.0)	(100.0)	(260.7)	(100.0)	(270.7)	(100.0)	(270.7)	(100.0)
상공업	6,185	12.9	389,331	29.6	11,734.3	32.0	1,096	2.2	395,655	28.0	12,675.0	32.4	2,197	4.6	460,790	30.4	13,185.3	32.0
	(43.6)	(100.0)	(100.0)	(100.0)	(408.7)	(100.0)	(7.9)	(100.0)	(100.0)	(100.0)	(100.0)	(100.0)	(162.7)	(100.0)	(160.9)	(100.0)	(160.9)	(100.0)
건설 및 전기수도	5,468	11.4	191,043	14.5	3,936.0	10.7	5,251	10.6	191,172	13.5	3,879.7	9.9	2,948	6.2	197,475	13.0	4,476.4	10.9
	(78.6)	(100.0)	(100.0)	(100.0)	(78.5)	(100.0)	(107.1)	(100.0)	(100.0)	(100.0)	(100.0)	(100.0)	(47.7)	(100.0)	(66.2)	(100.0)	(66.2)	(100.0)
서비스업	6,652	13.8	421,165	32.0	15,477.3	42.2	8,194	16.5	416,183	29.4	15,774.3	40.4	8,307	17.5	440,074	29.1	16,500.3	40.2
	(43.1)	(100.0)	(100.0)	(100.0)	(75.8)	(100.0)	(40.8)	(100.0)	(100.0)	(100.0)	(100.0)	(100.0)	(60.1)	(100.0)	(60.3)	(100.0)	(60.3)	(100.0)
계	48,097	100.0	1,316,047	100.0	36,672.3	100.0	49,007	100.0	1,414,867	100.0	39,088.7	100.0	47,501	100.0	1,515,773	100.0	41,211.6	100.0
	52,500	100.0	1,621,181	100.0	46,109.1	100.0												

구 분	1984				1985				성 장 관 (%)																					
	횡성군		강원도		전 국		횡성군		강원도		전 국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0~85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생 산 액	구성비%	구성비%	횡성군	강원도	전 국														
농림어업	35,936	59.6	425,658	22.7	7,453.2	14.9	38,956	72.4	509,377	25.3	7,892.9	14.8	17.7	31.0	22.4	-2.9	1.4	3.3	8.0	0.7	6.5	-2.3	1.3	0.2	8.4	19.7	4.8			
	(282.6)	(100.0)	(100.0)	(100.0)	(152.3)	(100.0)	(286.2)	(100.0)	(100.0)	(100.0)	(100.0)	(100.0)	(170.9)	(100.0)	(17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공업	4,565	7.6	661,723	35.3	16,930.4	33.9	2,441	4.5	715,566	35.6	17,597.9	33.4	-82.3	1.6	8.0	100.5	16.5	4.0	2.5	15.7	12.1	102.8	24.1	14.5	-46.5	8.1	3.9	-12.1		
	(21.5)	(100.0)	(100.0)	(100.0)	(22.4)	(104.1)	(100.0)	(12.6)	(100.0)	(13.5)	(106.6)	(100.0)	(106.6)	(100.0)	(10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건설 및 전기수도	9,996	16.6	307,037	16.4	5,959.8	11.9	3,464	6.5	274,696	13.6	6,446.8	12.2	-4.0	0.1	-1.4	-43.9	3.3	15.4	53.6	6.4	20.8	120.8	46.2	10.2	-65.3	-10.5	8.2	-7.3		
	(101.2)	(100.0)	(100.0)	(100.0)	(139.5)	(137.8)	(100.0)	(47.8)	(100.0)	(53.3)	(111.5)	(100.0)	(111.5)	(100.0)	(11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비스업	9,833	16.2	479,474	25.6	19,659.6	39.3	8,926	16.6	512,707	25.5	20,851.5	39.6	23.2	-1.2	1.9	1.4	5.7	5.0	7.7	4.0	11.6	9.9	4.8	6.3	-9.2	6.9	6.1	6.8	4.3	6.9
계	60,330	100.0	1,873,892	100.0	50,003	100.0	53,786	100.0	2,012,336	100.0	52,705.4	100.0	3.1	7.5	6.6	-4.2	7.1	5.4	10.5	7.0	11.9	14.9	15.6	8.4	-10.8	7.4	5.4	2.4	10.6	8.7

중은 강원도 평균비중의 58.0 % 전국 평균비중의 40.1 % 이다. 따라서 횡성군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생산에 의존하는 농업군이며 광공업과 써비스업 등의 비중이 강원도 평균 또는 전국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되어 있는 불균형 성장지역임을 알 수 있다.

1980 ~ 85년간 횡성군의 부문별 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을 뿐만 아니라 써비스 산업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평균보다도 낮다. 특히 광공업과 건설 및 전기수도 부문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 12.1%, - 7.3%로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성장을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불안정한 산업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써비스 부문은 비록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1980 ~ '85년 연평균 6.8 %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강원도 평균 4.3 %를 상회하고 있고 전국평균 6.9 %에 근사하다는 것은 향후 횡성군에서 써비스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나. 산업별 취업구조

횡성군의 산업별 취업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횡성군의 1985년 취업인구⁸⁾ 중에서 농림어업 취업인구 비중이 80.4 %로서 전국 또는 강원도 평균에 비하여 현격히 높고 횡성군의 경우 1 ha당 농림어업 취업인구는 1.26 명인데 비하여 강원도 1.18 명 전국 0.98 명으로서 농경지 단위면적당 취업인구 또한 많을 뿐만 아니라 광공업부문과 써비스업 부문의 취업인구비중은 횡성이 전국 또는 강원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횡성군의 경우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에로의 취업이 전국 또는 강원도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부문의 1인당 부가가치 또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부문간 직종별 취업인구 구성은 <표 3-8>과 같은데 농림축산종

8) 1985년 전국 인구수 중에서 취업인구 비율은 횡성군이 40.6 %, 강원도 36.4 %, 전국 34.4 %로서 횡성군의 취업인구비율이 높다.

표 3-7 횡성군 산업별 취업인구 구성, 1985

단위: 명

구 분	횡 성 군				강 원 도		전 국	
	남	녀	계	%	취업자	%	취업자	%
농림어업	11,173	8,056	19,769	80.4	239,000	38.0	2,434,000	17.5
광공업	383	139	522	2.1	97,000	15.4	3,821,000	27.5
서비스업	2,933	1,355	4,288	17.5	292,000	46.6	7,653,000	55.0
계	15,029	9,550	24,579	100.0	628,000	100.0	13,908,000	100.0

표 3-8 횡성군 산업부문간 직종별 취업인구 구성, 1985

단위: 명

	전문기술 및관련직 종사자	행정 및 관련직 종사자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 수 종사자	농·림·축 산 종사자	생산 및 관련종사자 단순노무자	
계	24,579	664	61	941	1,072	773	19,748	1,320
농, 림 어 업	19,769	20	1	5	7	2	19,726	8
광 업	5		1					4
제 조 업	517	3	10	49	21	10	3	421
전기기기수도사업	23	1	1	6		1		14
건 설 업	427	14	9	15		3		386
도·소매 음식 숙박	1,533	12	1	45	980	422	14	59
운수·창고통신업	382	1	7	151		7		216
금융, 보험, 부동산								
써 비 스 업	186	4	9	127	31	4		11
사회 및 개인 써비스	1,737	609	22	543	33	324	5	201

자료)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경제기획원, 1985.

사자가 19,748 명으로 전체의 80.5 %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고, 다음이 생산 및 관련종사자의 단순노무자가 9.4 %이고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의 비중은 2.7 %로 극히 낮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횡성군은 1차산업 중심으로 발달하여 고부가가치 직종이 매우 적기 때문

이고 나아가 장래 횡성군의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횡성 지역산업연관 분석

1985년 횡성군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 경제적 구조를 살펴본 결과 1985년 지역총산출액⁹⁾ 139,483백만원 가운데 42.1%가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투입되었으며 57.9%가 부가가치로 귀속되어 부가가치율은 전국 평균 41.4%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9).¹⁰⁾

횡성군은 여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1차산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재배업과 축산업이 전체 생산액의 51.8%, 부가가치 52.8%를 점하고 있다. 광공업부문은 지역 총산출액의 10.6%, 부가가치의 4.2%로써 동부문 전국 평균 각각 50.9%, 31.0%에 현저히 뒤떨어져 있고, 상업부문의 생산액은 지역총산출액의 5.6%로써 전국 평균 7.5%와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부가가치면에서는 횡성군은 6.5%, 전국은 12.3%가 되어 횡성군지역내 상업부문의 마아진 귀속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횡성군이 상공업 낙후지역임을 뜻한다.

한편, 지역내 우회생산정도를 나타내는 지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 투입비는 총산출액 139,483백만원 가운데 17.8%에 불과하고, 지역외에서 이입되어 투입된 것은 24.3%로써 횡성군은 지역외의 중간투입이 많은 지역의 의존형 경제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0). 지역내 중간투입의 비율이 높은 부문은 제조업, 축산·양잠, 농업서비스, 기타서비스, 상업의 순이다.

9) 지역총산출액에는 지역외에서 이입된 중간투입물이 포함되어 있음.

10) 참고로 공주군의 부가가치율은 51.4%, 구례군은 57.3%이다.

각각, 김학언, 「농촌지역 경제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충남 공주군 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M 19-1, 1987.12.

전 장수, 김영식, 「산업연관모형에 의한 지역경제의 생산구조 분석」, 「농업경제학 연구」, 제 1권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회, 1988.12 참조.

표 3-9 횡성군 총 생산액과 부가가치액, 1985

단위 : 백 만원, (%)

	횡 성		전 국	
	총 생산액	부가가치	총 생산액	부가가치
1. 재 배 업	46,466 (33.4)	37,151 (46.0)	9,303,182 (4.9)	7,438,156 (9.4)
2. 축 산 양 잠	25,796 (18.5)	5,504 (6.8)	2,673,391 (1.4)	570,412 (0.7)
3.				
3. 농 업 서 비 스	1,818 (1.3)	1,087 (1.3)	264,756 (0.1)	158,271 (0.2)
(농업소계)	74,080 (53.1)	43,742 (54.2)	12,241,329 (6.4)	8,166,839 (10.4)
4. 임 업	7,034 (5.0)	6,032 (7.5)	724,970 (0.4)	621,746 (0.8)
5. 수 산	39 (0.0)	23 (0.0)	1,677,023 (0.9)	978,569 (1.2)
6. 광 업	0 -	0 -	1,353,537 (0.7)	832,610 (1.1)
7. 제 조 업	14,740 (10.6)	3,350 (4.2)	95,300,320 (50.0)	23,588,696 (29.9)
8. 전 기 수 도 가 스	1,447 (1.0)	873 (1.1)	4,459,415 (2.3)	2,659,353 (3.4)
9. 건 설 업	9,243 (6.6)	3,671 (4.5)	15,462,490 (8.1)	6,168,060 (7.8)
10. 상 업	7,848 (5.6)	5,239 (6.5)	14,325,610 (7.5)	9,692,180 (12.3)
11. 운 수 창 고 통 신	2,346 (1.7)	1,621 (2.0)	11,234,250 (5.9)	6,001,230 (7.6)
12. 금 응 보 험 부 동 산	6,574 (4.7)	4,689 (5.8)	13,208,070 (6.9)	9,176,398 (11.6)
13. 경 부 서 비 스	4,729 (3.4)	2,500 (3.1)	62,648,846 (3.3)	3,312,076 (4.2)
14. 교 육 서 비 스	7,823 (5.6)	6,806 (8.4)	4,533,932 (2.4)	3,944,314 (5.0)
15. 기 타 서 비 스	3,580 (2.6)	2,173 (2.7)	9,878,386 (5.2)	3,705,912 (4.7)
총 계	139,483 (100.0)	80,718 (100.0)	190,664,200 (100.0)	78,847,984 (100.0)

표 3-10 횡성지역 경제구조, 1985

산 업 별	지 역 투 입 산 출 구 조			
	중 간 투 입		최 종 수 요	
	횡 성 지 역 내	횡 성 지 역 외	지 역 내 %	지 역 외 %
1. 재 배 업	0.1017	0.0988	20.9	61.4
2. 축 산, 양 잠	0.2821	0.5045	20.5	75.5
3. 농 업 써 비 스	0.1739	0.2282	-	18.2
4. 임 업	0.0349	0.1074	14.8	42.4
5. 수 산	0.0716	0.3449	74.4	25.6
6. 광 업	-	-	-	-
7. 제 조 업	0.4649	0.3079	18.1	54.0
8. 전기, 수도, 가스	0.0677	0.3290	27.2	33.7
9. 건 설 업	0.1621	0.4408	50.0	37.6
10. 상 업	0.1615	0.1709	76.6	0.0
11. 운수, 창고, 통신	0.0744	0.2346	22.4	18.5
12. 금융, 보험, 부동산	0.1547	0.1320	34.9	30.0
13. 정 부 써 비 스	0.0980	0.3733	99.9	0.0
14. 교 육 써 비 스	0.0373	0.0927	99.4	0.0
15. 기 타 써 비 스	0.1675	0.2255	92.8	0.0
평 균	0.1780	0.2432	42.3	41.4

지역 총산출액 139,483 백만원 가운데 17.8 %의 지역내의 산업활동 중간재 사용분을 제한 82.2 %가 최종수요로 소비되고 있고, 그중 35.1 %가 횡성지역내에, 47.1 %가 지역외에서 소비되어지고 있다. 지역내 산출물의 대부분을 역외로 이출하는 산업은 축산(75.5 %), 재배업(61.4 %)으로 이들 부문을 횡성지역 기반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내 산출물의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을 보면 최종수요 114,650 백만원 가운데 57.3 %가 역외로 이출되고 있으며, 지역내에서는 34.8 %가 소비, 8.0 %가 투자형태로 최종소비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총지출

액 가운데 18.5 % 를 역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소비의 경우 40.8 % 를 역외에 의존하고 있다(표 3-11 참조). 민간소비지출의 역외 의존액 23,169 백만원 가운데 역외 의존이 높은 산업 부문은 제조업(40.9 %), 기타서비스(20.2 %), 상업(14.4 %), 운수·창고·통신(10.3 %) 순이다.

표 3-11 횡성군 최종수요 및 지출구성, 1985

항 목	최 종 수 요	지 역 지 출 구 성			
		지 역 지 출 (백만원)			
		금 액 (백만원)	%	총 지 출 (A)	지역이입 (B)
소 비	39,859	34.8	64,234	24,375	37.9
(민 간)	33,677	29.5	56,846	23,169	40.8
(정 부)	6,182	5.3	7,388	1,206	16.3
투 자	9,118	8.0	10,824	1,706	15.8
이 출	65,677	57.3	65,673	0	0
계	114,650	100.0	140,731	26,081	18.5

제 4 장

횡성군 농공지구 개발현황

1. 지정 및 조성현황

횡성군은 1984년 전국 7개시범농공지구¹⁾ 의 하나로 지정된 횡성읍 북계리 소재 일반 농공지구가 가동중에 있고 1988년 5월 우천면 양적리에 특별농공지구가 지정되어 부지 조성중에 있다. 각각 부지(지정) 면적이 48,573평, 51,400평으로 10만평은 초과하지 않는 일반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 북계 농공지구 개발 실태

1989년 10월 현재 횡성군 북계 농공지구는 1단지, 2단지로 구분하여 16개업체가 입주하여 13개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미가동 3개업체는 재정 및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타업체와 교체될 예정이다.

1) 7개 시범농공지구는 강원 횡성('84.7월), 충북 진천 ('84. 9월)
충남 장기 ('84.9월), 전북 동면 ('84.9월), 전남 학교 ('84. 9월)
경북 고경 ('84.9월), 경남 함양 ('84.9월) 농공지구임.

농공지구 규모는 지정면적이 48,573 평, 조성면적이 39,993 평 분양면적은 30,630 평이다. 분양면적중 1 단지는 17,175 평, 2 단지는 13,455 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기간은 각각 1985.9.21 ~ 1986.6.20, 1986.10.30 ~ 1987.9.20 이다.

지구조성시의 총소요자금은 2,133,561 천원으로 보조금이 947,287 천원 (44.4 %), 융자금이 1,186,274 천원 (55.6 %)인데 자금출처별로는 국비가 1,187,905 천원 (55.7 %), 지방비가 945,656 천원 (44.3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조금중에서 국비 보조금은 877,542 천원, 지방비보조금은 69,745 천원으로 국비보조금이 92.6 %로 압도적이다. 이것은 일반농공지구의 경우 농공지구 부지취득 및 부지시공에의 자금은 전액 국비보조로 충당되고, 부대시설 소요자금의 70 %가 국고보조되기 때문이

표 4-1 횡성 뮤계 농공지구 공사비 내역

단위: 천원, ()은 %

		국 비	지 방 비	계
1 단 지 (A)	보 조 금	491,328 (95.0)	25,589 (5.0)	516,917 (44.6)
	융 자 금	140,366 (21.9)	501,923 (78.1)	642,289 (55.4)
	계	631,694 (54.5)	527,512 (45.5)	1,159,206 (54.3)
2 단 지 (B)	보 조 금	386,214 (89.7)	44,157 (10.3)	430,371 (44.2)
	융 자 금	169,997 (17.4)	373,987 (82.6)	543,984 (55.8)
	계	556,211 (57.1)	418,144 (42.9)	974,355 (45.7)
(A + B)	보 조 금	877,542 (92.6)	69,745 (7.4)	947,287 (44.4)
	융 자 금	310,363 (26.2)	875,911 (73.8)	1,186,274 (55.6)
	계	1,187,905 (55.7)	945,656 (44.3)	2,133,561 (100.0)

다. 융자금의 경우 국비가 310,363 천원 (26.2 %), 지방비가 875,911 천원 (73.8 %)으로 지방비 융자가 많은 이유는 농공지구개발지원법에 따라 일반농공지구의 경우 융자금의 구성비는 지방비가 67.7 %, 국비융자가 32.3 %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²⁾ 목계농공지구개발 재원의 세목별 구성은 <표 4 - 2>와 같고 평당 분양가격은 41,690 원이다.

한편, 목계농공지구의 개요와 지정 및 조성절차는 각각 <표 4 - 3> <표 4 - 4>에 정리되어 있다.

횡성 목계농공지구의 업체당 평균 지정면적은 3,035 평으로서 강원도 평균 3,392 평, 전국 농공지구 평균 3,614 평보다 적다. 이는 횡성목계의 경우 타지구와 달리 가용공업입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업용지 절약형업체 및 소기업이 많이 입주하였음을 뜻한다.

16개 입주업체의 입주형태는 창업이 8개업체 (50.0 %), 이전이 7개업체, 분공장이 1개업체이다. 이전 및 분공장이 전체 16개업체 중 50.0 %를 점하고 있으나 전국 농공지구 1,804개 입주공장에서 이전 및 분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인 58.6 % (1,056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 - 5> 참조.

가동중인 13개업체의 입주형태는 창업이 7개, 수도권에서 이전한 업체가 3개, 기타 인근지역에서 이전한 업체가 3개이다. 가동공장중에서 이전업체가 차지하는 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3개 폐업체중 2개 업체가 이전공장인데 기인한다.

기업규모는 대기업이 1개업체이고 나머지 15개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 %이다. 이는 강원도 평균 2.5 % ,

2) 그런데 목계 농공지구의 경우 지방비 융자비가 73.8 %로서 규정치를 초과하는 것은 농공지구에 대기업이 입주할 경우 그만큼 국비융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목계 농공지구의 경우 1개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표 4-2 횡성목계농공지구 조성예산 및 결산

단위 : 천원

공 종 별		사업량	합 계	국 비		지방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용지 매입비		39,968	239,977	31,898	111,751	5,224	85,104
○ 토지 매입비			89,142	19,983	27,305	1,220	40,634
○ 지상물보상비			150,835	11,915	90,446	4,004	44,470
부지 시공비			1,195,529	298,482	150,442	-	746,605
○ 토공			401,087	104,797	38,823	-	257,467
○ 구조물등			794,442	193,685	111,619	-	489,138
소계			873,265	696,091	42,170	90,803	44,201
부 대 시 설 비 등	진입도로·지구내 간선도로	진입도로 1조 간선도로 2조	258,186	209,169	-	49,017	-
	전력·가로등	1 식	55,183	50,155	-	5,028	-
	통신	1 식	10,032	9,519	-	513	-
	용수개발	1공/200톤	28,229	24,321	-	3,908	-
	지구외배수시설	912.5 m	135,258	135,258	-	-	-
	조사설계비	1 식	68,967	68,967	-	-	-
	시공감리비	1 식	65,358	40,034	-	4,758	20,566
	기타(공동이용시설)	186.82평	175,210	148,929	-	26,281	-
	○ 관리비		13,672	7,876	-	1,030	4,766
	○ 잡지출등		63,170	1,863	42,170	263	18,869
합계			2,308,771	1,026,471	310,363	96,027	875,910
하수처리시설							

* 공동이용시설 최종 정산 미실시(공동이용시설 인가금액기준 작성)

표 4-3 횡성읍계 농공지구 개요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계리 43-3 번지
- 규모
 - 지정면적 : 48,573 평
 - 용지매수면적 : 39,993 평 (시공조성면적 : 39,993 평)
 - 지구면적 : 38,795 평 (지구내도로면적 : 4,025 평 포함)
 - 진입도로 : 1,198 평
 - 분양가능면적 : 30,630 평
 - * '88년 12월 31일 현재 분양면적 : 30,630 평 (16개 기업) 확정
- 입주기업현황 ('88.12.31 현재) 최종 확정

신청기업수 (면적)	환경검토		사업성검토		분양계약 기업 (면적)
	적합기업 (면적)	부적합기업	적합기업 (면적)	부적합기업	
44개 (94,634 평)	38개 (83,066 평)	6개 (11,568 평)	20개 (55,734 평)	18개 (27,332 평)	16개 (30,630 평)

* 분양개산가격 : 1 단지 : 40,000 원 / 평
2 단지 : 44,000

분양정산가격 : 41,690 원 / 평

표 4-4 횡성목계 농공지구 지정 및 조성절차 추진

○ 지정절차

- 농공지구 예정지구 선정통보일 : 1984.9.20
 - 농공지구예정지구 지정공고일 : //
- 농공지구 지정통보일 : 1985. 3. 8
 - 농공지구 지정공고일 : 1985. 3.11

○ 조성절차

사 항	월	•	일	사 항	월	•	일
	1 단지	2 단지			1 단지	2 단지	
- 기본조사설계	:	'84.10.17	~ 11.19	- 시·군예산추경	:	'85. 4.22	'86.10.15
• 기본조사	:	"		• 내시변경	:	'85.12.30	'86.10.25
• 설계계약	:	'85.1. 7		• 예산편성	:	'85. 6.30	'86.12.31
• 설계 확정	:	'85.7.16	'86.8.8	• 기채신청	:	'85. 6. 4	'86.12.10
- 사업계획승인	:	'85.9.20	'86.10.4	• 기채승인	:	'85. 6.14	'87. 2.17
• 사업계획변경	:	'85.9.20		- 용지매수계약체결			
(1 차)	:	'85.1.30		• 보상완료	:	'85.10.20	'86.10.20
- 용도지역변경	:	'85.3. 8		- 시공입찰	:	'85. 8.23	'86.10.25
• 농지·산지 ·				• 시공업자 선정			
초지전용허가	:	'85.7.13		• 시공감리계약	:	'85. 9.21	'86.11. 3
- 기공승락서정구	:	'85.5.30		체결			
• 분묘이장공고	:	'85.4.11	'86.8.8	• 시 공 식	:	'85. 9.21	'86.10.30
				- 준 공 일	:	'86. 6.20	'87. 8.29
				• 준공검사일	:	'86. 6.24	'87. 9. 8
				- 사업비정산	:	'86.11.17	'87.12.26
				• 분양가정산	:	'88. 1. 8	
				- 지적공부정리	:	'86. 8.18	'87.10.28

표 4-5 횡성목계 농공지구 입주업체 현황 (1989. 6월 현재)

업 체 명	입 주 형 태	생 산 품 목	분 양 면 적 (평)	공 장 건 축 면 적 (평)	자 산 액 (백 만원)	고 용 (명)			생 산 액 (백 만)	매 출 액 (백 만)	가 동 일	비 고				
						계 회		현재								
						1 년 차	2 년 차									
1	I	창업	사프연필	2,302	512	1,692	42	70	95	48	1,207	'87.1.5	임가공 116가구			
	II	이전	1회용 가스라이터	906	452	270	100	130	150	폐업		'87.1.21				
	III	창업	청량음료	2,409	311	741	75	106	124	폐업		'86.10.30				
	VI	기존 공장	절임식품	570	302	660	15	40	40	27 (21)	195	'84.12.1	농공지구 로 편입			
	V	창업	쥬우스	1,050	344	468	72	72	150	35 (20)	300	'87.9.2				
	VI	창업	수지필름	1,057	270	595	52	52	60	20	720	'87.9.28				
	VII	분공 장	호프·김치	9,326	2,236	66,601	374	375	474	81 (17)	4,827	'88.11	임가공 15가구			
				17,620	4,427	71,027	730	845	1,098	211 (58)						
2	가	이전	멸치액젓	1,164	446	500	8	10	12	폐업		'88.5.1				
	나	창업	웃칠정제	738	150	250	113	113	113	16 (6)	90	70	'87.10.5			
	다	창업	방수시멘트	2,066	401	899	64	112	138	11 (3)	546	491	'89.3.10			
	라	창업	목할저	1,780	289	502	67	67	80	48	224	118	'88.1.4			
	단	이전	문구류	1,389	624	500	47	75	106	58	1,500	1,500	'88.1.1			
	마	이전	조명기구	1,285	233	387	40	60	80	35	-	-	'88.1.10			
	바	이전	정밀측정기	1,349	448	850	110	110	110	93	-	-	'88.8.15			
	지	창업	화장솔	2,241	910	639	233	233	233	79	-	-	'89.2.20			
	사	이전	가방	998	557	550	154	154	249	43	1,584	1,584	위가공 13가구 임가공 8가구			
				13,010	4,058	5,077	836	934	1,121	383 (9)						
	계			30,630	8,485	76,104	1,566	1,779	2,214	594 (63)						

주 *) 생산액 및 매출액 기준은 1988.1 ~ 1988.12 기간임.

**) 자산액은 1988년 12월 말 현재임

()은 임시 및 계절취업자로 현재 고용량에 포함되어 있음.

전국평균 2.3 %보다 높다.³⁾ 횡성농공지구의 대기업 입주비가 전국보다 높은 이유는 1개 대기업이 횡성지역과 밀접한 원료의존관계 때문에 농공지구 조성이전에 이미 횡성군에 입지하고 있었던 분공장을 농공지구 조성으로 인하여 현지에서 규모 확대하여 입주하였기 때문이다.

입주업체의 업종은 전기전자가 2개업체(12.5%), 기계금속 1개(6.3%), 봉제섬유 1개(6.3%), 화공 2개(12.5%), 식품 5개(31.3%), 기타 5개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농어촌지역과 후방연관 효과가 큰 식품업체의 입주비율이 강원도 농공지구 평균 13.1 %와 전국 농공지구 평균 6.7 %를 훨씬 상회하여 입주업체의 약 1 / 3에 해당된다는 것은 둑계 농공지구가 횡성지역 농업구조와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한다. 실제로 Ⅲ, Ⅳ, Ⅴ, Ⅶ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로서 횡성지역을 원료주산지로 입지하고 있다.

16업체의 자산총액은 76,104백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4,757백만원이고 분양면적당 2.5백만원, 공장건축면적당 9.0백만원이다. 자산 1백만원당 1차년도 고용예상인원은 2.1명이나 현재 가동중인 13개업체의 고용량은 566명으로 가동중인 업체 자산 1백만원당 0.008명에 불과하다.

나. 우천 농공지구 개발 실태

우천 특별농공지구는 1989년 10월 현재 14개 입주업체가 확정되어 우천면 양적리 산 27번지 일대에 부지조성중에 있다. 공사기간은 1988. 12월에서 1989.12월까지 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공지구 규모는 지정면적이 51,400평, 조성면적이 53,866평, 분양예정면적이 42,400평이다. 지구조성의 총소요예산은 3,834,959천원으로 국비가 1,993,293천원, 지방비가 1,841,666천원이다.〈표 4-6 참조〉. 보조금(1,070,245천원)은 전액 부대시설 소요자금으로 용도지정되어 있

3) 1989년 10월 15일 현재 도별 농공지구 입주업체 대기업 비중은 경기(14.3%), 충북(3.3%), 충남(3.1%), 전남(2.5%), 강원(2.5%), 경북(2.3%), 전북(1.3%), 경남(0.9%)의 순이다.

표 4-6 우천 농공지구 공사비 내역

	국비 1)	지방비 2)	계
보조금 *)	749,172 (70.0)	321,073 (50.0)	1,070,245 (27.9)
융자금 *)	1,244,121 (45.0)	1,520,593 (55.0)	2,764,714 (72.1)
계	1,993,293 (52.0)	1,841,666 (48.0)	3,834,959 (100.0)

*) 보조금은 부대시설 융자금은 부지취득 및 부지시공비로 용도 지정되어 있음(특별농공지구)

고 그중 국비가 749,172 천원 (70.0 %), 지방비가 321,073 천원 (30.0 %)이다. 융자금 (2,764,714 천원)은 농공지구 부지취득 및 부지시공 소요에 충당되는데 국비가 1,244,121 천원 (45.0 %), 지방비가 1,520,593 천원 (55.0 %)이다.⁴⁾ 따라서 평당분양가격은 약 65,000 원으로 잠정 결정되어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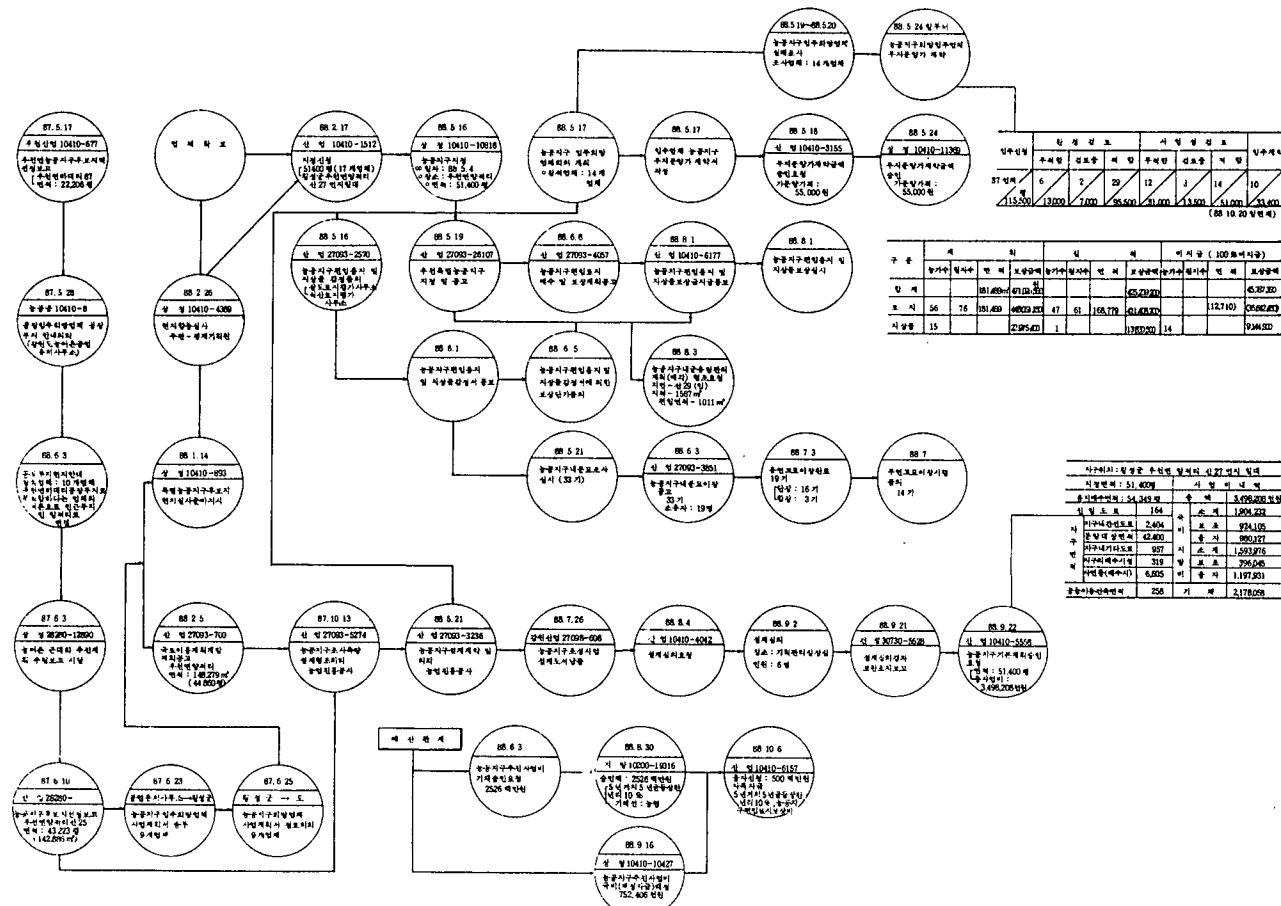
우천농공지구 추진상황을 요약하면 <그림 4-1>과 같다. 농공지구 후보지역 선정보고시 ('87.5.17)부터 농공지구 지정 ('88.5.16)까지만 12개월이 소요되었고 농공지구 기본계획 승인요청은 1988.9.20, 예산융자신청은 1988.10.6, 부지조성공사는 1988.12.15 일에 시작하여 1989.12.28 일의 1년간으로 예정되어 농공지구 후보지역 선정으로부터

4) 특별농공지구 경우 농공지구 부지매입비 및 시공비는 보조금없이 모두 융자로 충당하고 국비 융자는 45%, 지방비 융자는 55.0%로 제한되어 있다. 부대시설 비용은 일반농공지구와 동일하게 보조금으로 충당되는데 국비보조 70%, 지방비 보조 30%로 이루어져 있다.

5) 평당예상분양가격 = $\frac{\text{농공지구 공사비} - \text{보조금}}{\text{분양예정면적}}$

$$= \frac{3,834,959 \text{ 천원} - 1,070,245 \text{ 천원}}{42,400 \text{ 평}})$$

그림 4-1 횡성 누전 득별동공시구 수신상황



부지조성공사 시작 시점까지 약 19개월, 부지조성 완료까지 약 3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주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업체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이전업체가 8개, 분공장이 3개, 창업체가 5개이다. 이전 및 분공장이 점하는 비는 78.6%로서 전국 평균 58.5%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특히, 8개 이전업체는 모두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였는 바⁶⁾ 우천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사업성 및 경영능력이 타지구보다 (특히, 북계농공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그만큼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업체 비율이 높은 것은 횡성군이 서울과 125.9km 거리에 불과하고 우천 농공지구 입지가 영동 고속도 문막 인터체인자리로부터 1km이내에 놓여 있는 등 서울 및 수도권과의 교통여건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입주업체의 업종은 전기전자가 5개업체 (35.7%), 기계금속 4개 (28.6%), 봉제섬유 1개 (7.1%), 화공 2개 (14.3%), 식품 1개, 기타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표 4-7 참조). 우천농공지구의 경우 노동집약적 업종이라 알려진 전기전자업체의 입주비율이 전국 평균 17.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바 고용효과는 타지구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⁷⁾

14개업체의 1차년도 예상고용량은 1,599명으로 업체당 평균 114명에 달하고 공장이 완전 가동될 것이라 예상되는 3차년도의 고용량은 약 2,835명으로 추계된다. 1인당 월평균 임금을 경상가격 200천원으로 가정할 경우 1차년도 예상(직접)임금 소득효과는 월평균 319,800천원, 연간 약 3,837,600천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1987년

6) 1989년 10월 15일 현재 농공지구 이전업체 중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업체 전국평균은 약 34.9%이다.

7) 실제로 우천농공지구의 업체당 예상고용인원은 203명인데 비하여 전국평균은 133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정면적당 고용인원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데 우천 경우는 지정면적 평당 평균 0.06명, 전국은 0.04명이다.

표 4-7 우천 농공지구 입주업체 현황

입주* 기업	생산품목	분양면적 (평)	공장건축면적 (평)	자산액 (백만 원)	고용계획 (명)			분양계약일
					1년차	2년차	3년차	
A	유압공압부품	3,200	900	568	79	135	220	'88. 5. 26
E	화장품	4,000	2,400	844	36	63	158	'88. 5. 25
F	바인더	1,000	300	40	11	51	58	'88. 5. 26
G	화장품-용기	2,800	1,350	350	99	99	227	'88. 5. 26
I	연마석	1,200	490	-	7	7	54	'88. 7. 8
J	전등공구	1,500	340	300	16	22	54	'88. 5. 27
K	장갑류	2,500	800	458	160	200	300	'88. 5. 24
O	흑백 T V 전화기	7,500	6,650	10,955	496	603	693	'88. 5. 27
A'	의료기구	3,000	1,170	1,330	57	58	61	'88. 5. 27
I	프라스틱성형	1,500	700	2,697	154	214	233	'88. 9. 6
II	정수기	2,000	600	426	14	21	69	'88.12. 9
III	요쿠르트	6,800	4,200	200	154	154	154	'89. 4. 27
VI	바리콘	3,200	2,296	2,025	305	305	428	'89. 3. 2
V	조명전구	1,500	830	126	11	107	126	'89. 2. 21
계	14 개업체	42,400	23,026	20,319	1,599	2,039	2,835	

주: A' 업체는 '88. 8월 당시 입주 검토중인 업체로 '89년 5월 최종 확정되었고 로마숫자로 표시된 입주업체들은 입주계약과정에서 기분양 예정업체와 교체되었다. 나머지 입주업체는 '88년과 동일하다.

(김경덕 (1988.12) 참조).

*) I업체를 제외한 13개업체의 합계임.

벼 2등품 40 kg당 정부수매가격 26,370 원을 기준하였을 때 벼 2등품 5,821,160 kg에 해당되고 1987년 전국 평균 정곡환산률 73~77%와 10 a당 정곡생산량 436 kg을 기준하면⁸⁾ 정곡생산량 4,365,870 kg에 해당되어 벼 식부면적 100,134 a (=10,013.4 ha)에 해당되는 농외소득이 창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13개업체의 자산총액은 20,319 백만으로 업체당 평균 1,563 백만이고 분양면적 평당 48 만원, 공장건축면적 평당 88 만원이다. 자산 1 백만원당 1 차년도 고용인원은 약 1명이고 분양면적 대비 1 차년도 고용인원은 평당 0.04 명, 공장건축면적 대비는 평당 0.07 명이다.

2. 횡성목계 농공지구 입주업체 실태

가. 자본금 실태

1988년 12월말 현재 가동중인 11개업체의 자본금 및 그 구성내역을 요약하면 <표 4-8>과 같다. 총자산의 설립대비 월평균 증가률은 약 1.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1988년 12월말 현재 횡성농공지구 입주업체중 11개 가동업체의 평균가동기간이 15.9개월에 불과함으로써 입주가동시 신규투자 및 기업 규모확대 등에 필요한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수요 즉, 입주업체의 신규투자에 따른 자금소요가 체증부분에 놓여있음을 뜻한다. 이는 가동기간이 짧은 업체일수록 자산의 월평균 증가률이 높다는데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동기간이 증가함으로써 자금소요의 체증부분이 없어진다는 가설을 수용할 수 있고 현재까지의 자금규모의 증가률로써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V, VII, 라, 자 4개업체의 자산월평균 증가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 설명되는 몇 가지 경영지표로 설명가능

8)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8.

표 4-8 자본금 구성내역

항목 업 체명	생산품목	분양면적 (평)	기동일시 개월	자산 (백만원)			자산구성내역 (백만원)						유동성 (%) 유동비율	안전성 (%)			
				설립시 12월말	'88 증가률 (월평균) %	자본금			부채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고정 비율	
						고정	유동	계	고정	유동	계						
I	샤프펜	2,302	'87. 1	24	764	1,692	5.1	205	731	936	756	-	756	55.3	80.8	102.7	
II	절임식품	570	'84.12	49	218	660	4.1	277	210	487	173	-	173	73.8	64.2	92.4	
V	쥬우스	1,050	'87.9	16	702	468	△ 2.1	78	22	100	368	-	368	21.4	368	416	
VI	수지필름	1,057	'87.9	15	770	595	△ 1.5	204	70	274	-	-	321	-	46.1	117.2	-
VII	호프, 김치	9,326	'88.1	12	42,498	66,601	4.7	-	-	11,045	-	-	55,556	-	16.6	503.0	-
나	옷칠 정제	738	'87. 10	15	200	250	1.7	68	22	90	132	28	160	178.6	36.0	177.8	222.2
다	방수시멘트	2,066	'88.3	10	200	899	35.0	130	71	201	698	-	698	22.4	347.3	411.9	
라	목할저	1,780	'88.1	12	10,100	502	△ 7.9	150	-	150	315	37	352	100.0	29.9	234.7	310.0
마	문구류	1,389	'88.1	12	184	500	14.3	60	50	110	222	168	390	129.8	22.0	354.5	256.4
바	조명기구	1,285	'89.1	3	300	787	54.1	-	-	387	-	-	400	-	49.2	103.4	-
사	정밀측정기	1,349	'88.8	5	50	850	320	431	69	500	292	58	350	219.0	58.8	70	144.6
아	화장솔	2,241	'89.2		634	639		158	117	275	264	100	364	217.0	43.0	132.4	153.5
자	가방	998	'88.7	5	1,500	550	△12.7	79	71	150	400	-	400	27.3	266.7	314.0	
계		26,151		15.9	58,120	74,593	1.8			14,705			59,888	168.9	38.6	216.9	242.4
				(평균 기동 개월)			(평균 증가률)*							(5개업 체평균)	(평균)	(10개 업체 평균)	

* 평균 증가률은 '88년 12월 말 현재 가동중인 11개업체의 설립시 자산의 합과 '88년 12월 말 자산의 합 그리고 가동기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하다. V업체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비율이 모두 평균치보다 나쁠 뿐만 아니라 자신의 '88년 6월말보다도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잦은 판매처의 변경 등 판로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자금부족과 생산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론 청취되었는데 <표 4-11>에서 알 수 있다시피 '88년 1년동안 매출액은 생산액의 55.0%에 불과하다.

VI업체는 당국의 인허가문제로 인하여 업종변경(식료품에서 화학필름으로 변경)을 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시험가동중에 있는 상태인데 경영주의 경영의욕 및 자금능력의 저조로 말미암아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론 청취되었다. 이는 자산이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이 평균치보다 양호하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라업체의 경우는 목할저 생산원료구입에 관한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경쟁상품(수입대나무젓가락)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판매 및 수익 등 경영성과가 저조한데 이는 유동성 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모두가 평균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알 수 있다.

자업체의 경우는 수출업체로서 원화결상과 원자재 가격 및 노임상승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자기자본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 모두 평균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88.6월 경우보다도 나쁘다(김경덕(1988.12) 참조).

13개업체의 총자산중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38.6%로 1988년 전국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평균 21.8%보다 높으나 유동자산 비율은 25.3% (10개업체 평균)로 전국 평균 56.7%보다 낮다.

기업의 단기적 자금사정을 평가하는 수표나 어음결제 능력 즉,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을 살펴보면 2개업체를 제외하고는 200%를 상회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양호한다고 할 수 있다.⁹⁾

9) 유동성이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유동성이 좋다 함은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유동성이 나쁘다 함은 기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200% 이상일 때 자금사정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1988년 전국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평균 유동성은 104.5 %에 불과한데 비하여 획성 목계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단기채무 지급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함으로써 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높은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기본체질을 나타내는 재무구조를 분석하여 자기자본비율¹⁰⁾, 부채비율¹¹⁾, 고정비율¹²⁾ 등의 안정성 지표를 구함으로써 가능하다. 각 안정성 지표는 38.6 %, 216.9 %, 242.4 %로 1988년 전국중소기업 평균 21.5 %, 357.7 %, 195.9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비율은 전국 평균 195.9 %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기준치인 100 %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업체는 4개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입주업체들이 농공지구 입주시 정부지원의 혜택, 융자 등에 의하여 유치되었고, 또한 입주시 신규투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따라서 불경기때 과다한 이자지출로 인한 경영악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경우 그 속성상 농공지구의 지원혜택(공업용지제공 및 정부의 세제 금융상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계기업(marginal firm)이 농공지구에 입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입주업체의 자기자본에 대

10) 자기자본 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은 기업이 조달한 총자본금중에서 자기자본이 어느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본다.

11) 부채 비율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부채가 자기자본의 몇 배나 되는지를 나타낸 지표로 동비율이 낮을수록 부채가 적으므로 채무구조가 건전하다고 본다.

12) 고정비율 ($\frac{\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times 100$)은 자기자본이 기계, 토지, 건물 등 장기간 자금이 둑이는 고정자산에 얼마만큼 투입되어 있는 가라는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나타낸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본다.

한 고정자산 비율이 높다는 것은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지속적 유효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된다.

나. 고용실태

1989년 6월 현재 횡성농공지구 13개 가동업체중 자료수집 가능한 10개업체의 고용현황은 <표 4-9>와 같다.

총고용인원 475명중 상시 종업원은 404명(85.5%) 임시 및 계절 취업자는 71명(14.9%)이다. 횡성군 출신자는 상시 종업원중 80.8%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68.1%보다 높다. 현지인중 농가 구원은 45.3%, 외지인은 61.7%가 비농가구원이고 전체적으로 농가 구원으로서 농공지구 취업자는 조사대상 취업자의 38.3%에 불과하다.

연령별 종업원의 분포는 30대가 38.6%, 20대가 36.9%, 40대가 16.6%의 순이고 이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자가 37.4%, 여자가 62.6%이다. 학력별 종업원 분포는 고졸 41.9%, 중졸 33.5%, 국졸 13.1%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현지인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28명(8.0%)에 불과하나 생산기능직은 250명(71.4%)으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반면 외지인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32.9%(24명), 기술직 12.3% 등으로 부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에 외지인이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지인의 경우 남자가 27.7%, 여자가 72.3%인데 비하여 외지인의 경우 남자는 75.3%, 여자는 24.7%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즉, 현지인 남자의 76.3%, 외지인 남자의 경우 74.6%가 고졸이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남자의 경우 19.6%, 외지인 남자는 32.7%가 관리사무직에 분포되어 있음으로 미루어보아 동일한 여건하에서 현지출신종업원은 외지출신보다 부가가치가 적은 직종에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용현황을 시계열로 비교하면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9 횡성 둑계 농공지구 10개업체 고용현황(1989. 6월)

상시 종업원 404명 총 종업원 475명

임시 종업원 51명

계절취업자 20명

구 분	합계		현지(군내)				외지				총계(명)					
	남(명)	%	여(명)	%	소계(명)	%	남(명)	%	여(명)	%	소계(명)	%	총계(명)	%		
연 령	10	0	0.0	10	4.2	10	3.1	1	1.6	1	6.7	2	2.6	12	3.0	
	20	35	39.3	85	35.7	120	36.7	19	30.6	10	66.7	29	37.7	149	36.9	
	30	39	48.8	93	39.1	132	40.4	23	37.1	1	6.7	24	31.2	156	38.6	
	40	12	13.5	42	17.6	54	16.5	12	19.4	1	6.7	13	16.9	67	16.6	
	50	3	3.4	8	3.4	11	3.4	7	11.3	2	13.3	9	11.7	20	5.0	
	6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89	100.0	238	100.0	327	100.0	62	100.0	15	100.0	77	100.0	404	100.0	
학 력	무국	0	0.0	1	0.4	1	0.3	0	0.0	0	0.0	0	0.0	1	0.2	
	학졸	6	6.5	46	19.2	52	15.7	0	0.0	1	6.7	1	1.4	53	13.1	
	중졸	16	17.2	104	43.5	120	36.1	15	25.4	1	6.7	16	21.6	136	33.5	
	고졸	58	62.4	84	35.1	142	42.8	18	30.5	10	66.7	28	37.8	170	41.9	
	전문	7	7.5	3	1.3	10	3.0	9	15.3	2	13.3	11	14.9	21	5.2	
	대학	6	6.5	1	0.4	7	2.1	17	28.8	1	6.7	18	24.3	25	6.2	
	이상															
가 구	농비	31	34.8	108	49.5	139	45.3	6	9.7	2	13.3	8	10.4	147	38.3	
	농가	58	65.2	110	50.5	168	54.7	56	90.3	13	86.7	69	89.6	237	61.7	
		89	100.0	218	100.0	307	100.0	62	100.0	15	100.0	77	100.0	384	100.0	
	결혼여부	미기혼	49	49.5	81	46.0	130	47.3	15	25.9	9	69.2	24	33.8	154	44.5
		50	50.5	95	54.0	145	52.7	43	74.1	4	30.8	47	66.2	192	55.5	
		99	100.0	176	100.0	275	100.0	58	100.0	13	100.0	71	100.0	346	100.0	
직 종	관리사무직	19	19.6	9	3.6	28	8.0	18	32.7	6	33.3	24	32.9	52	12.3	
	기술직	20	20.6	1	0.4	21	6.0	8	14.5	1	5.6	9	12.3	30	7.1	
	생산(기능)	46	47.4	204	80.6	250	71.4	27	49.1	11	61.1	38	52.1	288	68.1	
	단순노무직	12	12.4	39	15.4	51	14.6	2	3.6	0	0.0	2	2.7	53	12.5	
		97	100.0	253	100.0	350	100.0	55	100.0	18	100.0	73	100.0	423	100.0	
	하청(임가공)							80	55.9					63	44.1	
														143	100.0	

표 4-10 고용실태의 항목별 변화사항

연도		'87.6	'88.6	'89.6	비 고
항목					
연령	10 대	30.9 %	1.0 %	3.0 %	감소
	20 대	32.1	34.2	36.9	약간증가
	30 대	27.2	35.2	38.6	증가
	40 대	9.9	23.0	16.6	약간증가
	50 대	-	6.7	5.0	동일
학력	무 학	4.9 %	-	0.2 %	감소
	국 졸	9.8	26.8	13.1	약간증가
	중 졸	34.2	25.1	33.5	동일
	고 졸	43.9	35.9	41.9	동일
	전문대졸	6.1	7.4	5.2	동일
	대졸이상	1.2	4.7	6.2	증가
가구	농 가	67.1 %	38.2 %	38.3 %	감소
	비 농 가	32.9	61.8	61.7	증가
현지인취업		68.2 %	76.6 %	80.9 %	증가
비 (현지/총)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87년 대비 종업원 연령이 10대는 현격하게 줄어든 반면 20대와 30대는 약간씩 증가하고 농가의 점유비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농공지구가 설립 초기기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서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지인 고용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10대 종업원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20대, 30대 종업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농공지구가 설립된 후 어느정도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농가구원의 취업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농공지구가 농업과 동시에 병행되는 부업의 성격이 아닌 전업적 취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생산 및 매출실태

횡성목계 농공지구의 1988.1.1부터 1988.12.31까지 11개 가동업체¹³⁾의 생산 및 판매현황은 <표 4-11>과 같다.

11개업체의 '88년 생산액은 11,321백만원이고 매출액은 10,247백만원으로 생산재고액은 1,074백만원에 달하나 생산의 판매비는 약90.5%이다. 원자재 구입비용은 총 4,717백만원이고 인건비는 약 1,584백만원이다.

시험가동중인 사업체를 제외한 10개업체 매출액·총액 10,247백만원 중에서 역내(군내)판매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 바 목계 농공지구 입주업체는 모두 역외(군외)수출업체라 간주할 수 있다.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는 도내가 12.3%(1,257백만원), 도외가 56.1%(5,744백만원), 수출이 31.6%(3,241백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외 판매지역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바 목계농공지구 입주업체들은 서울 및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I, Ma, 자 3개업체로서 I, 자 2개업체는 생산량을 전량 수출하고 마 업체는 생산량의 약 30.0%를 수출하고 있다.

원부자재 구입비용은 시험가동중인 사업체를 제외하고 약 4,658백만원에 달한다. 구입지 분포는 군내가 1,562.4백만원(33.5%), 도내가 870.1백만원(18.7%), 도외가 1,573.6백만원(33.8%), 수입이 651.9백만원(14.0%)으로 구성되어 원부자재비용의 1/3 이상이 군내에 구속됨을 알 수 있다. 원부자재의 군내구입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목계농공지구 10개 가동업체중에서 농산물가동업체가 4개업체이고 이중 1개업체가 대기업의 분공장으로 전체 원부자재구입비용의 약 44.7%를 점하기 때문이다.

13) 생산 및 매출액 실태의 1989년 6월 말 자료를 구할 수 없어 1988.12.31을 기준으로 하였다. 1988.12.31 당시 바업체는 시험생산 준비중이었으며 사업체는 시험생산 아업체는 기계설비중이었다.

표 4-11 11개 가동업체 생산 및 판매현황(1988. 1. 1~'88. 12. 31)

위 체 명	가 동 기 동 일 수	생 산 품 목	생 산 액 (백 만 원) (A)	매 출 액 (백 만 원) (B)				생 산 재 고 액 (백 만 원) (A-B)	원 부 자 재 구 위 미 (백 만 원)				주 요 구 입 지	인 건 비 (백 만 원)			자 산 액 (백 만 원)	총 업 원 인 당 평 균				
				군 내	도 내	도 외	수 출		주 요 판 매 처 (A-B)	군 내	도 내	도 외	수 입	전 당 기 관 입 수 총 액 (A)	전 당 기 관 교 류 인 원 (B)	1 인 당 원 평 균 임 금 (천 원) (A/B)	자 산 액 (백 만 원)	생 산 액 (백 만 원)				
I	'87.1.5 292	사포렌슬	1,207 (10.7)	1,207 (100.0)			1,207	일본, 서독		756.6 (100.0)	60.9 (8.0)	60 (7.9)	635.7 (84.0)	일본	120	19	48	208	1,692	35.3 25.1		
IV	'84.12.1 295	알인식품	195 (1.7)	195 (100.0)		195 (100.0)		군남업체		49 (100.0)	24.5 (50.0)	9.8 (20.0)	14.7 (30.0)	월성 원주	72	6	27	222	660	24.4 7.2		
V	'87.9.2 294	음료수	300 (2.6)	165 (100.0)		165 (100.0)		서울	135	25 (100.0)	15 (60.0)	10 (40.0)	10 (40.0)	월성 서울	180	15	30	500	469	15.6 6.5		
VI	'87.9.28 240	노리아미드 제품	721 (6.4)	90 (100.0)		90 (100.0)		밀양 의정부	630	387 (100.0)		387 (100.0)		서용	60	5	20	250	595	29.8 36		
VII	'88.1.1 298	호프빛김치	4,827 (42.6)	4,827 (100.0)		365 (7.6)	4,462 (92.4)	서울		2,081.9 (100.0)	1,422 (68.3)	624.5 (30.0)	35.4 (1.7)	월성 원주	420	35	81	432	66,601	822.2 59.6		
나	'87.10.5 300	천기승제품	90 (0.8)	70 (100.0)		70 (10.0)	63 (90.0)	서울	20	40 (100.0)	2 (5.0)	38 (95.0)		서용 원주	36	3	11	273	250	22.7 8.2		
나	'84.3.10 245	방수시멘트	546 (4.8)	491 (100.0)	5	240 (1.0)	246 (48.9)	서울 순천	55	263 (100.0)	132 (50.2)	131 (49.8)		임원 양평	20	2	8	250	899	112.4 68.3		
라	'84.1.4 295	복성식품	224 (2.0)	118 (100.0)		118 (100.0)		서울	106	93 (100.0)	40 (43.0)	53 (57.0)		광장 월성	132	11	48	229	502	10.5 4.7		
마	'88.1.1 300	분수제	1,500 (13.2)	1,500 (100.0)		450 (30.0)	1,000 (40.0)	450 (30.0)	서울 인천		162.5 (100.0)	48.8 (30.0)	97.5 (61.0)	16.2 (10.0)	서용 원주	160	14	58	211	500	8.6 25.9	
사	'88.8.15 90	정밀주상기	128 (1.1)	(시험기동)					128	(59)				서용	312	26	92	283	850	- - -		
라	'88.7.21 130	기수기방	1,584 (14.0)	1,584 (100.0)			1,584 (100.0)	미국		800 (100.0)		800 (100.0)		서용	72	12	42	286	550	13.1 37.7		
제			11,321 (100.0)	10,247 (100.0)	5 (0.0)	1,257 (12.3)	5,744 (56.1)	3,241 (31.6)		1,074	4,658 ^{**} (100.0)	1,562.4 (33.5)	870.1 (18.7)	1,572.6 (33.6)	651.9 (14.0)		1,584 ^{**} (100.0)	139	465 (467)	286.5 (277)	109.5 (107)	27.9 (27.7)

* *) 인건비는 원 일당 임금총액에서 가동개원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음.

**) 서원기동제 원부자재 구입비 59백만원은 제외되었음.

() %

4개 농산물 가공업체 (IV, V, VII, 라업체)의 원부자재 구입비용의
군내지출비는 각각 50.0%, 60.0%, 68.3%, 43.0%로서 이들 농산물 가공
업체의 원부자재 비용중 군내 원부자재 구입비는 66.8%에 달하는데 비
해 비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군내 원부자재 구입비는 이들 업체 원
부자재 비용중에서 2.5%에 불과하다. 이것은 횡성군의 지역 농업구
조가 타 지역과는 달리 이들 농산물 가공업체에게 원료확보의 용
이성 (예를 들어 호프, 포도 등의 지역특산물)이라는 유리한 입지조
건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농산물 가공
업체의 횡성군내 원부자재 귀속비율이 2.5%로서 농산물 가공업체의 군
내귀속비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횡성군의 특수한 여건에
의하여 농산물 가공업체의 군내귀속비가 높다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농
산물가공업체의 경우 해당지역경제와의 후방연쇄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11개업체의 월평균 고용인원은 465명이고 1인당 월평균 임금
은 약 288.5 천원으로 1인당 연평균 약 3,462 천원의 임금소득이 창출되
는 것으로 추계된다. '88년 1년간 인건비 지출은 약 1,584백만원인데
지역주민 고용비율이 약 80.9% <표 4-9 참조>¹⁴⁾ 임을 고려할 때 '88
년 인건비의 횡성지역내의 귀속액은 약 1,281.5백만원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88년 1년간 농공지구로 인한 횡성군내의 원부자재비 및 인
건비의 지역내 귀속액은 약 2,843.9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총생
산액 11,321백만원의 25.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¹⁵⁾

14) 각 업체별 월평균 현지 주민 고용비율을 얻지 못하여 10개업체 평
균치를 이용하였다.

15) 원부자재의 지역내 귀속액에는 시험생산기간에 있었던 자업체의 것
은 빼져있다.

3. 입주업체 종업원의 실태분석

가. 조사대상 종업원

1989년 6월 현재 횡성목계농공지구 13개 가동업체의 총 고용인원 594명 중에서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인 업체에는 30명, 50명 미만인 업체에는 20명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종업원들에게 조사표를 배부하여 종업원 스스로 작성케 한 후 이를 회수하였다. 응답 종업원은 전체종업원의 약 37%에 달하는 220명이었고 회수된 조사표는 비교적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나 소득이나 임금 등 수입에 관한 것은 많은 부분에서 기록되지 않아서 집계과정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었다.

응답 종업원을 연령별로 나누어보면 20대가 30.0%, 30대가 29.0%, 40대가 22.6%의 순이었고 이를 성별로 나누면 남자 25.8%, 여자가 74.2%이다 (표 4-12 참조). 응답종업원의 직종별 분포는 (표 4-13)과 같다.

응답종업원의 취업전 거주지는 횡성군내 현지 농가가 52.7%, 현지 비농가가 18.9%, 중소도시가 11.7%의 순이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 보면 사무직 및 기술직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현지인 비율은 약 5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숙련공 및 단순노동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

표 4-12 응답 종업원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은 %

성별 \ 연령	10 대	20	30	40	50	60 대 이상	계
남	5 (8.9)	28 (50.0)	15 (20.8)	4 (7.1)	3 (5.4)	1 (1.8)	56 (25.8)
여	8 (5.0)	37 (23.0)	48 (29.8)	45 (28.0)	20 (12.4)	3 (1.9)	161 (74.2)
계	13 (6.0)	65 (30.0)	63 (29.0)	49 (22.6)	23 (10.6)	4 (1.8)	217 (100.0)

표 4-13 종업원 성별 직종 분포

단위: 명, ()은 %

성별 \ 직종	사무직	기술직	숙련공	단순노동	계
남	8 (14.0)	24 (42.1)	6 (10.5)	19 (33.3)	57 (25.9)
여	10 (6.1)	13 (8.0)	25 (15.3)	115 (70.6)	163 (74.1)
계	18 (8.2)	37 (16.8)	31 (14.1)	134 (60.9)	220 (100.0)

은 직종에는 현지인 취업비율이 약 80 %이다. 그리고 어느정도의 노동숙련을 요구하는 숙련공의 경우 현지 출신은 84.8 %이나 현지농가출신은 33.3 %로서 현지 비농가출신의 51.5 %의 64.7 %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동의 경우는 현지농가출신이 63.4 %로서 현지비농가의 13.4 %에 비해 472.2 %에 달한다. 이는 숙련을 요구하는 직종일수록 외지인의 취업비율이 높고 현지인이라 하더라도 비농가의 취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농공지구의 취업이 농업과 병행하는 부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는 그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표 4-14)。

응답종업원의 현재 거주지역은 횡성군내가 93.1 %, 횡성군외가 6.9 %로 횡성군내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횡성군내 거주자 중에는 횡성읍이 62.6 %, 우천면 거주자가 11.1 %이다.

한편, 직종별 현거주지는 사무·기술직 등 고부가가치 직종일수록 외지거주자가 많으나 횡성군내 거주비율이 80 % 이상이라는 것은 앞의 취업 전 거주지와 비교하여 볼 때 횡성농공지구 취업으로 인하여 외지인의 현지정착이 어느정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15). 종업원의 거주지형태는 자택이 75.7 %, 월세 또는 전세가 19.3 %, 기숙사가 5.0 %이다.

표 4-14 직종별 취업전 거주지

단위: 명, ()은 %

거주지 직종	현지농가 현지농가	현 자	타 군	타 군	중 소	서울및 도시 수도권	기 타 대도시	계
사무직	6 (33.3)	3 (16.7)	1 (5.6)	0	4 (22.2)	4 (22.2)	0	18 (8.1)
기술직	15 (40.5)	4 (10.8)	4 (10.8)	1 (2.7)	5 (13.5)	8 (21.6)	0	37 (16.7)
숙련공	11 (33.3)	17 (51.5)	0	1 (3.0)	2 (6.1)	0	2 (6.1)	33 (14.9)
단순노동	85 (63.4)	18 (13.4)	5 (3.7)	6 (4.5)	15 (11.2)	5 (3.7)	0	134 (60.4)
계	117 (52.7)	42 (18.9)	10 (4.5)	8 (3.6)	26 (11.7)	17 (7.7)	2 (0.9)	222 (100.0)

표 4-15 직종별 현거주지역

단위: 명, ()은 %

직종	횡성군			소계	원주시	원주군	계
	횡성읍	우천면	기타				
사무직	8 (61.5)	1 (7.7)	4 (30.8)	13 (81.3)	2 (12.5)	1 (6.3)	16 (7.8)
기술직	17 (65.4)	1 (3.8)	8 (30.8)	26 (81.3)	6 (18.8)	0	32 (15.7)
숙련공	19 (65.5)	6 (20.7)	4 (13.8)	29 (96.7)	1 (3.3)	0	30 (14.7)
단순노동	75 (61.5)	13 (10.7)	34 (27.9)	122 (96.8)	3 (2.4)	1 (0.8)	126 (61.8)
계	119 (62.6)	21 (11.1)	50 (26.3)	190 (93.1)	12 (5.9)	2 (1.0)	204 (100.0)

표 4-16 직종별 거주지 형태

단위: 명, ()은%

직종	거주지 형태		월세 또는 전세	계
	자기 집	기숙사		
사무직	9 (52.9)	1 (5.9)	7 (41.2)	17 (7.8)
기술직	20 (54.1)	3 (8.1)	14 (37.8)	37 (17.0)
숙련공	25 (78.1)	1 (3.1)	6 (18.8)	32 (14.7)
단순노동	111 (84.1)	6 (4.5)	15 (11.4)	132 (60.6)
계	165 (75.7)	11 (5.0)	42 (19.3)	218 (100.0)

나. 취업실태 분석

종업원의 직종별 학력은 전체의 60 %이상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60.6 %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직은 92.6 %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표 4-17)。

종업원의 직종별 취업전 직업은 농사일이 39.4 %, 공장종업원 13.9 % 학생 10.6 % 등의 순이다(표 4-18). 단순노무직의 경우 취업전 직업이 농업이라 응답한 비율이 50.8 %, 기타가 16.2 %, 공장종업원 13.1 %의 순이고, 숙련공의 경우 기타가 31.3 %, 농업 28.1 %, 회사원 12.5 %, 학생 12.5 %, 기술직의 경우 공장종업원 27.8 %, 농업 22.2 %, 회사원 22.0 %, 사무직의 경우 회사원 38.9 %, 학생 33.3 %의 순이다. 한편 취업전 농사일에 참여한 종업원은 124명으로 응답되었는데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86명(69.4 %), 숙련공 18명(14.5 %), 기술직 16명(12.9 %), 사무직 4명(3.2 %)의 순으로 단순노무직이 전체 농사참여 종업원의 70 %에 달한다(표 4-19). 농사일 참여정도를 물어본 결과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약 괴한수가 「경영주로서 농사일을 책임지고 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4-17 직종별 학력

단위: 명, ()은%

직종	학력	무학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계
	무학	국 졸	중 졸	고 졸	대 졸	계	
사무직	0	2 (28.6)	0	3 (42.8)	2 (28.6)	7 (3.7)	
기술직	2 (2.9)	3 (4.4)	8 (11.8)	49 (72.1)	6 (8.8)	68 (35.8)	
숙련공	3 (6.8)	7 (15.9)	8 (18.2)	22 (50.0)	4 (9.1)	44 (23.2)	
단순노무직	11 (15.5)	21 (29.6)	11 (15.5)	26 (36.6)	2 (2.8)	71 (37.4)	
계	16 (8.4)	33 (17.4)	27 (14.2)	100 (52.6)	14 (7.4)	190 (100.0)	

표 4-18 직종별 취업전 직업

단위: 명, (%)

직종	취업전 취업	학생	공장	농업	상업	노동	공무원	회사원	기타	계
	취업전 취업	종업원	공장	농업	상업	노동	공무원	회사원	기타	계
사무직	6 (33.3)	0	2 (11.1)	1 (5.6)	0	2 (11.1)	7 (38.9)	0	18 (8.3)	
기술직	3 (8.3)	10 (27.8)	8 (22.2)	0	2 (5.6)	1 (2.8)	8 (22.2)	4 (11.1)	36 (16.7)	
숙련공	4 (12.5)	3 (9.4)	9 (28.1)	1 (3.1)	0	1 (3.1)	4 (12.5)	10 (31.3)	32 (14.8)	
단순노동	10 (7.7)	17 (13.1)	66 (50.8)	4 (3.1)	5 (3.8)	0	7 (5.4)	21 (16.2)	130 (60.2)	
계	23 (10.6)	30 (13.9)	85 (39.4)	6 (2.8)	7 (3.2)	4 (1.9)	26 (12.0)	35 (16.2)	216 (100.0)	

표 4-19 직종별 취업전 농사일 정도

단위: 명, ()은 %

직종	농사일	경영주로서 농사일을 책임지고 하였다.	농번기 등에 보조적으로 종사하였다.	후계 자로서 농사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계
사무직	1 (25.0)	3 (75.0)	0	4 (3.2)	
기술직	4 (25.0)	11 (68.8)	1 (6.3)	16 (12.9)	
숙련공	6 (44.4)	12 (66.7)	0	18 (14.5)	
단순노동	41 (47.7)	41 (47.7)	4 (4.7)	86 (69.4)	
계	52 (41.9)	67 (54.0)	5 (4.0)	124 (100.0)	

여기서 농공지구 취업전 직종은 사무직의 경우 회사원 및 학생출신이 72.7%로써 암도적이고 기술직의 경우 공장종업원 및 회사원이 50.0%, 단순노동의 경우 농업이 50.8%로써 취업전 직업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숙련공의 경우 현지출신이 84.8%에 달하나 취업전 직종이 기타가 31.3%, 농업이 28.1%인데 비하여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현지출신이 76.9%로 상대적으로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취업전 직종이 농업이 50.8%, 기타가 16.2%로써 상호비대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농업과 대체관계가 어느정도 있으나 숙련공의 경우는 농업과의 대체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숙련공의 경우 현지 농가출신은 33.3%, 단순노무직의 경우 현지 농가출신은 63.4%임). 따라서 현지 농가구원의 농공지구 고부가직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업의식교육 및 기술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기능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직이하 종업원의 기술습득처는 회사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배웠다가 78.1%로 가장 많았고 타회사에 재직시

가 20.7%로 나타났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표 4-20 참조).

종업원의 직종별 취업방법은 (표 4-21)과 같다. 전체 215명 응답자 가운데 친지소개가 94명 (43.7%)으로 가장 많고 기타가 48명 (22.3%), 신문이나 벽보모집이 46명 (21.4%), 부탁지도자 소개가

표 4-20 직종별 종업원 기술습득처

단위: 명, ()은 %

직종	항 목	이 사회의 견습공으로	다른회사의 견습공으로	직업훈련소	기술학원	계
기술직	15 (50.0)	14 (46.7)	0 -	1 (3.3)	30 (17.8)	
숙련직	24 (88.9)	3 (11.1)	0 -	0 -	27 (16.0)	
노무직	93 (83.0)	18 (16.1)	1 (0.9)	0 -	112 (66.3)	
계	132 (78.1)	35 (20.7)	1 (0.6)	1 (0.6)	169 (100.0)	

표 4-21 직종별 취업방법

단위: 명, ()은 %

직종	취업방법	신문이나 벽보 모집공고	친지 소개	부탁 지도자 소개	학 교 추 천	공공기관 추 천	기 타	계
사무직	5 (29.4)	7 (41.2)	0	1 (5.9)	1 (5.9)	3 (17.6)	17 (7.9)	
기술직	10 (27.0)	13 (35.1)	3 (8.1)	0	3 (8.1)	8 (21.6)	37 (17.2)	
숙련공	11 (35.5)	12 (38.7)	3 (9.7)	1 (3.2)	1 (3.2)	3 (9.7)	31 (14.4)	
단순노동	20 (15.4)	62 (47.7)	11 (8.5)	2 (1.5)	1 (0.8)	34 (26.2)	130 (60.5)	
계	46 (21.4)	94 (43.7)	17 (7.9)	4 (1.9)	6 (2.8)	48 (22.3)	215 (100.0)	

17명 (7.9%)의 순이다. 여기서 농공지구의 취업방법이 친지소개가 많다는 것은 농공지구에 이미 취직하고 있는 종업원들로부터 농공지구취업을 권유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공공기관의 추천이 6명으로 2.8%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공지구로의 지역주민 취업에 지방자치단체인 현지군의 홍보 및 취업알선 역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친지소개의 비율은 단순노무직이 47.7%, 사무직이 41.2%로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종에서 높고 공공기관 추천은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에서 가장 많다. 그리고 학교추천이 4명으로 1.9%에 그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농공지구가 지역의 젊은 유효노동력에는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종업원 출신지별 취업방법은 〈표 4-22〉와 같은데 신문광고 및 친지소개로 인하여 농공지구에 취업한 경우는 횡성군 외지출신이 많았고

표 4-22 출신지별 취업방법

단위: 명, ()은%

출신지 \ 취업방법		신문이나 벽보모집 공 고	친 지 소 개	부 락 지도자 소 개	학 교 추 천	공공기관 추 천	기 타	계
횡 성 군	농 가	3 (3.4)	34 (38.6)	10 (11.4)	3 (3.4)	10 (11.4)	28 (31.8)	88 (80.7)
	비농가	0	14 (66.7)	1 (4.8)	1 (4.8)	1 (4.8)	4 (19.0)	21 (19.3)
내	소 계	3 (2.8)	48 (44.0)	11 (10.1)	4 (3.7)	11 (10.1)	32 (29.4)	109 (56.8)
횡 성 군	농 가	1 (2.9)	17 (50.0)	3 (8.8)	1 (2.9)	2 (5.9)	10 (29.4)	34 (40.0)
	비농가	7 (14.3)	27 (55.1)	3 (6.1)	1 (2.0)	2 (4.1)	9 (18.4)	49 (60.0)
외	소 계	8 (9.4)	44 (51.8)	6 (7.1)	2 (3.4)	4 (4.7)	19 (22.4)	85 (43.2)
	계	11 (5.7)	92 (47.9)	17 (8.9)	6 (3.1)	15 (7.8)	51 (26.6)	192 (100.0)

공공기관 및 학교추천 그리고 부락지도자 등의 공식경로를 따라 농공지구에 취업한 경우는 횡성주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횡성군 내외의 출신에 관계없이 농가의 경우가 비농가의 경우보다 공식 경로를 통하여 농공지구에 취업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공식경로를 통한 지역주민의 농공지구로의 취업대상이 주로 농가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업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6개월 이하가 44.7%, 7~12개월이 30.0%로써 전종업원의 2/3이상이 근무연수가 1년이하이다 (표 4-23 참조). 이는 횡성 목계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본격 가동연도가 1987년도임을 감안하더라도 7개월 이상 근무자가 전체의 55.3%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공지구에의 취업의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기술직의 55.0%가 6개월 이하 근무연수를 보인다는 것은 농어촌지역에로의 기술자 유치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6개월이하 근무자가 41.7%이나 7~12개월 근무자가 47.2%로써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본격 가동시기가 '87년

표 4-23 직종별 근무기간

단위: 명수, ()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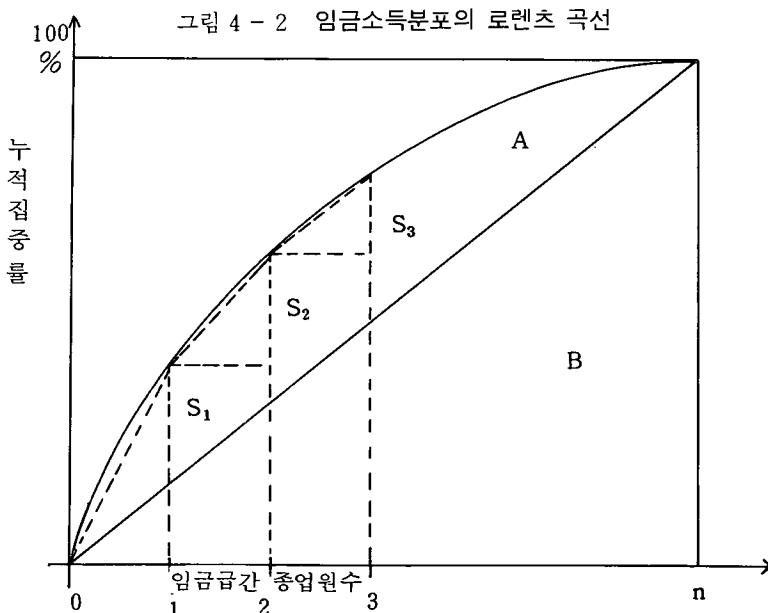
직종 근무기간	6개월 이하	7 ~ 12개월	13 ~ 18개월	19 ~ 24개월	25개월 이상	합계
관리사무직	8 (28.6)	6 (21.4)	6 (21.4)	2 (7.1)	6 (21.4)	28 (14.2)
기술직	11 (55.0)	5 (25.0)	1 (5.0)	1 (5.0)	2 (10.0)	20 (10.2)
숙련공	54 (47.8)	31 (27.4)	13 (11.5)	4 (3.5)	11 (9.7)	113 (57.4)
단순노무직	15 (41.7)	17 (47.2)	1 (2.8)	2 (5.6)	1 (2.8)	36 (18.3)
합계	88 (44.7)	59 (30.0)	21 (10.7)	9 (4.6)	18 (9.1)	197 (100.0)

도 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안정된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업원의 직종별 임금분포는 〈표 4-24〉와 같다. 월 평균임금은 200.7 천원인데 월 임금이 15 만원이상 17.5 만원미만의 종업원은 76 명으로 전체의 38.2 %를 차지하고 있고 15 만원 미만이 12.6 %, 17.5 만원이상 20 만원 미만이 13.6 %의 순으로 월 20 만원 (25 만원)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종업원은 전체의 64.3 % (82.9 %)이다.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월 20 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종업원이 83.6 %, 숙련공의 경우 52.9 %, 기술직의 경우 24.2 %, 사무직의 경우는 31.2 %으로써 직종간의 임금불균형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 평균 25 만원 미만의 소득은 각각 95.7 %, 94.1 %, 36.4 %, 62.5 %로써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이상이 월 평균 25 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성군 현지출신자가 각각 84.8 %, 76.9 %를 점하고 있는 단순노무직과 숙련공의 경우 월소득 25 만원 이하가 95.7 %, 94.1 %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현지주민의 부가가치, 즉 임금소득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종별 임금분포의 불균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니 (Gini) 지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지니지수는 로렌츠 (Lorenz) 곡선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는 <그림 4-2>에서 면적 B에 대한 면적 A의 비율로 정의된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일 경우는 완전균등분포선으로 지니지수는 0이 되고 반대로 완전불균등 분포일 때는 지수값이 1이 됨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의 정의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¹⁶⁾

$$G = \frac{(1+n)-2 \sum_{i=1}^n iS_i}{n}$$

-
- 16) 지니지수는 <그림 4-2>의 로렌츠곡선을 다수의 직선부분으로 분할
• 접근시켜 구할 수 있다.

$$A + B = \frac{1}{2}S_1 + (S_1 + \frac{1}{2}S_2) + \dots + [(S_1 + S_2 + \dots +$$

$$S_{n-1}) + \frac{1}{2}S_n]$$

$$= \frac{1}{2} [S_1 + S_2 + \dots + S_n] + \sum_{i=1}^n (n-i) S_i$$

$$= \frac{1}{2} \sum_{i=1}^n S_i + n \sum_{i=1}^n S_i - \sum_{i=1}^n i S_i$$

여기서 $\sum_{i=1}^n S_i = 1$, $B = \frac{1}{2}n$ 이므로

$$G = \frac{A}{B} = \frac{\left(\frac{1}{2} + n - \sum_{i=1}^n i S_i \right) - \frac{1}{2}n}{\frac{1}{2}n} = \frac{\frac{1}{2}(1+n) - \sum_{i=1}^n i S_i}{\frac{1}{2}n}$$

$$= \frac{(1+n) - 2 \sum_{i=1}^n i S_i}{n}$$

표 4-24 직종별 임금 분포

단위: 명, ()은%

직 종	임금(천원)	~150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50	400	계
		미만	~175	~200	~225	~250	~275	~300	~350	~400	이상	
사무직	0	2 (12.5)	3 (18.8)	3 (18.8)	2 (12.5)	2 (12.5)	0	2 (12.5)	0	2 (12.5)	16 (8.0)	
기술직	2 (6.1)	4 (12.1)	2 (6.1)	3 (9.1)	1 (3.0)	4 (12.1)	3 (9.1)	5 (15.2)	3 (9.1)	6 (18.2)	33 (16.6)	
숙련공	2 (5.9)	11 (32.4)	5 (14.7)	9 (26.5)	5 (14.7)	1 (2.9)	0	1 (2.9)	0	0	34 (17.1)	
단순노무직	21 (18.1)	59 (50.9)	17 (14.7)	7 (6.0)	7 (6.0)	3 (2.6)	1 (0.9)	1 (0.9)	0	0	116 (58.3)	
계	25 (12.6)	76 (38.2)	27 (13.6)	22 (11.1)	15 (7.5)	10 (5.0)	4 (2.0)	9 (4.5)	3 (1.5)	8 (4.0)	199 (100.0)	

여기서 n 은 임금급간의 수, S_i 는 i 임금급간이 전체종업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종업원이 i 임금급간에 놓여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종업원을 10개의 임금급간으로 나누어 구분하면 $N = 10$ 이 되고 $S_1 = 12.6\%$, $S_2 = 38.2\%$, $S_3 = 13.6\%$, $S_{10} = 4.0\%$ 가 되어 전체 응답종업원의 월평균 임금소득의 지니지수는 약 0.37이 됨을 알 수 있다.

직종별 지니지수는 사무직이 0.06, 기술직이 0.13, 숙련공이 0.39, 단순노무직이 0.55로서 사무직, 기술직 등 고부가가치 직종일수록 임금의 균등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무직 및 기술직 등이 숙련 또는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비교적 동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농공지구로 취업 유인하기 위한 필요최저임금이 타 직종에 비해 높고 또한 임금에서 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직종별 가계비 지역내 지출비와 소득별 가계비 지역내 지출비는 각각 <표 4-25>, <표 4-26>과 같다. 전체의 69.5%가 가계비

표 4-25 직종별 가계비 지역내 지출비

단위: 명, (%)

직종	지출비 (%)					계
	~50%	50~70	70~90	90%~이상		
사무직	1 (7.1)	0	5 (35.7)	8 (57.1)	14 (9.9)	
기술직	3 (13.0)	2 (8.7)	6 (20.1)	12 (52.2)	23 (16.3)	
숙련공	3 (11.1)	2 (7.4)	1 (3.7)	21 (77.8)	27 (19.1)	
단순노동	4 (5.2)	4 (5.2)	12 (15.6)	57 (74.0)	77 (54.6)	
계	11 (7.8)	8 (5.7)	24 (17.0)	98 (69.5)	141 (100.0)	

표 4-26 총 월 소득별 가계비 지역내 지출비

지출비 (%)		~ 50 %	50 ~ 70	70 ~ 90	90 % 이상~	단위: 명, ()은 %
소득(천원)		미 만	70	90	이상~	계
~ 200 이하		5 (6.2)	4 (4.9)	13 (16.1)	59 (72.8)	81 (58.3)
200 ~ 300		3 (7.0)	3 (7.0)	6 (14.0)	31 (72.1)	43 (30.9)
300 이 상		3 (20.0)	1 (6.7)	4 (26.7)	7 (46.7)	15 (10.8)
계		11 (7.9)	8 (5.8)	23 (16.5)	97 (69.8)	139 (100.0)

의 90 % 이상을 횡성군내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고부가직종일수록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지역내 가계비 지출비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고부가직종에 현지주민 취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다. 종업원의 농공지구 취업에 대한 의견

한편 근무기간별 직장만족도는 〈표 4-27〉과 같은데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가 37명으로 17.9 %에 불과하다. 기간별로는 25개월 이상 장기근속자의 만족(33.3 %)이 가장 높고, 19 ~ 24개월은 25.0 %, 6개월이하는 23.8 %, 7 ~ 12개월은 9.2 %의 순이다.

여기서 6개월이하 근무종업원을 제외하고는 장기근속자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만족을 하나 불만족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개월이하 근무 종업원의 경우 직장의 만족이 13 ~ 18개월 근무 종업원의 경우보다 높은데 이것은 농공지구 취업의 초창기에는 만족 또는 불만족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고 다만 농공지구 취업이라는 새로운 직장에의 적응 및 기대감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직종별 직장만족은 〈표 4-28〉과 같은데 사무직 및 기술직 등 부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일수록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표 4-27 근무기간별 직장만족도

단위: 명, ()은 %

근무기간 \ 만족도	만 족	보 통	불 만	계
25 개 월 이 상	2 (33.3)	1 (16.7)	3 (50.0)	6 (2.9)
19 ~ 24 개월	2 (25.0)	6 (75.0)	0	8 (3.9)
13 ~ 18 개월	7 (18.9)	24 (64.9)	6 (16.2)	37 (17.9)
7 ~ 12 개월	7 (9.2)	57 (75.0)	12 (15.8)	76 (36.7)
6 개 월 이 하	19 (23.8)	55 (68.8)	6 (7.5)	80 (38.6)
계	37 (17.9)	143 (69.1)	27 (13.0)	207 (100.0)

표 4-28 직종별 직장만족도

단위: 명, ()은 %

직 종 \ 만족도	만 족	보 통	불 만	계
사 무 직	5 (29.4)	10 (58.8)	2 (11.8)	17 (8.3)
기 술 직	10 (27.8)	20 (55.6)	6 (16.7)	36 (17.6)
숙련 공	6 (20.0)	23 (76.7)	1 (3.3)	30 (14.6)
단순 노동	15 (12.3)	90 (73.8)	17 (13.9)	122 (59.5)
계	36 (17.6)	143 (69.8)	26 (12.7)	205 (100.0)

나타났는데 불만은 기술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공지구의 취업안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표 4-29〉와 같이 응답되었다.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가 72명 (35.6%)인데 비하여 ‘안정성이 없다’는 39명 (19.3%)이고 ‘모르겠다’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50.0%가 안정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단순노무직은 32.5%에 불과함으로써 고부가직종일수록 안정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술직보다 숙련공이 농공지구 취업의 안정성이 더 있다고 응답한 것인데 이는 직종별 타공장으로의 이동희망 여부에서도 알 수 있다.

타공장으로의 이동희망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30〉과 같다. 이동여부에서 ‘계속취업희망’은 86명으로 전체 45.5%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이동을 희망한다’가 41명으로 29.7%를 점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의 경우는 계속 취업의사가 매우 높은데 비해 기술직은 40.6%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이동을 희망한다라는 응답에 기술직이 31.3%로써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으로써 기술직의 경우 농공지구 취업에 강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표 4-29 직종별 농공지구 취업안정성 여부

단위 : 명, ()은 %

직종	취업안정성	있 다	없 다	모르겠다	계
사 무 직		7 (50.0)	4 (28.6)	3 (21.4)	14 (6.9)
기 술 직		13 (37.1)	8 (22.9)	14 (40.0)	35 (17.3)
숙 련 공		12 (40.0)	3 (10.0)	15 (50.0)	30 (14.9)
단 순 노 무 직		40 (32.5)	24 (19.5)	59 (48.0)	123 (60.9)
계		72 (35.6)	39 (19.3)	91 (45.0)	202 (100.0)

표 4-30 직종별 타공장으로의 이동 희망 여부

단위: 명, ()은 %

직종	이유	계속 취업 희망	기회가 있으면 이동 희망	모르겠다	계
사무직		12 (80.0)	1 (6.7)	2 (13.3)	15 (7.9)
기술직		13 (40.6)	10 (31.3)	9 (28.1)	32 (16.9)
숙련공		13 (50.0)	5 (19.2)	8 (30.8)	26 (13.8)
단순노무직		48 (41.4)	25 (21.6)	43 (37.1)	116 (61.4)
계		86 (45.5)	41 (21.7)	62 (32.8)	189 (100.0)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직종 가운데 기술직의 임시고용비율이 타 직종보다 높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표 4-31 참조>. 기술직의 경우 타직종과는 달리 생산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기술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지역업체보다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노동력을 기술직으로 고용하여 사내 직업훈련과정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직의 경우 타직종과 달리 임시직 고용비율이 높고 나아가 기술직의 불만사항 또한 불안정한 취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타직종의 경우 낮은임금을 불만의 우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기술직의 경우는 불안정한 취업을 우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출신지별 취업불만점은 <표 4-33>과 같다.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두 '낮은 임금'을 불만점으로 가장 많이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직업', '근무시간 문제'의 순이다.

표 4-31 직종별 취업 형태

단위: 명, ()은%

직종	취업 형태		계
	상근직	임시직	
사무직	16 (94.1)	1 (5.9)	17 (8.3)
기술직	29 (80.6)	7 (19.4)	36 (17.5)
숙련공	28 (84.8)	5 (15.2)	33 (16.0)
단순노동	60 (50.0)	60 (50.0)	120 (58.3)
계	133 (64.6)	73 (35.4)	206 (100.0)

표 4-32 직종별 취업 불만점

단위: 명, ()은%

직종	분간사항	취업 불만점							계
		불안정한 임금	낮은 환경	작업 환경	근무시간 문제	비 인격적 대우	기타		
사무직	3 (16.7)	8 (44.4)	1 (5.6)	4 (22.2)	1 (5.6)	1 (5.6)	1 (5.6)	18 (10.8)	
기술직	9 (45.0)	4 (20.0)	3 (15.0)	2 (10.0)	1 (5.0)	1 (6.0)	1 (6.0)	20 (12.0)	
숙련공	23 (23.5)	61 (62.3)	5 (5.1)	4 (4.1)	4 (4.1)	1 (4.0)	1 (4.0)	98 (58.7)	
단순노무직	5 (16.1)	25 (80.7)	0 -	1 (3.2)	0 -	0 -	0 -	31 (18.9)	
계	40 (24.0)	98 (58.7)	9 (5.4)	11 (6.6)	6 (3.6)	3 (1.8)	3 (1.8)	107 (100.0)	

표 4-33 출신지별 취업불만점

출신지		단위: 명, () 은 %						
		항목	불안정한 직업	낮은 임금	작업 환경	근무시간 문제	비인격적 대우	기타
횡성군내	농가	26 (22.0)	58 (49.2)	9 (7.6)	14 (11.9)	9 (7.6)	2 (1.7)	118 (79.7)
	비농가	8 (26.7)	11 (36.7)	3 (10.0)	5 (16.7)	2 (6.7)	1 (3.3)	30 (20.3)
	소계	34 (23.0)	69 (46.6)	12 (8.1)	19 (12.8)	11 (7.4)	3 (2.0)	148 (56.5)
횡성군외	농가	7 (15.9)	18 (40.9)	3 (6.8)	8 (18.2)	5 (11.4)	3 (6.8)	44 (38.6)
	비농가	18 (25.7)	27 (38.6)	7 (10.0)	12 (17.1)	3 (4.3)	3 (4.3)	70 (61.4)
	소계	25 (21.9)	45 (39.5)	10 (8.8)	20 (17.5)	8 (7.9)	6 (5.3)	114 (43.5)
계		59 (22.5)	114 (43.5)	22 (8.4)	39 (14.9)	19 (7.3)	9 (3.4)	262*) (100.0)

*) 중복응답 포함하였음.

횡성군내 출신 종업원이 불만점으로 낮은 임금을 나타내는 비율이 평균 46.6 %인데 비하여 군외 출신들은 평균 39.5 %이고, 횡성군내 중에서도 농가출신들의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은 49.2 %인데 비하여 비농가 출신들은 36.7 %로써 횡성군 출신들이 타지역 출신 종업원보다 낮은 임금을 불만으로 더 많이 나타낼 뿐만 아니라 횡성군 중에서도 농가출신이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횡성군내 출신종업원이 횡성군외 출신종업원보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직종에 취업함으로써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횡성군내 출신종에서 비농가 보다는 농가출신 종업원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적은 직종에 근무함으로써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불안정한 직업’에 대해서도 횡성군내 출신자 응답비율이 23.0 %로 횡성군외 출신자 21.9 %보다 많은데 이는 타지출신 종업원들이 횡성군출신 종업원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종에 취입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출신지역과는 관계없이 비농가 출신 종업원들이 농가출신 종업원들보다 더 많이 ‘불안정한 직업’을 불만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농가 출신 종업원들이 농가출신보다 고부가가치 직종에 고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외취업 경험과 직장적응 능력이 농가출신보다 많은 바 직장선택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즉 타 업체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농가출신들보다 많기 때문에 초창기 농공지구 취업이 타 직장에 비하여 그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작업환경’ 불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비인간적 대우’를 불만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위의 ‘불안정한 직업’의 그것과는 정반대 논리로서 외지인 특히 비농가 출신종업원들이 직장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뜻한다. 근무시간문제는 외지인들이 더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농공지구에 취업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대안을 물어 본 결과 ‘집에서 농사를 한다’(32.8 %), ‘당지역에서 농외취업을 한다’(30.8 %),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한다’(20.7 %)의 순이다. 농공지구가 조성됨으로써 횡성군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은 최소한 ‘타지역에서 직장을 구한다’와 ‘당지역에서 농외취업을 한다’를 합친 종업원의 약 51.5 %로 응답됨을 알 수 있다.

기술직의 경우는 ‘도시로 가서 직업을 구한다’가 가장 많은 39.4 %를 점하고 있는데 비해 숙련공의 경우는 ‘당지역에서 농외취업을 한다’가 가장 많다(35.7 %).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직의 경우는 외지인이 많고 숙련공의 경우는 현지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하여 숙련공으로 승진하였기 때문에 숙련공의 경우 기술직보다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 노무직의 경우는 농공지구가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41.8 %가 집에서

표 4-34 직종별 농공지구 비취업시 예상되는 대안

단위: 명, ()은 %

직종	문항	집에서 농사를 를 한다	도시로 가서 직업을 구함	당지역에서 농외 취업	기타	계
사무직		1 (6.7)	5 (33.3)	6 (40.0)	3 (20.0)	15 (7.6)
기술직		6 (18.2)	13 (39.4)	8 (24.2)	6 (18.2)	33 (16.7)
숙련공		7 (25.0)	6 (21.4)	10 (35.7)	5 (17.9)	28 (14.1)
단순노무직		51 (41.8)	17 (13.9)	37 (30.3)	17 (13.9)	122 (61.6)
계		65 (32.8)	41 (20.7)	61 (30.8)	31 (15.7)	198 (100.0)

농사를 짓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도시로 가서 직업을 구한다'는 13.9 %에 불과함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으로 인하여 지역농업의 과잉인구를 어느정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직종별 직장에 바라는 사항은 <표 4-35>와 같다.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인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장의 안정성을 들고 있다. 단순노무직이 직장안정성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부침으로 인하여¹⁶⁾ 지역주민에게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안정성이 그만큼 결여되어 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사무직의 경우는 어느정도의 임금은 받고 있으나 농공지구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⁷⁾

농공지구에 지역주민의 취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3 %가 '젊은 남자가 일할 수

16) 1989년 6월 현재 3개업체가 경영난으로 도산하였음.

17) 사무직의 경우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새마을 공장건설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표 4-35 직종별 직장에 바라는 사항

단위: 명, ()은 %

직종 \ 문항	안정적인 취업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인격적 대우	근무시간 조정	기타	계
사무직	5 (35.7)	5 (35.7)	1 (7.1)	1 (7.1)	2 (14.3)	0 -	14 (7.0)
기술직	9 (26.5)	18 (52.9)	0 -	2 (5.9)	3 (8.8)	2 (5.9)	34 (16.9)
숙련공	7 (25.0)	11 (39.3)	5 (17.9)	2 (7.1)	0 -	3 (10.7)	28 (13.9)
단순노무직	40 (32.0)	58 (46.4)	12 (9.6)	7 (5.6)	6 (4.8)	2 (1.6)	125 (62.2)
계	61 (30.3)	92 (45.8)	18 (9.0)	12 (6.0)	11 (5.5)	7 (3.5)	201 (100.0)

표 4-36 농공지구 취업확대 방안

단위: 명, ()은 %

젊은 남자가 일할 수 있는 공장 (고부가가치 직종) 많아짐	취업연령 상한선철폐	공장까지 출퇴근편리	시간제근무 허용	총업원 후생복지 증진	월급 상승	계
50 (30.3)	23 (13.9)	8 (4.8)	27 (16.4)	11 (6.7)	46 (27.9)	165 (100.0)

있는 공장이 많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7.9 %가 '임금상승'을 듣고 있는 바 응답총업원의 44.2 %가 현지주민 취업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고부가가치 직종의 취업증대와 임금상승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부들의 농공지구 취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허용'을 16.4 %가 주장하였고, 나이들은 자도 일할 수 있게 '취업연령 상한선의 철폐'도 13.9 %에 달하였다. 그런데 '시

간제 근무허용' 및 '취업연령 상한선 철폐' 등은 기업의 생산공정에 어려움을 유발시킴으로 이들 문제는 농공지구와 관련하여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임가공 사업의 육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바 지역주민의 농공지구 취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젊은남자가 일할 수 있는 공장과 직종의 육성개발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직업훈련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농가출신 종업원에 대한 조사결과

1989년 6월 현재 횡성목계 농공지구에 2년이상 근속한 종업원 중에서 농공지구에 취업하기 이전에도 농가였고 현재에도 농가인 종업원 65명을 임의추출한 뒤 이들 해당농가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농가의 형태별 경영규모는 <표 4-37>과 같다. 전업농은 전체조사 농가의 11.1%에 불과하였고 1종겸업농은 41.3%, 2종겸업농은 42.9%이었다. 경영규모는 0.5ha 이상 1.0ha 미만이 25호(39.7%), 0.5ha 미만이 17호(30.0%)로 조사농가의 66.7%가 1.0ha 미만의 영세농가였다. 농가형태별 경영규모는 전업농의 경우 71.4%가 1.5ha이상이고 1종겸업농은 57.7%가 1.0ha미만, 2종겸업농은 92.6%가 1.0ha미만인 영세농가로서 일반적으로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농가일수록 농공지구에 많이 취업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공지구 취업자와 농가경영주와의 관계는 <표 4-38>과 같다. 경영주 본인이 취업한 농가한 8호로서 15.1%에 불과하였고 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가 32호(60.4%)로 가장 많았다. 그외 농가구원이 24.5%를 점하였다. 농가의 경우 2차 노동력이 농공지구 취업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영주가 농공지구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농사 때문에'(38.2%), '연령 및 건강 때문에'(32.7%), '보수가 나빠서'(10.9%), '공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10.9%)의 순이

표 4-37 농가형태별 경영규모

단위 : 호, ()은 %

농가형태 *) \ 경영규모	0.5 ha 미 만	0.5 ~ 1.0 ha	1.0 ~ 1.5 ha	1.5 ~ 2.0 ha	2.0 ha 이 상	계
전 업 농	0 -	2 (28.6)	0 -	3 (42.9)	2 (28.6)	7 (11.0)
1 종겸업 농	1 (3.8)	14 (53.8)	6 (23.1)	5 (19.2)	0 -	26 (41.3)
2 종겸업 농	16 (59.3)	9 (33.3)	2 (7.4)	2 (7.4)	1 (3.7)	27 (42.9)
계	17 (30.0)	25 (39.7)	8 (12.7)	10 (15.9)	3 (4.8)	63 (100.0)

*) 전 업 농 : 농가의 연간 총수입 중 농업수입이 80 % 이상인 농가

1 종겸업농 : " " 50 % 이상 80 % 미만인 농가

2 종겸업농 : " " 50 % 미만인 농가

표 4-38 농공지구 취업자와 농가경영주의 관계

단위 : 명, ()은 %

경영규모 \ 경영주와의 관계	세대주 (경영주 본인)	경영주의 배우자	후계자	후계자의 배우자	후계자 이외의 남자	후계자 이외의 여자	기타	계
	8 (15.1)	32 (60.4)	4 (7.5)	2 (3.8)	4 (7.5)	2 (3.8)	1 (1.9)	53 (100.0)

다(표 4-39 참조). 농공지구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장년층인 30 대와 40 대는 '농사 때문'이 각각 50.0 %, 47.6 %이고 50 대 이상은 1/2 이 연령 및 건강때문이라 응답하였다. 한편 40 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비록 농공지구에 취업을 하고 싶으나 공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소위 비자발적 실업이 발

표 4-39 경영주가 농공지구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은 %

연령	이유	농사 때문에	보수가 나빠서	연령 및 건강때문에	공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공장일이 고되기 때문에	자식 및 동생또래 등과 같이 일하기가 곤란해서	기타	계
30 대	30 대	5 (50.0)	2 (20.0)	0 -	0 -	0 -	1 (10.0)	2 (20.0)	10 (18.2)
	40 대	10 (47.6)	3 (14.3)	6 (28.6)	2 (9.5)	0 -	0 -	0 -	21 (38.2)
50 대 이상	50 대 이상	6 (25.0)	1 (4.2)	12 (50.0)	4 (16.7)	1 (4.2)	0 -	0 -	24 (43.6)
	계	21 (38.0)	6 (10.9)	18 (32.7)	6 (10.9)	1 (1.8)	1 (1.8)	2 (3.6)	55 (100.0)

표 4-40 농공지구 취업이유

단위: 명, ()은 %

응답수	이유	농업소득이 적어서	농사일이 힘들어서	농업의 전망 불투명	마땅한 취직처가 없음	돈마련하여 농사일 확대 (농공지구입)	결혼 문제	기타	계
		19 (29.2)	5 (7.7)	9 (13.8)	13 (20.0)	7 (10.8)	6 (9.2)	6 (9.2)	65 (100.0)

생하고 있다.

농가출신 종업원의 농공지구 취업이유로는 '농업소득이 적어서'(29.2%), '마땅한 취직처가 없어서'(20.0%), '농업전망의 불투명'(13.8%)의 순인데 농공지구에 취업하여 돈을 마련한 뒤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확대하겠다도 10.8%에 달하고 있다(표 4-40).

농공지구에 취업한 이후 집안의 농사일은 남은 가족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64.6%로 가장 많아 농공지구가 농업부문의 유휴노동력을 어느정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노동력 고용도 20.0%에 달하고 농지를 임대(10.8%)하거나 매각(1.5%)한 경우 등 농업노동력 부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표 4-41).

농공지구 취업농가에서 추가로 농외취업 가능한 인력의 수준은 (표 4-42)와 같다. 현재 영농조건 하에서 더이상 농외취업할 노동력이 없대로 응답할 농가가 46호(74.2%)이고 1명정도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농가는 14호(22.6%), 2명이상은 2호(3.2%)이다. 완전기계화시에는 농업부문에 어느정도 잉여노동력이 발생하여 33.9%가 1명이상을 추가로 농외취업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사전적)농외취업가능 인력수준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영농조건에 관계없이 경영 규모가 커질수록 농외취업가능 인력수준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공지구 계속취업여부를 물어본 결과 현재의 공장에 계속 취업하겠다가 36명(64.2%), 현지 타공장으로 이동하겠다가 17명(30.4%)으로 농외취업을 계속 하겠다고 응답한 농가가 조사대상 농가의 94.6%

표 4-41 취업후 농사방법

단위:명, ()은 %

방법 응답수	남은 가족들 이 처리	농업노동력 고 용	경지임대	경 지 매 각	기 타	계
	42 (64.6)	13 (20.0)	7 (10.8)	1 (1.5)	2 (3.1)	65 (100.0)

표 4-42 취업가능 가구원수

경영규모 취업가능 가구원	현재 영농 조건			완전기계화시			단위 : 호, () 은 %
	0 명	1 명	2 명 이 상	0 명	1 명	2 명 이 상	
0.5 ha 미만	9 (52.9)	7 (41.2)	1 (5.9)	8 (47.1)	8 (47.1)	1 (5.9)	17 (100.0)
0.5 ~ 1.0	17 (70.8)	6 (25.0)	1 (4.2)	15 (62.5)	7 (29.2)	2 (8.3)	24 (100.0)
1.0 ~ 1.5	8 (100.0)	0 -	0 -	7 (87.5)	1 (12.5)	0 -	8 (100.0)
1.5 ~ 2.0	9 (90.0)	1 (10.0)	0 -	9 (90.0)	1 (10.0)	0 -	10 (100.0)
2.0 ha 이상	3 (100.0)	0 -	0 -	2 (66.7)	1 (33.3)	0 -	3 (100.0)
계	46 (74.2)	14 (22.6)	2 (3.2)	41 (66.1)	18 (29.0)	3 (4.8)	62 (110.0)

에 달하고 있다. 반면 공장을 그만두고 농사만을 짓겠다는 5.4%에 불과하고 이촌하겠다라는 경우는 청취되지 않았다(표 4-43 참조).

이는 2년이상 농공지구 취업농가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 농공지구 취업 종업원들을 임의추출하여 물어본 결과와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종업원의 응답결과는 현재의 공장에 계속 취업희망 한다는 45.5%에 불과하고((표 4-30) 참조) 농공지구 비취업시 예상되는 대안으로서 집에서 농사를 한다가 32.8%,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다가 20.7%이다((표 4-34) 참조).

이는 농공지구에 2년이상 근속한 농가의 경우 불확실하고 불충분한 농업소득을 농외소득으로 충당하여 온 즉, 농가경제에 있어서 농외취업의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이촌하겠다

표 4-43 경영규모별 농공지구 계속 취업여부

단위: 명, ()은 %

의사 경영규모	계속 취업희망 (현 공장)	기회가 있다면 현지 타공장으 로 이동희망	공장을 그 만두고 농사 짓겠다	이 춘 하겠다.	계
0.5 ha 미만	10 (58.8)	7 (41.2)	0 -	0 -	17 (30.4)
0.5 ~ 1.0	15 (68.2)	6 (27.3)	1 (4.5)	0 -	22 (39.3)
1.0 ~ 1.5	4 (50.0)	3 (37.5)	1 (12.5)	0 -	8 (14.3)
1.5 ~ 2.0	6 (85.7)	0 -	1 (14.3)	0 -	7 (12.5)
2.0 ha 이 상	1 (50.0)	1 (50.0)	0 -	0 -	2 (3.6)
계	36 (64.2)	17 (30.4)	3 (5.4)	0 -	56 (100.0)

라는 응답이 청취되지 않은 것과 공장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가 5.4 %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이춘하여 비농업 부문에 특화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뜻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공지구 취업시 불만점으로 '불안정한 취업'이 약 1/4에 달하는 것과 (〈표 4-32〉, 〈표 4-33〉참조)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바라는 사항 중 '안정적인 취업'이 30.3 %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 (〈표 4-35〉참조)을 미루어 볼 때, 농사를 지으면서 농공지구에 계속 다니겠다라는 응답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농가경제에 있어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간에 보완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현재의 농업구조에서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가의 경업농 고착이 심화될 개연성이 엿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농사의 계속 여부 및 농사를 계속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와 농

표 4-44 농업의 계속여부와 계속이유

단위: 명, ()은 %

구분 응답수	농업계속 여부			계	농업계속 이유				계
	중단	보르겠다	계 속		농지 가격 상승기대	농외취업의 불안정	소득보충을 위해서	기 타	
	3 (4.6)	7 (10.8)	55 (84.6)	65 (100.0)	5 (9.1)	20 (36.4)	26 (47.3)	4 (7.3)	55 (100.0)

표 4-45 농사일 참여시기

단위: 명, ()은 %

구분 응답수	보 통 때			농 번 기			계
	공장출퇴근 전 후	일요일 및 공 휴 일	기 타	공장출퇴근 전 후	일요일 및 공 휴 일	기 타	
	11 (16.9)	49 (75.4)	5 (7.7)	23 (35.4)	29 (44.6)	13 (20.0)	65 (100.0)

사일 참여 시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농사를 계속 짓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6 %에 달하는데 비해 중단하겠다는 4.6 %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이유로써 소득보충을 위해서가 47.3 %, 농외취업의 불안정 때문이 36.4 %로 응답됨으로써 농업소득과 농공지구 취업 임금소득간에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4 참조) . 농사일 참여시기도 보통때의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75.4 %인데 비해 공장출퇴근 전후의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16.9 %에 불과하고 나아가 농번기의 경우에도 일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공장 출퇴근 전후보다 많다는 것은 농공지구 취업농가들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말농업적 경영의 색채를 띠는 겸업농으로 변조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 5 장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1. 파급효과의 개관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역상품시장 (regional product market)과 지역노동시장 (regional labor market)에서 발생하는 고용 및 소득효과 등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사회환경 및 지역주민의 의식구조변화 등의 사회환경변화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상이함은 물론이다. 특히,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유효노동력 (effective labor force)의 대소여부는 농공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크기를 결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Richardson, 1979).

한편, 지역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지역사회·환경적 요인은 지역의 경제적 입지여건 및 특성 등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지역경제 구조에 영향을 주고, 지역경제 구조는 농공지구 개발산업의 파급효과의 크기 및 속도를 결정한다. 즉,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는 지역산업, 사회간접자본, 유통

체계 등의 발달정도와 지역주민수 및 이들의 소득분배상태, 고용상태, 그리고 지역산업과 농공지구와의 대체 및 보완관계 등의 지역경제 구조에 따라 상이하고, 이는 역으로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성장자체에 영향을 미쳐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의 크기 및 속도를 결정한다.

지역경제 (regional economy)는 국가경제 (national economy)와는 달리 개방성 (openness)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지역외시장 (out-region market)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외의 경제여건의⁶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변화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 환경적요인과 사회간접시설 등에 수반되는 지역경제 구조 뿐만 아니라 지역외 요소 및 제품시장 등의 지역외적요인과 타지역간의 상호관련성 등의 지역간 연계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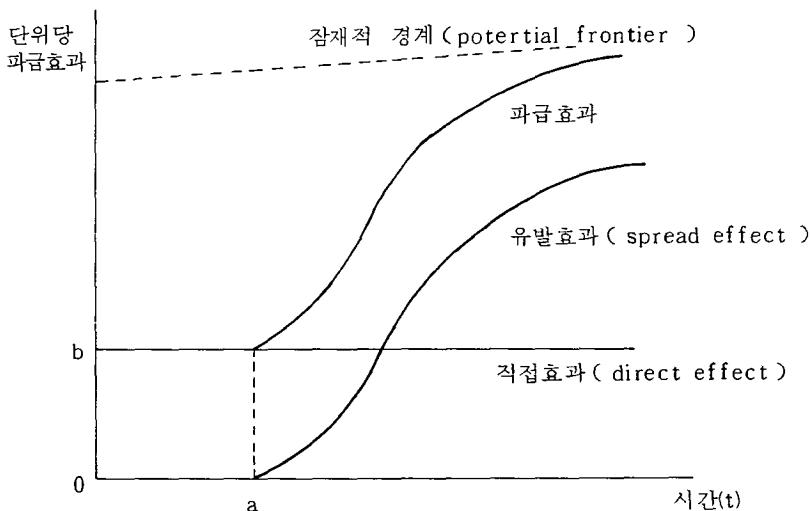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단기적 파급효과와 중 · 장기적 파급효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 파급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와 임금소득효과, 원부자재비지출의 지역경제 유입효과, 지역시장변화 등을 들 수 있고, 중 · 장기적 파급효과로는 지역내 생산요소 이용패턴의 변화, 타지역으로부터의 노동력유입 등의 지역경제 구조변화, 주민의 사회 · 경제적 의식구조변화 및 농촌사회 ·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은 궁극적으로 이 상과 같은 제반 파급효과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당초 목표인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성장 및 발전, 나아가 농어촌지역 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파급효과의 시계열상 크기 및 속도는 <그림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흐름도 (flow-chart)는 <그림 5-2>와 같이 요약된다. <그림 5-1>에서와 같이 파급효과중 직접효과는 시간에 따라 단위당 불변을 보이는 반면 유발효과 (spread-effects)는 일정시점 이후부터 발

생하기 시작하여 단위당 체증적 확산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지역의 사회
· 환경적 요인과 이로 인하여 위상되어지는 경제적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역경제의 잠재적 경계에 유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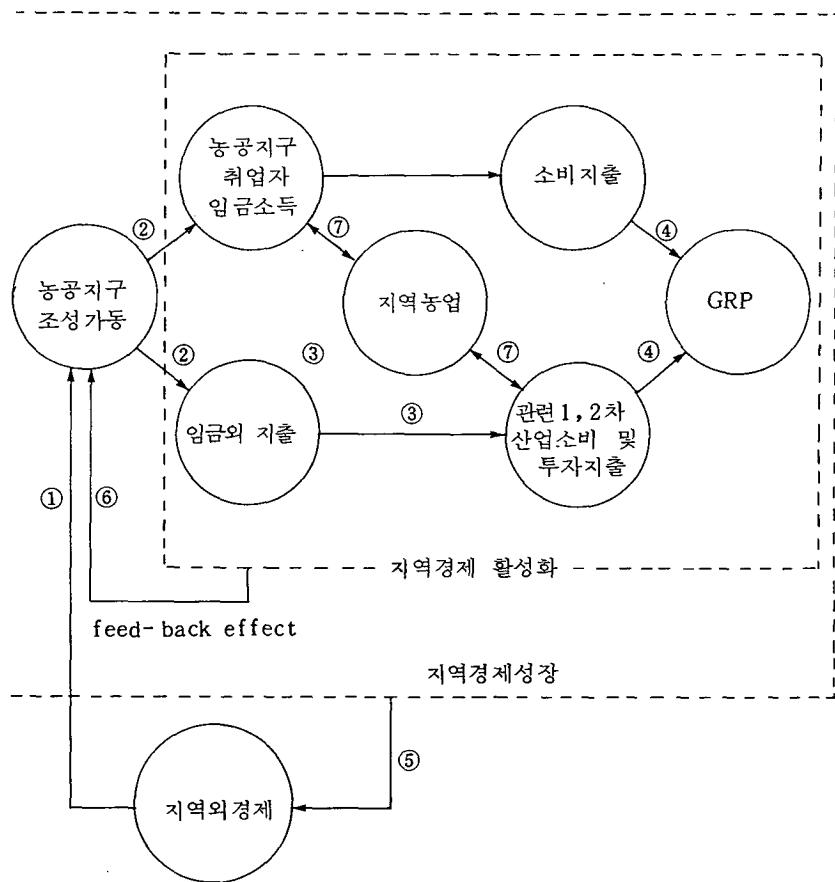
그림 5-1 파급효과의 시계열상 변화추세



여기서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의 잠재적 경계는 지역내의 사회
간접 자본, 지역인구, 지역주민의 식구조 등의 지역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유발효과가 시작되는 시점 $t = a$
와 유발효과의 속도는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지역내 산업과의 연계성, 지
역내의 유효생산요소의 양, 지역주민의 소비성향, 역외 수입성향, 타지역
과의 연계성 등 지역경제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직접효과의 크기 b 는 농
공지구 입주업체들이 지역내 생산요소를 얼마만큼 고용하느냐에 달려 있
는데, 이것은 지역내의 유효생산요소의 양과 생산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a , b 와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는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지역내 기존산업과 얼마
만큼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내 유효생산요소 공급능력의 정도 등에

그림 5-2 지역경제에 대한 농공지구의 파급효과 흐름도



① : 농공지구 제품시장 수요 (지역수출)

② : 지역내 직접효과

③ : 지역내 간접효과

④ : 지역내 유발효과

⑤ : 지역외 효과 (지역수입)

⑥ : 지역내 농공지구 feed-back 효과

⑦ : 농업과 비농업 부문과의 상관관계

따라 결정되고, 과급효과 크기의 궁극적 한도는 지역의 잠재적 성장가능곡선을 결정하는 지역내 사회간접자본투자, 지역경제 구조 등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지역내 과급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비교우위에 부합되는 입주업체선정(즉 전·후방효과가 높은 업체 유치)과 지역내 기능인력양성, 지역경제 구조 개선, 사회간접 자본투자, 지역간의 경제적 입지 고려 등 지역종합개발차원에서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농공지구의 시계열상 과급효과와 함께 그 발생체계 <그림5-2>를 고려하면 농공지구 과급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거역거시모형에서 시계열 분석 및 정책시뮬레이션(Policy simulation)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초기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종합적인 자료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으로 지역내의 직접적 고용 및 소득효과 중심으로 과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단, 지역경제의 일반균형분석차원에서 실험적 시도로써 2차자료(전국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부문별 과급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2. 고용효과

횡성농공지구가 가동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효과를 경제기반모형¹⁾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은 지역의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는 기초산업들의 생산활동 변동에 따른 지역경제의 총괄규모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즉, 지역경제를 크게 두 부분(1)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여타지역에 수출하여 당해지역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기반부문(basic

1) I-O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고용승수를 구하기 위한 필요자료가 지역—특히 군—수준에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sector) 과 (2) 타지역에 수출하지 않고 지역내 기본수요만을 충족시켜 주는 지원부문 (service sector) 으로 나눈 뒤 지역의 성장은 기초부문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한다.

경제기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형화될 수 있다.

$$\begin{aligned}
 ER &= ERB + ERS \\
 &= ERB + \sum_i (ER_i / ER) ER \\
 &= ERB + \sum_i \left\langle (EN_i / EN) (ER_i / EN_i) (EN / ER) \right\rangle ER \\
 &= ERB / \left\langle 1 - \sum_i (EN_i / EN) (LR_i) \right\rangle
 \end{aligned}$$

여기서

ER : R 지역의 총고용수

ERB : R 지역의 기반부문고용수

ERS : R 지역의 지원부문고용수

ER_i : R 지역의 i 산업의 고용수

EN_i : 전국 i 산업의 고용수

EN : 전국총고용수

LR_i : (ER_i/ER) / (EN_i/EN) : R 지역의 i 산업의 입지상 계수

기반부문은 지역의 시장의 영향을 받으므로 독립변수로 취급된다.

한편 일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한 그 지역의 입지상 LR_i는 불변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 수준의 EN_i, EN도 일정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윗 식의 LR_i는 상수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ER = k ERB$$

로 나타낼 수 있다(여기서 k는 상수).

횡성 목계농공지구 10개 가동업체의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는 (표 4-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100.0%가 횡성군의 지역인 바 횡성 목계 농공지구를 횡성군 지역경제의 기반부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농업

부문중 군내에서 소비되는 부분을 제외한 것과 농공지구외 제조업체중 음식료품 및 농업서비스부문을 제외한 것을 기초부문으로 가정하여 횡성군의 고용승수를 구할 수 있다.

횡성군내 1988년말 15세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표 3-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3,851명이고 그 중 농업활동인구는 약 23,226명이다. 먼저 횡성군내에서의 양곡소비량을 추정하여 횡성군내 양곡생산량에서 이를 제외으로써 횡성군의 양곡수출부분을 추정하고 이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농업노동력을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 전국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173.8kg을 이용하여

$$\text{횡성군 양곡소비량} = 173.8 \text{ kg} \times 55,557 \text{ 명}$$

$$= 9,644.695 \text{ kg}$$

$$= 9,645 \text{ M/T}$$

횡성군 1988년 양곡 총생산량 4,059 M/T을 이용하여

- 횡성군 양곡수출량 = 30,952 M/T

- 농업노동력 1인당 평균생산량

$$= \text{총 양곡 생산량} / \text{농업활동인구}$$

$$= (40,497 \text{ M/T}) / (23,226 \text{ 명})$$

$$= 1,747.9 \text{ kg/명}$$

- 횡성군 양곡수출량 30,952 M/T에 상응하는 농업노동력

$$= \text{지역외 수출량} / 1인당 양곡 평균생산량$$

$$= (30,952 \text{ M/T}) / (1,747.9 \text{ kg/명}) = 17,708 \text{ 명}$$

둘째, 횡성군의 1988년 제조업체(농공지구 제외) 상품의 지역외 수출에 상응되는 노동력은 <표 3-10>과 <표 5-1>을 이용하여 추계 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제3장 참조) 횡성군 지역경제 구조상 제조업의 총산출액 중에서 지역외 최종 수요로 소비되는 부분이 약 54%이고 농공지구를 제외한 제조업체의 총고용량은 848명인 바 농공지구 입주업체를 제외한 횡성군 제조업의 지역외 수출에 상응되는 노동력은

약 458 명(848 명 × 0.54)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표 5 - 1 횡성군 제조업체 현황(농공지구제외 5인 이상 고용업체)
1988. 12. 31 현재

구분	업종 구분	음식 료 품	섬유 의 복 가 족	나무 나무제품	인쇄 출판	화학, 석유 프라스틱	비금속 광물	조립 금속	기타 제조업	계
업체수 (개소)	114	24	8	7	2	9	4	23	191	
종업원수 (명)	383	95	23	92	25	36	36	158	848	

자료 : 강원도, 「제조업체 현황」, 1989. 6

셋째, 횡성농공지구의 1988년 12월말 현재 11개 가동업체의 총고용인원은 465명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품판매 시장의 100.0 %가 횡성군외 지역이므로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횡성군 지역경제에서 기반을 이루는 고용량은 465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8년 말 횡성군 기반사업에 해당되는 고용인구는 위 세부분을 합친 18,631(17,708 + 458 + 465)명으로 추계될 수 있다.

그런데 횡성군의 1988년도 경제활동인구 33,851명 중에서 중·고교생 6,492명을 제외한 순수경제활동 인구는 27,359명이고 여기에 1988년 전국 평균 실업률 2.5 %를 고려하면 횡성군 지역주민중 실업자는 약 684명이고 횡성군 지역 총고용량은 26,675명에 달한다.

따라서 고용승수는

$$K = \frac{ER}{ERB} = \frac{26,675}{18,631} = 1.43$$

으로 추계된다. 이는 1988년 12월말 현재 횡성지역 기반산업부문 고용인원 1명이 증가할 때 지역에 미치는 총고용(수요)효과는 1.43명으로

2) 횡성지역 투입산출구조는 1985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1986년 횡성농공지구개발사업이 지역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빠져 있다. 따라서 투입산출 구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와 이를 제외한 제조업체간의 구별이 필요하다.

0.43 명의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횡성군의 지역 고용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1989년 6월말 현재 횡성북계 농공지구의 직접고용인원 594명에 대한 횡성지역내 총고용(수요)효과는 약 849명에 달하여 약 255명이 농공지구로 인하여 횡성군내의 농공지구 이외의 타부분에서 고용유발(수요)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그리고 1988년 말 대비 184명($\Delta ER = K\Delta ERB = 1.43 \times (594 - 405)$)이라는 지역 총고용량(수요)이 농공지구로 인하여 추가 증가한 것으로 계측할 수 있다.³⁾

한편 횡성북계 농공지구의 향후 목표년도에서의 고용계획은 약 2,200명인데 이는 1989년 6월 현재 고용인원 594명보다 1,600여명이 많고 이때의 총고용(수요)승수효과는 약 3,146명 정도로서 946명의 노동량이 농공지구 이외의 부분에서 수요창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 그런데 횡성군내에서 북계농공지구로의 취업 가능 인력은 〈표 5-2〉에서와 같이 통근가능거리 지역의 모든 20, 30, 40대 인구가 농공지구에 취업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11,737명이다. 이 중 도보통근가능 지역에서의 취업 가능 인력은 7,581명 버스로 1시간이내 통근가능 지역에서의 취업 가능 인력은 4,156명이다.

만약 이들 인력이 모두 농공지구로 취업한다면 목표년도의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노동력 수급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이들이 현재 자신의 직업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⁵⁾ 농공지구 취업 가능 인력은 전국의 1988년 말 평균 실업률 2.5%에 해당되는 293명($= 11,737\text{명} \times 0.25$)에 불과하여 목표년도의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계획 고용량으로 인한 총고용유발량을 횡성지역내에서 공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량조차도 지역내에서 수급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횡성군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어진 현여건하에서 목표년도의 농공지구 노

3) 〈표 4-5〉, 〈표 4-11〉 참조

4) 이는 목표년도의 횡성군 지역경제 구조가 1988년 12월과 동일하다는 엄격한 가정 위에 성립한다.

5) 이는 매우 엄격한 가정이다.

표 5-2 통근거리별 읍·면수와 농공지구 취업가능 연령인구
(1988. 12월 현재)

구분	연령 성별			20 대			30 대			40 대			단위 : 명, ()은,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도보통근가능(4km 이내) 읍·면													
- 횡성읍	1,639	1,585	3,224 (42.5)	1,304	1,199	2,503 (33.0)	936	918	1,854 (24.5)	7,581 (64.6)			
버스통근가능(4km ~ 10km이내) 읍·면													
- 우천면	507	294	801	329	278	607	305	314	619	2,027			
- 공근면	525	354	879	335	282	617	292	341	633	2,129			
소 계	1,032	648	1,680 (40.4)	664	560	1,224 (29.5)	597	655	1,252 (30.1)	4,156 (35.4)			
계	2,671	2,233	4,904 (41.8)	1,968	1,759	3,727 (31.8)	1,533	1,573	3,106 (26.5)	11,737 (1000)			

주 : 횡성군 산업과 내부자료로서 취업가능 인구를 20, 30, 40 대 연령층에서 도보
통근 가능 한 지역과 4km~10km이내 지역의 인구로 가정하였음.

동력 수요로 인한 지역노동시장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취업
가능 인력의 약 26.8%(= 3,146 명 / 11,737 명)가 농공지구로의 전업적 취
업이 필요하다(2.5%의 실업률을 고려할 경우 순수한 전업도 24.3%에
달한다).

여기서 고용계획량 12,200여명이 달성될 경우 현재의 주어진 여건하에
선 노동력 수급에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농민의 제조업 부
문으로의 노동력 이전 또는 외지인구 유입이 없이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
으로는 농공지구로 인한 고용수요를 지역내에서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영세농의 재촌탈농을 유도하여 농업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이룩하면서 탈농가의 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의 흡수와 외부노동력의 유
입이 수반되지 않으면 농공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내 노동력수급은 어려우
리라 예상된다. 이 경우 지역노동시장의 초과 수요로 인하여 농공지구 입
주업체는 업체대로 농가는 농가대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여 생산비 상승

이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탈농을 돋기 위해서는 농가유형별 영농기계화의 촉진과 농민들로 하여금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을 받도록 농공지구 입주업체와 관계당국의 진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생산 및 소득효과

횡성 농공지구 11개 가동업체의 1988. 1 ~ 1988. 12 1년 동안의 생산액은 11,321 백만원이고 이를 입주업체의 제품판매 지역은 모두 횡성군 외 지역인 역외 수출업체이다 (표 4 - 11 참조). 따라서 횡성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은 바로 횡성지역의 지역외 최종수요(즉, 역외 수출)의 변화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횡성지역내에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될 수 있다.

먼저 횡성목계 농공지구 취업자의 1989년 6월 현재 월평균 임금총액과 저축액은 (표 5 - 3)과 같다.

여기서 저축액을 임금총액의 합수라는 간단한 케인저안 모형을 이용하여 임금소득에 대한 한계저축률(marginal propensity to save)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선형모형(linear model)으로서 임금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액도 증가하리라 가정한다.

$$Y_i = a + bX_i + \epsilon_i$$

여기서 Y_i : 저축액, X_i : 임금소득

ϵ_i : 오차항(error term)

1989년 6월말 현재 현지조사의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hat{Y} = 35.374 + 0.353058 X$$

(3.25) (7.05)

()는 t값

표 5-3 종업원 월평균 임금총액과 저축총액

단위: 천원

Variable:	월평균 임금총액	월평균 저축총액
Sample size	152	152
Average	200.73	106.243
Median	180	100
Mode	150	100
Geometric mean	188.96	89.9749
Variance	6773.91	3392.04
Standard deviation	82.3037	58.2412
Standard error	6.67572	4.72399
Minimum	48	15
Maximum	650	315

표 5-4 종업원 월평균 저축총액과 임금총액의 회기분석

Regression Analysis-Linear model: $Y = a + bX$

Dependent variable: 월평균 저축액		Independent variable: 월평균 임금총액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ob. Level
Intercept	35.374	10.8582	3.25782	1.38866 E- 3
Slope	0.353038	0.0500733	7.05082	6.06661 E- 11
Analysis of Variance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Ratio Prob. Level
Model	127499.51	1	127499.51	49.71 .00000
Error	384698.48	150	2564.66	
Total (Corr)	512197.99	151		

Correlation Coefficient = 0.498925

R-squared = 24.89 percent

Stand. Error of Est. = 50.6424

임금소득 한 단위에 대한 저축률, 즉 한계저축 성향은 약 35.3%이다. 따라서 한계소비 성향은 약 64.7%로 추정된다.

여기서 횡성군의 지역으로부터 최종 재화의 이입, 즉 역외수입이 없다고 가정하면, 간단한 케인즈ian 승수를 이용하여 임금소득 1 단위 증가에

지역소득수준(GRP)은 약 2.86 단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frac{dY}{dW} = \frac{1}{0.35} \approx 2.86$$

여기서 W는 농공지구 취업종업원의 임금소득 수준이다.

따라서 횡성목계 농공지구의 11개 가동업체의 1988년 한해동안 월평균 임금소득 139백만원에 의하여 유발되는 임금소득 승수액은 월평균 약 397.54백만원이고 연평균 임금총액 1,584백만원에 의하여 유발되는 소득승수액은 4,530.24백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11 참조).

한편 농공지구 종업원의 가계비 지출중 지역외 지출비가 평균 15.0%라는 것은 종업원의 소비생활중 이만큼 지역경제에 누출효과(leakage effects)를 유발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횡성목계 농공지구 종업원의 임금으로 인한 횡성지역내의 소득승수액은 종업원의 소비생활에 있어 역외지출되는 부분에 대응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이 효과만큼 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역외 지출되는 부분을 고려한 임금소득 승수는

$$\frac{dY}{dW} = \frac{1}{0.35 + 0.15} \approx 2.0$$

이 되어 11개 가동업체의 1988년 한해동안 월평균 임금소득이 139백만원에 의하여 유발되는 임금소득 승수액은 278백만으로 지역외 유출효과가 없을 때보다 월 평균 약 119.54백만원이 적게 유발된다. 연평균 임금총액 1,584백만원(생산액 11,323백만원)에 의하여 유발되는 지역소득 승수액은 3,168백만원(22,646백만원)이다.

다음으로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가동하여 생산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문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이입 유발효과를 살펴보기 위

6) 농공지구 취업종업원의 임금은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모두 지역외 수출을 하고 있는 바 지역내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취급될 수 있다.

하여 1985년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5개 부문의 횡성지역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부표1, 부표2, 부표3, 부표4, 부표5 참조)⁷⁾

횡성목계 농공지구 11개 가동업체의 88년 한 해 동안 11,321백만원에 해당되는 생산량이 횡성지역의 각 부문에 얼마만큼 생산을 유발 시켰는가는 나타내는 부문별 생산유발 효과는 〈표 5-5〉에 정리되어 있다.

전 산업부문에 총 17,709.4백만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횡성목계 농공지구 11개 업체 생산액의 1.6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순유발생산액은 $6388.4 \text{백만원} = 11,321 \times 0.6$) 부문별로는 제조업에 총 12,575.4백만원, 재배업에 4144.6백만원, 임업에 209.4백만원 등의 순이다.⁸⁾

표 5-5 농공지구 가동업체 생산의 횡성군내 부문별 생산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생산부문	재배업	축산 양 잡 서비스	농업 서비스	임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 수도 가스
생산유발액	4144.6	39.6	101.9	209.4	0.0	0.0	12575.4	94.0
생산부문	건설업	상업	운송 창고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정부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기타	계
생산유발액	45.3	193.6	73.6	207.2	0.0	7.9	11.3	17709.4

7) 자세한 것은 김경덕(1988. 12) 참조.

8) 앞에서 살펴본 케인즈의 승수이론은 경제순환의 하나인 소득순환의 분석에만 그치고 산업간 순환이 생산과정의 분석은 제외함으로써 최초의 지출과 이에 의하여 증가된 소득사이에 확장관계가 있다는 것만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한편 산업연관 분석은 케인즈 이론에서 제외하고 있는 산업간 순환, 즉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체계로서 소득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의 파생수요를 경유하여 정식화되고 있는 소득분석은 제외되고 있다. 만약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하여 소득승수를 구할 경우는 이중 계산되어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경제순환에 관한 완전한 관점에서 보면 케인즈 승수이론과 산업연관분석 승수이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혹자는 산업연관분석 승수인 생산유발계수를 케인즈의 승수와 구별하기 위하여 다부문승수(multi-sector multiplier)라고 부르기도 한다. 앞에서 소득승수 분석을 케인즈 승수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것은 바로 이 이유에서였다.

한편, 농공지구 가동업체의 생산으로 인하여 지역내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표 5-6〉에 나타나 있다. 농공지구 가동으로 인하여 전산업에 걸쳐 횡성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6,840.1 백만원으로 총생산액의 약 60%에 달한다. 〈표 4-11〉에서 살펴보았지만 농공지구 입주업체만의 원부자재 구입비용의 지역내 귀속액은 1,562.4 백만원에 불과하다. 즉, 횡성농공지구 10개 가동업체의 원부자재 지출 비용의 직접적 군내 귀속비율은 33.5%이나 우회생산의 결과 총생산의 60.5%가 횡성지역에 투하되는 것이다. 이는 10개 농공지구 가동업체의 인건비와 원부자재 비용의 합인 5,930백만원의 115.3%에 해당된다.

부문별 지역내 귀속부가가치는 재배업 3313.7 백만원, 제조업 2857.4 백만원의 순이다. 재배업에 비하여 제조업의 경우 횡성군내 부가가치 귀속률이 낮은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5년 주택 및 인구센서스 결과 횡성군의 직종별 취업인구가 농림재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직종이라 할 수 있는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의 비중이 2.7%로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 관련 단순노무직 또한 9.4%로 매우 낮은 1차산업 중심지역이기 때문이다(표 3-8 참조)(일반적으로 농림어업, 광업 등 원시산업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액은 높게 나타나며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제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지역내 부문간 이입유발액은 〈표 5-7〉에 정리되어 있다. 농공지구 가동업체의 생산량이 11,321백만원에 달한 경우 횡성군 전체의 역외로부

표 5-6 농공지구 가동업체 생산의 횡성군내 부문별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생산부문	재배업	축산 양감	농업 서비스	임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수도가스
부가가치유발액	3313.7	7.9	61.1	178.9	0.0	0.0	2837.4	56.6
생산부문	건설업	상업	운송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	정부서비스	교육서비스	기타	계
부가가치유발액	18.1	129.1	50.9	147.2	0.0	6.8	6.8	6840.1

표 5 - 7 농공지구 가동업체 생산의 횡성군내 부문별 이입유발효과

단위 : 백만원								
생산부문	재배업	축산 양잠	농업 서비스	임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수도가스
이입유발액	408.7	20.4	22.6	21.5	0.0	0.0	3870.6	30.6
생산부문	건설업	상업	운송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	정부서비스	교육서비스	기타	계
이입유발액	19.2	32.8	17.0	27.2	0.0	0.0	2.3	4479.7

터 이입액은 약 4,479 백만원이므로 총생산액의 39.6 %에 달한다. 부문별 이입액은 제조업이 3870.6 백만원, 재배업이 408.7 백만원의 순이다. 여기서도 횡성군의 지역경제 구조에 있어 제조업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생산할 경우 횡성군내 타산업부문에 어느 정도의 중간재를 구입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후방연쇄 효과와 타산업부문에 중간재를 어느 정도 판매하는가를 나타내는 전방연쇄 효과는 각각 1.3475, 1.2135로써 생산량 11,321 백만원에 대하여 15,255.0 백만원, 13,748.0 백만원이다 (부표 6 참조).

4. 기타 효과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내 변화된 사항을 물어본 결과 농민들의 이촌이 어느정도 감소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4.0 %인데 비하여 동일하다가 34.0 %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농민들의 이촌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18.7 %나 되었다 (표 5 - 8).

여기서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아직까지도 농민들의 이촌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취업기회, 농민들의 생활수준 등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취업기회가 증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표 5-8 농공지구 조성후 변화사항

단위: 명, ()은 %

변화여부 문항	증가	감소	동일	모르겠다	계
농민들의 이촌	28 (18.7)	36 (24.0)	51 (34.0)	35 (23.3)	150 (100.0)
농민들의 생활수준	106 (64.6)	4 (2.4)	33 (20.1)	21 (12.8)	164 (100.0)
농업기계화 보급	95 (62.1)	2 (1.3)	29 (19.0)	27 (17.6)	153 (100.0)
지가상승	71 (51.4)	1 (0.7)	17 (12.3)	49 (35.5)	138 (100.0)
농촌인심 및 환경파괴	85 (58.2)	1 (0.7)	38 (26.0)	22 (15.1)	146 (100.0)
취업기회	133 (86.9)	2 (1.3)	13 (8.5)	5 (3.3)	153 (100.0)
도로교통	65 (48.1)	0	60 (44.4)	10 (7.4)	135 (100.0)
의료	43 (30.1)	33 (2.1)	84 (58.7)	12 (8.4)	143 (100.0)

86.9 %를 정하고 있는것을 미루어 볼 때 농공지구개발사업이 안정적 국면에 접어들 경우, 농민들의 이촌은 감소하고 나아가 지역인구의 순유입이 예상되므로 지역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⁹⁾ 이는 농공지구 조성사업후 젊은 노동력의 이촌향도 정도를 물어본 결과 '그전보다 적게 도시로 나가고 있다'가 39.5 %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전보다 많이 도시로 나가고 있다'가 11.8 %에 불과한 반면 젊은 노동력이 횡성군내로의 되돌아오는(U-Tern) 경우가 발견됨으로써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 도로 및 교통, 의료시설 등은 과반수 이상이 종전과 동일 내지는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농공지구를 개발할 때 지역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병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할 경우는 51.4 %이고 농촌환경이 파괴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2 %나 되었다. 이것은 주로 품앗이, 이웃간의 길통 시참여 등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풍속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횡성읍의 경우 1985~1988년 3년동안 연평균 0.3 %로 인구의 증가를 기록하였다(표 3-4 참조).

여기서 일반적으로 농촌환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농가출신¹⁰⁾ 종업원에게 추가로 농공지구 개발을 더한 경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127.4 %가 반대를 표명하고 있었다(표 5 - 10 참조). 따라서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촌환경 및 인심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인근에 농공지구에 취업 가능한 젊은 유류노동력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거의없다' (47.2 %), '조금있다' (43.2 %)이고 많다는 9.6 %에 불과하였다(표 5 - 11).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횡성군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업체가 완전가동하였을 때 노동력 수급난이 심각하리라 예상된다.

표 5 - 9 농공지구 조성사업후 젊은 노동력의 이촌행도 정도

단위 : 명, ()은 %

그전보다 많이 도시로 나가고 있다.	그전보다 적게 도시로 나가고 있다.	그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도시로 나갔던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온다.	과거 많이 떠났기 때문에 현재 더이상 도시로 나갈 사람이 없다.	계
23 (11.8)	77 (39.5)	53 (27.2)	5 (2.6)	37 (19.0)	195 (100.0)

표 5 - 10 추가 농공지구 개발의견

단위 : 명, ()은 %

대단히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아주 반대	계
23 (30.1)	22 (35.5)	11 (17.7)	6 (9.7)	62 (100.0)

표 5 - 11 농외취업 가능한 젊은 유류노동력 존재여부

단위 : 명, ()은 %

젊은 유류노동력 유무	많다	조금 있다	거의 없다	계
	19 (9.6)	86 (43.2)	94 (47.2)	199 (100.0)

10) 현재도 집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종업원

농촌지역에 더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은 교육시설(47.5%), 의료시설(30.4%) 등의 순이다 <표 5 - 12>. 농촌주민들이 도시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및 의료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제 3장) 횡성군내에서 양질의 유효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촌을 방지하기 위해도 지역내 교육 및 의료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표 5 - 12 농촌지역에 더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단위 : 명, ()은 %

	교육시설	의료시설	금융시설	도로통신시설	기타	계
응답수	75 (47.5)	48 (30.4)	12 (7.6)	10 (6.3)	13 (8.2)	158 (100.0)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고에서는 현지조사 결과와 2차자료를 이용하여 횡성지역 산업연관 표 및 지역경제기반모형을 작성하여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횡성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서 계측하였다. 소득부분의 파급효과는 간단한 케인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그리고 농공지구개발의 실태분석은 경제기획원 농공지구 관련자료와 농공지구 입주업체, 종업원, 관련농가 등을 현지조사하여 제표 분석하였다.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자산, 생산 및 매출실태는 현지조사자료를 토대로 국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자산, 생산, 매출 등의 상태를 전국치와 비교할 수 있게 지수화하였다.

1989년 10월 15일 현재 전국 농공지구수는 151개이고 그중 83개 (55.0%) 지구가 부지조성 완료되었으며, 45개 (29.8%) 지구가 부지조 성중에 있고 총 1,804개의 입주공장중에서 455개의 공장이 설비를 하고 있다. 고용계획은 241천명인데 공장가동중인 업체의 현고용량은 25,727명이다.

농공지구지정의 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충남 (19.2%), 경남 (17.9%) 충북 (17.2%), 경북 (17.2%)의 순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는 충남 북지역에 55개소 (전체의 36.4%),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공업지 대에 인근하고 있는 경남북지역에 53개소 (35.1%)가 집중되어 지역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업종분포는 전국치와 비교하면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의 업종비율이 높고 섬유, 식품에서는 낮고 화공은 비슷하다. 도별로는 경기도는 식품공업으로 특화되어 있고 경북은 봉제섬유공장, 경남은 기계금속의 특화가 현저한 반면 타지방은 다양한 업종들이 혼재되어 있다.

공장 가동업체의 현지인 고용비율은 전국 평균 69.0%인데 경남은 타 지역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지고 (53.3%), 제주는 현격히 높다 (85.1%), 여기서 농공지구 가동업체의 고용규모와 현지 지역주민의 고용비율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 구조조정 없이 현상황에서는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지역내에서 이를 공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공지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산업부문간 노동력 조정없이는 농공지구의 노동력 수요를 해당지역내에서 충당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케 한다. 따라서 농공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농가유형별 농업 및 농외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현지주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주민의 직업훈련등의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 6월 현재 횡성목계 농공지구 13개 가동업체의 고용량은 594명이고 이중 임시 및 계절 취업자는 63명이다. 횡성 농공지구와 임가공 계약을 맺고있는 가구는 158 가구이다. 한편 세부자료 수집가능한 10개업체의 총고용인원은 475명이고 이중 횡성군 현지출신자는 전체의 80.8%,로서 전국 평균 61.7%보다 높다. 현지인중 농가구원은 45.3%이고 조사대상 종업원중 농가구원은 38.3%에 불과하였다. 고용현황을 1987. 6, 1988. 6, 1989. 6의 시계열로 비교하면 '87년 대비 종업원 연령이 10대는 현격하게 줄어든 반면 20대 30대는 약간씩 증가하고 농가의 점유비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농공지구가 설립 초기기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서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지인 고용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10대 종업원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20대, 30대 종업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농공지구가 설립된 후 어느정도의 안전성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농가구원의 '취업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농공지구가 농업과 동시에 병행되는 부업의 성격이 아닌 전업적 취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 12월 말 현재 13개업체의 총자산중에서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38.6%로 1988년 전국중소기업 제조업체의 평균 21.8%보다 높으나 유동자산 비율은 25.3% (10개업체 평균)로 전국 평균 56.7%보다 낮았다.

기업의 단기적 자금사정을 평가하는 수표나 어음결제 능력 즉,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을 살펴보면 2개업체를 제외하고는 200%를 상회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88년 전국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평균 유동성은 104.5%에 불과한데 비하여 횡성 목계농공지구 입주업체의 단기채무 지급능력은 상대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안정성 지수인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고정비율은 각각 38.6%, 216.9%, 242.4%로서 1988년 전국중소기업 평균 21.5%, 357.7%, 195.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비율은 전국 평균 195.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기준치인 100%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업체는 4개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입주업체들이 농공지구 입주시 정부지원의 혜택, 융자 등에 의하여 유치되었고, 또한 입주시 신규투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과다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따라서 불경기때 과다한 이자지출로 인한 경영악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경우 그 속성상 농공지구의 지원혜택 (공업용지제공 및 정부의 세제 금융상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계기업 (marginal firm)이 농공지구에 입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입주업체의 자기자본에 대한 고정자산 비율이 높다는 것은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지속적 유효성 및 안정성에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개업체를 제외한 10개 가동업체의 매출액 총액 10,247 백만원중에서 역내(군내) 판매액은 5백만에 불과한 바 둑계 농공지구 입주업체는 모두 역외(군외) 수출업체라 간주할 수 있다.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는 도내가 12.3%(1,257 백만원), 도외가 56.1%(5,744 백만원), 수출이 31.6%(3,241 백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외 판매지역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바 둑계 농공지구 입주업체들은 서울 및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부자재 구입비용은 약 4,658 백만원에 달한다. 구입지 분포는 군내가 1,562.4 백만원(33.5%), 도내가 870.1 백만원(18.7%), 도외가 1,573.6 백만원(33.8%), 수입이 651.9 백만원(14.0%)으로 구성되어 원부자재비용의 1/3 이상이 군내에 귀속됨을 알 수 있다. 원부자재의 군내구입이 타지역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둑계 농공지구 10개 가동업체중에서 농산물가동업체가 4개업체이고 이중 1개업체가 대기업의 분공장으로 전체 원부자재구입비용의 약 44.7%를 점하기 때문이다.

4개 농산물 가공업체(IV, V, VII, 라업체)의 원부자재 구입비용의 군내지출비는 각각 50.0%, 60.0%, 683%, 43.0%로서 이들 업체의 원부자재 비용중 농산물 가공업체의 군내 원부자재 구입비는 66.8%에 달하는데 비해 비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군내 원부자재 구입비는 이들 업체 원부자재 비용중에서 2.5%에 불과하다. 이것은 횡성군의 지역농업구조가 타지역과는 달리 농산물 가공업체에게 원료확보의 용이성(예를 들어 호프, 포도 등의 지역특산물)이라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1개업체의 월평균 고용인원은 465명이고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약 288.5 천원으로 1인당 연평균 약 3,462 천원의 임금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88년 1년간 인건비 지출은 약 1,584 백만원인데 지역주민 고용비율이 약 80.9%임을 고려할 때 '88년 인건비의 횡성지역내의 귀속액은 약 1,281.5 백만원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88년 1년간 농공지구로 인한 횡성군내의 원부자재비 및 인건비의 지역내 귀속액은 약 2,843.9 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총생산액 11,321 백만원의 25.1

%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횡성목계 농공지구의 고용승수는 약 1.43으로서 1989년 6월말 현재 농공지구의 직접 고용인원 594명에 대한 횡성지역내 총고용(수요)효과는 약 849명에 달하여 약 255명이 횡성군내에서 농공지구로 인하여 농공지구 이외부분에 순고용 창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향후 목표년도의 고용계획치 2,200명에 대하여는 약 946명의 순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여 횡성지역내 총 3,146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이 경우 횡성지역내 산업부문간 인력조정 없이는 노동력수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효과는 간단한 케인지안 모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는데 소득승수는 약 2.0에 달한다. 따라서 1988년 한해동안 11개 가동업체의 연평균 임금총액 1,584백만원에 의하여 유발되는 지역 소득승수액은 3,168백만원에 달한다.

농공지구 가동업체의 '88년 한해동안의 생산액 11,323백만원에 의하여 유발되는 횡성군내 생산유발효과는 총 17,709.4백만원이고 그중 제조업 생산유발은 12,575.4백만원 재배업은 4,144.6백만원이다. 지역내 규속되는 부가가치는 총 6,840.1백만원으로 총생산액의 약 60%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로부터 이입유발효과는 약 4,479.7백만원으로 총생산액의 39.6%에 달하고 있다.

농공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내 변화사항은 지역내 취업기회의 확대로 인하여 농촌주민들의 이촌이 어느정도 감소하였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여론 청취되었다. 그러나 품앗이 . 이웃간의 길흉사참여 등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풍속은 상당히 파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공지구 취업농가중에서 경영주 본인이 취업한 농가는 15.1%에 불과하였고 주로 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한 것으로 (60.4%) 나타났다. 따라서 농공지구에 취업함으로써 집안의 농사일에는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공지구가 농업부문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잠재적 실업을 어느정도 해소시키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이것은 농공지구

취업 후의 농사방법이 남은 가족들에 의하여 대체되었다가 64.6 %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업노동력 고용으로 대체하였다도 20.0 %에 달하므로 현재의 영농구조하에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농외취업을 증대시키는데 그 한계점이 있다.

농공지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가) 문제점

농공지구개발사업의 제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농공지구 개발의 지역적 편중 심각 : 지역균형개발 저해 (또 다른 사회적 비용 초래).
- 행정처리 절차의 복잡 및 장기간 소요 :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증대.
- 향후 농공지구개발사업 담당주체 불분명 : 민간 또는 정부 (부처간 업무담당 명기).
- 지역유효노동력 (effective labor force)의 부족 : 노동력 수급 불일치.
- 입주업체 선정의 문제 : 안정성 결여 (영세농의 농공지구로의 전업 취업 유인부족).
- 지역주민과 입주업체간의 갈등 발생 내재 : 입주업체의 지역 통합도 저조.
- 농업구조 개선 대비시책 미흡 : 농지유동화 및 영농기계화 병행 추진 노력부족.
- 지역종합개발과의 연계인식 부족 : 투자개발의 집적효과 (agglomeration effect) 미흡.
- 지방상공행정 기능의 취약 : 사회적 거래비용의 증대.

(나) 개선 방안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정적 효과는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조직적인 효과탐지체계 (monitoring system)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담당자들이 정확하고도 신속한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효과에 관한

정보를 가지므로써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입주업체의 최적선정 및 지방 상공행정기능의 강화 필요.

지역내의 인적 물적자원의 여건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입주업체의 최적선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목표중의 하나인 영세농의 탈농유도 및 농가당 경작규모의 확대와 이에 수반되는 영농기계화의 촉진 등 지역 농업구조개선과도 관련된다. 왜냐하면,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안정성이 결여될 시 지역주민(특히 영세농가)의 농공지구로의 전업적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농지유동화의 근원이 봉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선정을 담당하는 지방행정부서의 업무량 과다 및 전문지식의 결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지역산업과의 연계성 고려) 안정성 있는 업체의 입주선정 및 유도에는 그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농공지구의 입주업체 선정시 지방대학 연구소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방 상공행정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을 위해 업무량 과다 해소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노동력 공급의 원활화대책 강구.

농어촌에 잠재적 노동력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한 유효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훈련된 노동력의 부족 및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농촌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농촌주민의 농공지구 취업에 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인문계 고교를 공업계 고교로의 일부 전환 및 산업체 부설학급의 신설, 그리고 생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방행정부의 홍보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외부 노동력의 원활한 확보와 이들의 정착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이 요망된다.

넷째, 농공지구의 32.3%가 충남북 지역인 및 수도권 인접지역인 중부지방에 밀접되어 있는 바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의 근본 취지 중의 하나인 지역간 균형개발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낙후된 지역(경제적 입지여건의 비교열위 지역)에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이촌향도를 지

양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적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의 자생적 성장 (autonomous growth)이 비교적 가능하여 농공지구라는 적극적인 정부재정정책의 필요성이 그만큼 덜하나 낙후지역은 정부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지역의 성장 및 발전은 요원하다는 인식에서 출발된다.

지역간 균형개발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간 차등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이와 관련하여 농촌공업의 무질서한 확장이 아니라 계획적인 입지와 업종유치를 통한 이상적 지역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공업개발과 관련 있는 공업단지 조성 및 공업 배치에 대한 통합조정, 농촌공업개발의 공간적 배치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주민과 입주업체와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

농공지구 입주업체는 농촌주민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바, 전통적인 농촌주민의 의식구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주민과 농공지구 입주업체와의 마찰 및 갈등은 농촌주민 뿐만 아니라 농공지구 입주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입주업체 자체의 성장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입주업체는 그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해서 존재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은 입주업체에 대해서 소득증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업체의 지역 주민의 이해와 이들의 행사에의 참여 및 후원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농업구조 개선시책의 적극 병행 필요.

농공지구를 개발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농외노동력 수요가 증대한다. 이는 지역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농업노임의 상승을 초래한다. 즉, 농외노동력 수요 증가는 지역 (농업) 노동력의 선택의 기회를 증대시켜 농공지구 취업노임이 최소한 기준의 농업노임 이상이 요구되는 바, 기존의 농업노동력의 부족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농업노임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공지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농가는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농업노임 상승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농업 생산비는 증가하게 되어 지역농업의 비교열위는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이

다.

특히, 농번기에는 농업노동력이 절대 부족하고 농한기에는 유휴노동력 (idle labor force)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근대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공업화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답작) 농업노동력 수요의 계절적 지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농업기계화와 이를 위한 농가당 경영규모의 증대가 필요하다. 즉, 농촌공업 개발정책과 함께 농촌공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노동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시키는 한편 이들의 농경지를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에 의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전업농의 영농기계화를 촉진시키고 경지면적의 확장을 위한 농지구입자금 지원 등과 같은 시책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농촌공업 입주업체들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봉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가는 농가대로 농업노동력의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노령영농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탈농을 유도하고 영세탈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 기술훈련 및 농공지구 취업알선, 그리고 기술훈련기간의 실업보험 등의 실시가 필요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구입자금 공급의 확대 등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의 규모경영의 실현과 농업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투용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망된다.

여덟째, 농공지구 개발정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대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일국의 경제력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상승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하는 사회적 정당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즉,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의 지방이전을 기 추진중인 농공지구 개발사업과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의 관리비용 (administration cost)의 감소와 일관성 (consistency)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공지구 입주업체의 건실화를 기할 수 있다. 수도권 입지 제조업체의 농공지구 입주의 적극 장려는 농공지구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추

구할 수 있고, 농공지구 개발사업 프로그램은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로 하여금 지방이전의 유인동기 (*incentive*)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 개발대책과의 연계하에서의 농공지구 개발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공지구 개발시 정부 보조 및 응자의 지역별 차등 지원이 강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농공지구 개발 사업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지역특성에 따라 현재의 소규모 지방공단의 개념에서 중규모 개념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이전업체의 유치도 필요함).

끝으로,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종합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사회기간시설의 확충 및 보완에 중점으로 두어 농(어)촌지역이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로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침이 없다.

부표 1 횡성지역 투입산출 거래표

	AGPL	COW	AGRSEVFOR	SEAMIN	MANU	ELEC	CONST	COMM	TRANS	FINA	GOV	EDUCA	OTHSE	MDDMA	PRVCON	COVCON	FIXCAP	INVEN	EXPORT	FINALD	TOTGET			
AGPL	1747	1698	41	55	0	0	4668	0	1	3	0	0	2	1	3	8219	9838	0	68	200	28540	38246	46465	
COW	418	596	27	0	0	0	1	0	0	0	0	0	0	0	0	1042	1342	0	1113	2827	19473	24755	25797	
AGRSEV	1143	339	0	6	0	0	0	0	0	0	0	0	0	0	0	1488	0	0	0	0	330	330	1818	
FOR	916	1593	111	98	0	0	136	0	8	1	0	0	5	0	0	2868	928	0	334	80	2983	4165	7033	
SE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9	0	0	0	19	39	39	39	
MI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ANU	58	1399	27	11	0	0	1448	24	746	113	12	42	94	48	71	4094	2543	0	79	52	7972	10646	14740	
ELEC	10	86	6	3	0	0	100	28	18	97	15	70	29	46	57	565	393	0	0	0	488	881	1446	
CONST	137	146	21	51	0	0	0	16	23	28	81	6	420	122	84	13	1148	0	0	4625	0	3471	8996	9244
COMM	-8	1146	38	-3	0	0	218	5	204	101	15	11	40	36	30	1833	5720	0	267	27	0	6014	7847	
TRANS	59	125	8	12	0	0	64	3	73	316	87	65	57	32	56	957	952	0	1	1	433	1387	2344	
FINA	238	113	32	13	0	0	184	13	411	523	36	288	94	35	328	2308	2286	0	4	0	1975	4265	6573	
GOV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1219	3569	0	0	0	4728	4729	
EDUCA	1	2	0	0	0	0	9	1	2	12	0	3	13	1	0	44	5221	2558	0	0	0	7779	7823	
OTHSEV	6	35	5	0	0	0	8	1	9	20	4	118	6	6	42	260	3206	115	0	0	0	3321	3581	
INPUT	4726	7278	316	246	0	0	6852	98	1500	1267	176	1017	462	289	600	24827	33677	6182	6491	2627	65675	114652	139479	
IMPORT	4589	13014	415	756	16	0	4538	476	4073	1342	549	868	1767	728	808	33932								
VAD	87151	5504	1087	6031	23	0	3350	872	3671	5238	1619	4688	2500	6806	2173	80720								
TOTINP	14666	25796	1818	7033	39	0	14740	1446	9244	7847	2344	6573	4729	7823	3581	139479								

부표 2 횡성지역 투입산출 계수

	AGPL	COW	AGRSEV	FOR	SEA	MIN	MANU	ELEC	CONST	COMM	TRANS	FINA	GOV	EDUCA	OTHSE	MDDMA	
AGPL	0.0375	0.0658	0.0225	0.0078	0	0	0.3166	0	0.0001	0.0003	0	0	0.0004	0.0001	0	0.008	0.0589
COW	0.0089	0.0231	0.0148	0	0	0	0.0000	0	0	0	0	0	0	0	0	0	0.0074
AGRSEV	0.0245	0.0131	0	0.0008	0	0	0	0	0	0	0	0	0	0	0	0	0.0106
FOR	0.0197	0.0617	0.0610	0.0139	0	0	0.0092	0	0.0008	0.0001	0	0	0.0010	0	0	0	0.0205
SE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I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ANU	0.0012	0.0542	0.0148	0.0015	0	0	0.0982	0.0165	0.0807	0.0144	0.0051	0.0063	0.0198	0.0061	0.0198	0.0293	
ELEC	0.0002	0.0033	0.0033	0.0004	0	0	0.0067	0.0193	0.0019	0.0123	0.0063	0.0106	0.0061	0.0058	0.0159	0.0040	
CONST	0.0029	0.0056	0.0115	0.0072	0	0	0.0010	0.0159	0.0030	0.0103	0.0025	0.0638	0.0257	0.0107	0.0036	0.0082	
COMM	-0.000	0.0444	0.0209	-0.000	0	0	0.0147	0.0034	0.0220	0.0128	0.0063	0.0016	0.0084	0.0046	0.0083	0.0131	
TRANS	0.0012	0.0048	0.0044	0.0017	0	0	0.0043	0.0020	0.0078	0.0402	0.0371	0.0098	0.0120	0.0040	0.0156	0.0068	
FINA	0.0051	0.0043	0.0176	0.0018	0	0	0.0124	0.0089	0.0444	0.0666	0.0153	0.0438	0.0198	0.0044	0.0915	0.0165	
GOV	0	0	0	0	0	0	0	0	0	0	0.0004	0	0	0	0	0.0000	
EDUCA	0.0000	0.0000	0	0	0	0	0.0006	0.0006	0.0002	0.0015	0	0.0004	0.0027	0.0001	0	0.0003	
OTHSEV	0.0001	0.0013	0.0027	0	0	0	0.0005	0.0006	0.0009	0.0025	0.0017	0.0179	0.0012	0.0007	0.0117	0.0018	
INPUT	0.1017	0.2821	0.1738	0.0349	0	0	0.4648	0.0677	0.1622	0.1614	0.0750	0.1547	0.0976	0.0369	0.1675	0.1779	
IMPORT	0.0987	0.5044	0.2282	0.1074	0.4102	0	0.3078	0.3291	0.4406	0.1710	0.2342	0.1320	0.3736	0.0930	0.2236	0.2432	
VAD	0.7995	0.2133	0.5979	0.8575	0.5897	0	0.2272	0.6030	0.3971	0.6675	0.6906	0.7132	0.5286	0.8699	0.6068	0.5787	
TOTINP	1.0000	1.0000	1.0000	1.0000	0.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부표 3 횡성지역 부문별 생산유발계수(I-A)⁻¹형

LOCINVER	ACPL	COW	AGRSEV	FOR	SEA	MIN	MANU	ELEC	CONST	COMM	TRANS	FINA	GOV	EDUCA	OTHSE	MDDMA	FOREFF
ACPL	1.0415	0.0920	0.0314	0.0091	0	0	0.3661	0.0067	0.0301	0.0065	0.0022	0.0047	0.0087	0.0028	0.0089	1.6112	1.3879
COW	0.0099	1.0247	0.0155	0.0001	0	0	0.0035	0.0000	0.000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546	0.9084
AGRSEV	0.0257	0.0157	1.0010	0.0010	0	0	0.0090	0.0001	0.0007	0.0001	0.0000	0.0001	0.0002	0.0000	0.0002	1.0545	0.9083
FOR	0.0230	0.0676	0.0637	1.0144	0	0	0.0185	0.0003	0.0024	0.0004	0.0001	0.0002	0.0015	0.0001	0.0004	1.1931	1.0277
SEA	0	0	0	0	1.0000	0	0	0	0	0	0	0	0	0	0	1.0000	0.8614
MIN	0	0	0	0	0	1.0000	0	0	0	0	0	0	0	0	0	1.0000	0.8614
MANU	0.0029	0.0638	0.0195	0.0025	0	0	1.1108	0.0205	0.0910	0.0187	0.0066	0.0143	0.0251	0.0681	0.0245	1.4088	1.2135
ELEC	0.0004	0.0048	0.0042	0.0005	0	0	0.0083	1.0201	0.0035	0.0140	0.0071	0.0120	0.0070	0.0062	0.0179	1.1066	0.9533
CONST	0.0040	0.0081	0.0139	0.0075	0	0	0.0040	0.0170	1.0068	0.0155	0.0040	0.0677	0.0277	0.0113	0.0105	1.1987	1.0325
COMM	0.0009	0.0476	0.0225	-0.0000	0	0	0.0171	0.0043	0.0240	1.0141	0.0070	0.0038	0.0097	0.0091	0.0095	1.1659	1.0043
TRANS	0.0017	0.0079	0.0062	0.0019	0	0	0.0065	0.0027	0.0102	0.0434	1.0391	0.0119	0.0135	0.0046	0.0181	1.1684	1.0664
FINA	0.0065	0.0104	0.0217	0.0024	0	0	0.0183	0.0111	0.0502	0.0729	0.0177	1.0516	0.0236	0.0059	0.0991	1.3918	1.1989
GOV	0.0000	0.0000	0.0000	0.0000	0	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1.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8618
EDUCA	0.0000	0.0002	0.0000	0.0000	0	0	0.0007	0.0007	0.0003	0.0016	0.0000	0.0005	0.0028	1.0001	0.0000	1.0072	0.8676
OTHSEV	0.0003	0.0018	0.0033	0.0000	0	0	0.0010	0.0009	0.0020	0.0040	0.0021	0.0192	0.0018	0.0009	1.0137	1.0515	0.9058
INPUT	1.1174	1.3451	1.2034	1.0395	1.0000	1.0000	1.5643	1.0850	1.2221	1.1919	1.0868	1.1864	1.1220	1.0455	1.2034	17.43	
BAKEFF	0.9625	1.1587	1.0366	0.8954	0.8614	0.8614	1.3475	0.9346	1.0527	1.0267	0.9361	1.0220	0.9665	0.9006	1.0366		

부표 4 횡성지역 부가가치 유발 계수표

ADVIOCE	ACPL	COW	AGRSEV	FOR	SEA	MIN	MANU	ELEC	CONST	COMM	TRANS	FINA	GOV	EDUCA	OTHSE	MDDMA
ACPL	0.8327	0.0735	0.0251	0.0072	0	0	0.2927	0.0054	0.0241	0.0052	0.0017	0.0037	0.0069	0.0022	0.0071	1.2883
COW	0.0021	0.2186	0.0033	0.0000	0	0	0.0007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2250
AGRSEV	0.0154	0.0094	0.5985	0.0006	0	0	0.0054	0.0001	0.0004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0001	0.6305
FOR	0.0197	0.0578	0.0546	0.8698	0	0	0.0158	0.0003	0.0020	0.0003	0.0000	0.0002	0.0013	0.0001	0.0003	1.0231
SEA	0	0	0	0	0.5897	0	0	0	0	0	0	0	0	0	0	0.5897
MI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ANU	0.0006	0.0145	0.0044	0.0005	0	0	0.2524	0.0046	0.0207	0.0042	0.0015	0.0032	0.0057	0.0018	0.0055	0.3201
ELEC	0.0002	0.0029	0.0025	0.0003	0	0	0.0050	0.6151	0.0021	0.0085	0.0043	0.0072	0.0042	0.0037	0.0108	0.6673
CONST	0.0016	0.0032	0.0055	0.0030	0	0	0.0016	0.0067	0.3998	0.0061	0.0015	0.0269	0.0110	0.0045	0.0041	0.4760
COMM	0.0006	0.0318	0.0150	-0.0000	0	0	0.0114	0.0028	0.0160	0.6769	0.0046	0.0025	0.0065	0.0034	0.0063	0.7782
TRANS	0.0012	0.0055	0.0043	0.0013	0	0	0.0045	0.0019	0.0071	0.0300	0.7177	0.0082	0.0093	0.0032	0.0125	0.8070
FINA	0.0046	0.0074	0.0154	0.0017	0	0	0.0130	0.0079	0.0358	0.0520	0.0126	0.7500	0.0168	0.0042	0.0706	0.9926
GOV	0.0000	0.0000	0.0000	0.0000	0	0	0.0000	0.0000	0.0000	0.0002	0.0000	0.5286	0.0000	0.0000	0.5289	
EDUCA	0.0000	0.0001	0.0000	0.0000	0	0	0.0006	0.0006	0.0002	0.0013	0.0000	0.0004	0.0024	0.8701	0.0000	0.8763
OTHSEV	0.0002	0.0011	0.0020	0.0000	0	0	0.0006	0.0005	0.0012	0.0024	0.0013	0.0116	0.0010	0.0005	0.6151	0.6381
INPUT	0.8793	0.4264	0.7311	0.8847	0.5897	0	0.6042	0.6464	0.5099	0.7876	0.7459	0.8145	0.5943	0.8940	0.7331	9.8417

부표 5 횡성지역 이입유발계수표

IM1OCE	AGPL	COW	ACRSEV	FOR	SEA	MIN	MANU	ELEC	CONST	COMM	TRANS	FINA	GOV	EDUCA	OTHSE	MUDMA
AGPL	0.1028	0.0090	0.0031	0.0008	0	0	0.0361	0.0006	0.0029	0.0006	0.0002	0.0004	0.0008	0.0002	0.0008	0.1591
COW	0.0050	0.5169	0.0078	0.0000	0	0	0.0018	0.0000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5320
AGRSEV	0.0058	0.0036	0.2285	0.0002	0	0	0.0020	0.0000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2407
FOR	0.0024	0.0072	0.0068	0.1090	0	0	0.0019	0.0000	0.0002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0000	0.1282
SEA	0	0	0	0	0.4102	0	0	0	0	0	0	0	0	0	0	0.4102
MIN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ANU	0.0009	0.0196	0.0060	0.0007	0	0	0.3419	0.0063	0.0280	0.0057	0.0020	0.0044	0.0077	0.0024	0.0075	0.4337
ELEC	0.0001	0.0015	0.0013	0.0001	0	0	0.0027	0.3358	0.0011	0.0046	0.0023	0.0039	0.0023	0.0020	0.0059	0.3643
CONST	0.0017	0.0035	0.0061	0.0033	0	0	0.0017	0.0075	0.4436	0.0068	0.0017	0.0298	0.0122	0.0049	0.0046	0.5281
COMM	0.0001	0.0081	0.0038	-0.0000	0	0	0.0029	0.0007	0.0041	0.1734	0.0011	0.0006	0.0016	0.0008	0.0016	0.1994
TRANS	0.0004	0.0018	0.0014	0.0004	0	0	0.0015	0.0006	0.0024	0.0101	0.2433	0.0027	0.0031	0.0010	0.0042	0.2736
FINA	0.0008	0.0013	0.0028	0.0003	0	0	0.0024	0.0014	0.0066	0.0096	0.0023	0.1388	0.0031	0.0007	0.0130	0.1837
GOV	0.0000	0.0000	0.0000	0.0000	0	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3736	0.0000	0.0000	0.3738
EDUCA	0.0000	0.0000	0.0000	0.0000	0	0	0.0000	0.0000	0.0000	0.0001	0.0000	0.0000	0.0002	0.0930	0.0000	0.0937
OTHSEV	0.0000	0.0004	0.0007	0.0000	0	0	0.0002	0.0002	0.0004	0.0009	0.0004	0.0043	0.0004	0.0002	0.2287	0.2372
INPUT	0.1206	0.5735	0.2688	0.1152	0.4102	0	0.3957	0.3535	0.4900	0.2123	0.2540	0.1854	0.4056	0.1059	0.2668	4.1583

부표 6 횡성지역 후방효과(영향력 계수), 전방효과(감응도 계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BAKEFF	FOREFF	PINDCE	VDINDE	IMINDE		BAKEFF	FOREFF	PINDCE	VDINDE	IMINDE
AGPI.	0.9625	1.3879	1.1174	0.8793	0.1206	CONST	1.0527	1.0325	1.2221	0.5099	0.4900
COW	1.1587	0.9084	1.3451	0.4264	0.5735	COMM	1.0267	1.0043	1.1919	0.7876	0.2123
AGRSEV	1.0366	0.9083	1.2034	0.7311	0.2688	TRANS	0.9361	1.0064	1.0868	0.7459	0.2540
FOR	0.8954	1.0277	1.0395	0.8847	0.1152	FINA	1.0220	1.1989	1.1864	0.8145	0.1854
SEA	0.8614	0.8614	1.0000	0.5897	0.4102	GOV	0.9665	0.8618	1.1220	0.5943	0.4056
MIN	0.8614	0.8614	1.0000	0	0	EDUCA	0.9006	0.8676	1.0455	0.8940	0.1059
MANU	1.3475	1.2135	1.5643	0.6042	0.3957	OTHSEV	1.0366	0.9058	1.2034	0.7331	0.2668
ELEC	0.9346	0.9533	1.0850	0.6464	0.3535						

참 고 문 헌

- 강원도,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1983.
- _____, 「도정 주요통계」, 1987, 1988.
- 경제기획원, 「농어촌 공업개발 시책 개관」, 1989.10.
- 국토개발연구원,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국토연 '83-5, 1983.
- 기업은행, 「기은 조사월보」, 1988.12.
- 김경덕 외,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및 사후평가 연구 (2차
년도)-강원 횡성군 묵계 농공지구 사례」, 연구보고 178-1,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1988.12.
- 김학언, 「농촌지역 경제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충남 공주군 중심으
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19-1, 1987.12.
- 김호언, 「투입 - 산출모형에 의한 지역경제 구조분석」, 연세대 박사학
위 논문, 1986.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 조사결과 보고」, 1987, 1988.
- 상공부, 「농공지구 실태분석 결과」, 1989. 1.
- 서종혁 외, 「농촌공업과 농공지구 개발의 추진 방향」, 연구보고 1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12.
- 성진근, 「농공지구 개발효과의 조사연구 분석」, 1989.11.
- 전장수, 김영식, “산업연관 모형에 의한 지역경제 생산구조 분석,” 「농
업경제학 연구」, 제 1권,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회, 1988.12.
- 최양부, “아시아 몬순 농업경제에 있어서 공업화의 조건 : M - 싸이클 가
설을 중심으로,” 「경제학 연구」, 제 33 집, 1985, pp.91-102.
- 외, 「농공지구 개발의 방향과 정책과제」, 연구보고 82,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984.

- 최양부 외, 「농공지구 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연구(1 차년도)」,
 — 강원 횡성군 둑계 농공지구 사례 — , 연구보고 161-1,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1988. 4.
- 최양부, 김경덕, “농공지구 개발과 농협의 역할,” 「농공지구 참여실적
 평가 및 공산품 임가공사업 육성」, 농협중앙회, 1988. 11.
- 최양부, 김경덕, “21 세기를 향한 농촌공업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
 역개발 연구」, 제 1 집, 지역개발연구소, 1989.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횡성군 지역종합개발계획」, 1988.12.
- 한국은행, 「산업연관 분석 해설」, 1987.
- _____, 「기업경영분석」, 1988, 1989.
- 횡성군, 「통계연보」, 1980, 1984, 1985, 1986, 1987, 1988.
- Hewings, G. J. D.,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1985.
- Isard, W., *Methods of Regional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 MIT
 Press, 1960.
- Merrifield, J., “A Note on the General Mathematical Equivalency of Economic Base
 & Aggregate Input-Output Multiplier : Fact on Fic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7, 1987.
- Mohtadi, M & Kubursi, “Errors in Regional Nonsurvey Input-Output Model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1, 1981.
- Richardson, H. W., *Input-Output & Regional Economics*. 1972.
- _____, *Regional Growth Theory*, 1973.
- _____, *Regional Economics*, 1978.

빈 면

研究報告 205

農工地區開發事業의 波及效果分析研究 (3次年度) ①

江原 橫城郡 墨溪農工地區 事例

1989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記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范 社

電話 739-3911~5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